



## 소식 · 안내

40 월간브리핑

73 이슈 상식  
녹색분류체계 / 그린워싱

## 특집

### 새로운 한우를 찾아서

52 새로운 한우의 차별화 전략에 대해

54 한우를 더 새롭게 더 가치있게

62 방목한우에 도전한 40대 청년 농부의 7년차 귀농일기

66 새로운 한우에 대한 유통업계의 생각은?

## 사양 · 컨설팅

93 컨설팅  
철저한 기본관리를 통한 여름 극복  
지엠디컨설팅

96 원포인트레슨  
남원축협  
등록우 경매시장 풍경  
이종현 전 사무국장  
(한우협동조합연합회)

102 수의칼럼  
한우 키포인트 이것만은 꼭!  
소앤소 김재경 원장

## 기획

74 대한한우  
한우농장 열리어답터...  
축산의 미래를 그리다  
- 박사골농장 김삼기 대표

80 시·도지회  
임기 내 안정적인 조직 구축 위한  
기틀 마련에 최선  
- 이규옥 대전세종충남도지회장

82 우수지부  
지부단위 최초  
숯불구이축제 통해  
한우소비 촉진 앞장  
- 금산군지부

86 우리한우판매점  
1++등급 출현율 52%...  
'정읍한우식당'의 성공 비결은

## 연재 · 정보

106 소가사는세상

108 생활 법률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및 이점등의  
필요성

112 7월 한우동향분석  
한우정책연구소

120 일본방사능 와규 수입위험

132 7월 한우정보 주요뉴스



# 한우 저능력 미경산우 · 암소 비육지원 및 자율감축 사업 안내

신청 접수 기간 | 2022년 8월 1일 ~ 9월 30일

문의 | 전국한우협회(02-525-1053) 및 농협경제지주(02-2080-6563)

한우가격 안정화! 우리 모두가 동참합시다!



## 공통사항

- ➔ 신청일 기준 본인 소유의 개체만 사업 참여가능.  
단 기 신청개체는 중복참여 불가
- ➔ 신청(약정) 후 해당개체를 양도하더라도 도축기간 내  
도축 시 신청인에게 지급  
(‘22년 8월 1일 이후 양수양도 가능)
- ➔ 도축 확인 후 지원금 및 우수정액 별도 신청권 지급

## 1 한우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접수처** 전국한우협회 중앙회·시군지부  
**지원내용** 마리당 20만원  
**대상 개체** 미경산우(14개월 이하/‘21. 6. 1. ~ ‘22. 7. 31.)  
**도축 기간** 36개월령 이하 미경산우로 도축  
**신청 한도** 농가당 최대 40마리

## 2 한우 암소 비육지원

**접수처** 관내 지역축협  
**지원내용** (I형)보전금 18만원/두 + 우수정액  
별도신청권 지원  
(II형)우수정액 별도신청권 지원  
(I형 대비 2배 지급/보전금 미지급)  
**대상 개체** 경산우 50개월 이하/‘18.6.1일 이후 출생개체,  
‘22.7.31일 이전 분만한 암소  
**도축 기간** ‘23.2.1 ~ ‘23.6.30  
**신청 한도** 농가당 최대 40마리(I형 + II형)  
**정액 공급** ‘23.10월 추첨 후 농가에 공급  
(정액대금은 농가부담)

## 3 한우 암소 자율감축

**접수처** 전국한우협회 시군지부 및 관내 지역축협  
**지원내용** 우수정액 별도신청권 지원  
**대상 개체** 미경산우(20개월 이하/‘20. 12. 1. ~ ‘22. 7. 31.)  
경산우(‘17.8.1일 이후 출생개체, ‘22.7.31일  
이전 분만한 개체)  
**도축 기간** 미경산우 개체기준 36개월 이내 도축  
경산우 ‘23.2.1 ~ ‘23.6.30  
**신청 한도** 농가당 최대 40마리(미경산우 + 경산우)  
**정액 공급** 미경산우 1차(‘25. 2~3월), 2차(‘25. 하반기)  
경산우 ‘23.10월 추첨 후 농가에 공급  
(정액대금은 농가부담)

## \* 제외 대상 농가 및 개체

- ➔ 3년(2019.1.1~2021.12.31)동안 미경산우 또는 경산우  
181마리 이상 출하 농가
- ➔ 신규농가(2021.1.1 이후 축산업 등록한 자)는  
송아지 실적 면제되나 미경산우 또는 경산우 연간  
61마리 이상 출하 시 제외(법인 포함)
- ➔ 이전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 약정 미이행자  
(농가보전금 반납 시 사업참여 가능)
-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우암소검정  
사업의 저능력암소 조기 도태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 프리마틴, 신청농가와 소유주 불일치 개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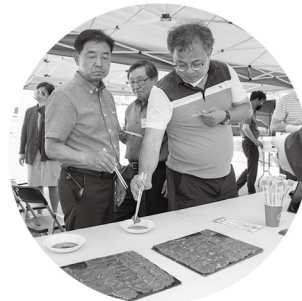
# 월간브리핑

2022년 7월 협회 주요활동



## 7.6(수) ○ 화산송이식 숙성육 시연 행사

- 일시 : 2022년 7월 6일
- 장소 : 경기도 화성시 제이제이푸드(주)
- 참석자 : 전국한우협회 임직원 및 관계자
- 주요내용: - 한우고기 소비 다변화 모색  
- 저등급 한우고기 숙성방법 및 시식 진행



## 7.8(금) ○ 농촌진흥청장·농업인단체장 초청 간담회

- 목적
  - 주요 농업인단체와 농촌진흥사업의 핵심 국정과제 추진방향을 공유
  - 농업 현안 소통 및 협력기반 마련

### ● 참석자

그룹명	단 체 명	직 책	대표자	참고사항
농축연 (8)	한국농축산연합회(농축연)	상임대표	이은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 장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회 장	강부녀	
	한국새농민중앙회	회 장	김안석	
	한국신지식농업인중앙회	회 장	원용덕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회 장	강 용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	회 장	신세경	
한중협 (6)	전국한우협회	회 장	김삼주	
	한국종합농업인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 장	이숙원	

그룹명	단 체 명	직 책	대표자	참고사항
한중협 (6)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 장	박대조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회 장	강현옥	
	한국4-H본부	회 장	방덕우	
	한국4-H중앙연합회	회 장	지준호	
농민의길 (4)	농민의길	상임대표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회장
	전국농민회총연맹	의 장	하원호	
	가톨릭농민회	회 장	신흥선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 장	강 용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회장

7.11(월)

## 수입축산물 무관세! 축산업 포기!

### 정부 규탄 기자회견

- 장소 :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 ■ 기자회견문 ■

물가안정 미명 아래 축산농가 몰살하는

축산물수입 무관세 적용방침 즉각 철회하라!

정부가 수입명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8일 고물이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정방안을 발표했지만, 축산농가들의 민생은 뒷전이다. 이미 6월 22일부터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수입산 돼지고기 5만톤에 대해 삼겹살 2만톤 추가증량, 소고기 10만톤과 닭고기 8만2천5백톤, 전·탈지분유는 기존 1,607톤에서 1만톤까지 수입무관세 적용을 오는 7월 20일부터 연말까지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물가안정을 빌미로 축산농민들의 생존권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사태가 눈 앞에 벌어지고 있음에도 국민먹거리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높여가는 정부의 행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퍼주기식으로 체결한 축산강대국들과의 FTA로 인해 무관세 TRQ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형국에 무관세수입 확대조치는 축산농가 입장에서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다. 식량주권과 국민건강주권에 대한 포기과 같다. 6월 기준 전년동월 대비 물가상승률 6% 중 축산물의 기여도는 0.35%P에 불과하며 물류비와 인건비가 지속 상승하는 가운데 금번 조치가 최종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하게 될지도 의문이다.

결국 금번 조치는 민생 운운하며 축산물 수입·유통업자들의 이권을 챙겨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과도한 살처분정책에서 비롯된 계란 수급불안을 오로지 수입정책으로만 뚝질했던 전 정부의 과오를 답습하는 미련함에 축산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진다. 국민 먹거리의 근간인 자국 농축산업에 대한 정부 당국자들의 천박한 인식에 전국 축산농가들은 울부짖고 싶은 심정이다. 물가잣대로 낙농문제를 결부, 농가궤터삭감과 유업체 수입산 사용을 부추기는 낙농가탄압정책 추진으로 전국 낙농가들은 아스팔트로 내몰린지 146일째다.

최근 축산농가 경영여건은 참담하다. 축산물생산비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사료가격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해외곡물이 상승으로 인해 30% 이상 폭등하고 있다. '21년 기준 소고기는 36.8%, 우유는 45.7%이라는 자급률이 말해주듯 피해보전 없는 무차별 개방화농정은 축산업 기반을 송두리째 붕괴시키고 있다. 규모확대, 환경규제에 따른 시설투자로 부채증가도 심각하다. 사료값 폭등 근본대책 마련은 뒷전인 채 국방부의 군급식 수입축산물 도입정책과 금번 물가대책과 같이 축산농정을 물가와 가격논리로만 접근하는 우매함에 소, 돼지, 닭이 웃을 판이다.

선진국 정책이라면 사족을 못 쓰면서 선진국들의 자국 농축산업 보호정책은 왜 벤치마킹하지 않는지 의문이다. 그간 정부가 보여준 축산분야 대외무역은 퍼주기식 관세인하와, 검역과 같은 비관세장벽 완화 등 굴욕외교 일색이었다. 늘 제조업에서는 이득을, 농축산업에서는 피해를 봐도 된다는 암묵적인 협상규칙이 존재해왔다. 최근까지도 RCEP과 CPTPP 추진과정에서 농축산업 피해규모를 축소하는 등 농민앞에 진정성 있는 설득은커녕 철저히 기만으로 일관해왔다.

2023년부터 닭고기(일부철폐), 2026년부터 소고기, 유제품 관세철폐가 예고된 가운데 금번 조치는 축산농가 사형선고를 앞당기는 것이나 다를 없다.

현재 축산업의 위상은 많이 저하되어 있다.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의 축산업기반 붕괴 방치를 비롯한 환경오염의 책임을 농가에 전가하는 탄소중립 명분의 환경부 규제, 축산물의 영양학적 우수성을 외면한 무분별한 안티축산 확산이 그 원인이다. 이대로 가다간 국내 축산업 생산기반은 붕괴될 것이며 우리 국민 밥상위에 고기, 우유, 계란은 전부 수입산으로 채워질 것이 자명한 이치다.

전국 축산농가들은 정부에 분명하게 고한다. 물가안정 미명 아래 축산농가 다 죽이는 축산물수입 무관세 적용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들끓는 축산농가들의 민심을 직시하라! 훌륭한 단백질공급원으로서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있는 축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여 사료값폭등 특단대책 등 축산업 기반유지 정책마련에 몰두하라! 만일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축산물 무관세 수입을 강행한다면 전국의 축산농민들과 230만 농업인들의 연대 속 맹렬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22년 7월 11일

####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낙농육우협회,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축산경제연구원, 대한수의사회,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축산신문, 친환경축산협회,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대용유사료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사료협회, 한국사슴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축산물처리협회,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 7.11(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간담회

- 장소: 세종정부청사 농림축산식품부
- 주요 질의 및 답변

구분	주요 키워드	세부 질의 및 답변
중앙	종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 발언 / (수입소고기 무관세 항의 표명 / 국내 대책 요구) 정부발표에 따른 불안한 심리가 고조돼 현장 송아지가격 50만원 하락. 국내 농축산업을 지키는 정책 필요</li> </ul>
	7.11(월) 농식품부 답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산농가 대책 마련) 소비자 물가안정 측면의 수입소고기 무관세 결정, 입장 이해 부탁. 축산농가 피해에 따른 사료값 대책 마련(상환기간 연장(1,260억원)/쿼터 30만톤 증액(400억원))</li> <li>→ (소통 강화) 현안 발생 시 사전 공유하고 해결책 마련 / 언제든 소통자리 마련</li> </ul>
경기	TMR 전기 기업·생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제방안 조율 건의) FTA대책 일환으로 자가소비 목적 TMR에 농사용 전기 가능토록 개선해 생산비절감차원으로 운영되었으나, 일부 비조합원에게 판매했다는 이유로 소 급적용한 금액과 위약금을 일괄 납부토록 요청(1개소당 2억원). 위약금만이라도 정부에서 조율해 줄 것을 건의</li> <li>• (생축장 / 조합원자격) 귀표 없는 조합원 등 선거 시 논란 발생. 농식품부 지침 공문 발송 건의</li> </ul>
	농식품부 답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약금 구제 방안 확인) 위약에 대해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지만, 당사자간 계약으로 정부가 도와주기엔 어려울 것으로 보임</li> <li>→ (조합원 자격 조치) 내년 3월 조합선거 전에 조치토록 함</li> </ul>
강원	군납 축산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산 농축산물 이용 건의) 군납으로 한우를 비롯한 농축산물의 소비가 이뤄지고 있으나, 최저가경쟁입찰로 인해 캐나다산을 비롯해 등급·품종의 표기도 없는 수입산이 납품되고 있음. 단계적 시행 후 3년 후 전면 공개경쟁 입찰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초 정부가 약속한 국내산원칙과 지역산 우선구매 이행 요구</li> <li>- 국내 농축산물 공급량 최대 확보, 지역산 우대 납품 방안 구체화 계획 마련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의 건의</li> </ul> </li> <li>• (축산환경) 축산환경 규제 지속, 생산비 증가, 환경 규제에 인한 농가의 어려움 발생. 민원에 대한 기준 설정 및 지자체 지침 마련 필요</li> </ul>
	농식품부 답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산 이용 협의) 국내산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에 공감. 다만 국방부의 불신 문제, 군부대 납품 시 품질에 대한 농업인의 자구적 반성도 필요. 국내산 우선되도록 협의</li> <li>→ (축산규제 자구적 노력 필요) 축산 규제는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부분과 함께 고려되는 부분. 악취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며, 석유 정제 기술 시 사용된 사례를 농업계에 접목해 도입. 환경 규제는 강화될 수 밖에 없으며, 농가의 자구적 노력 병행 필요</li> </ul>

구분	주요 키워드	세부 질의 및 답변
충북	사료자금 국내조사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금 실용화 개선) 금리1%→무이자, 기존대출 연장, 가축담보 고려(동산/여신 확대/이력제시스템 개체확인), 선입금액에 대해 농가사육금액에 대해 이자납부</li> <li>• (국내조사로 활성화) 국내산 조사료 작업비·종자비 지원 사항, 하천부지 활용 건초 수확 건의</li> </ul>
	농식품부 답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축담보 가능) 규정은 가축담보도 시가의 40%까지 가능. 조합과 협의해 조치토록 함.</li> <li>→ (국공유지, 유흥지, 하천부지 활용 제도화) 국토부에서 하천부지 재배치 비료나 농약의 하천 유입 우려. 지자체별로 협의해 추진 중인 곳이 있으며, 내년 사업 본격화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공유지, 유흥지, 하천지에 대한 축협·영농조합이 활용한다면 가능토록 협의, 제도화 마련</li> </ul> </li> </ul>
충남	기업축산 질병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규제책 마련) 기업자본의 진입으로 인한 생산농가의 피해 우려. 특히 사육두수 증가로 농가들은 입식자제를 하고 있으나, 기업은 사육두수를 늘리고 수급조절에 영향을 미침. 기업 규제 법제화 및 기업(위탁농)과 일반농가의 기준을 마련하고 정책에 따른 지원 차등 필요</li> <li>• (축사 울타리 지원) 한우 브루셀라·결핵병 등 질병방역을 위한 축사 울타리 설치 시 지원 건의</li> </ul>
	농식품부 답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인 경쟁력·기술력 향상 지원방안 모색) 한우의 경우 기업형 농업이 들어오기 어려운 구조로 긍정적인 측면도 있음. 한우는 현재 3~4% 수준으로 파악. 자율적인 진입을 규제로 막기는 어렵지만, 농업인들의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방안과 지원 검토. 단 기적 외식문화 급감시 가격안정을 위한 마릿수 조절 등 농가의 자구적 노력도 필요. 기업형 축산 적절히 조절토록 함</li> <li>→ (축사 울타리 공감) 질병예방을 위한 지원 검토</li> </ul>
전북	퇴비사 사육밀도 살포비증액 소비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비사 확충)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퇴비사를 확충이 필요하나, 사육여건으로 인해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음. 퇴비사 건폐율 면제 필요. 가설건축물로 요구. 중앙부처가 지자체에 관보로 시행지침 하달 건의</li> <li>• (소규모농가 사육밀도 완화) 30~40두 이하농가의 경우 대부분 번식농가로 송아지 출산에 따른 사육밀도 급등. 30~40두이하 농가의 경우 송아지 8개월 이하 사육밀도 제외</li> <li>• (경축순화 활성화를 위한 살포비 증액) 퇴비는 액비와 다르게 20만원으로 살포 어려움. 30만원으로 상향 건의</li> <li>• (조사료 확충을 위한 농지은행 활용)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보유농지를 활용해 조사료를 재배할 수 있도록 건의</li> <li>• (직거래활성화 사업 활성화) 3·3·4 사업 소비활성화 건의</li> </ul>
	농식품부 답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기준 농가 송아지 사육밀도 8개월령까지 규정개정) 사육밀도에 대해 축산업 허가기준(50㎡이하) 농가의 경우 송아지 출산으로 인한 사육밀도 위반이 발생되고 있어, 8개월령까지 제외하는 것에 대해 검토완료(70~80% 해결 예상)</li> <li>→ (가설건축물로 퇴비사 인정 협의) 사퇴비사를 가설건축물로 인정해주나 지자체별로 안해주는 사례가 있음. 가설건축물로 인정해 풀수 있도록 지역별 사례 발생시 농식품부에서 협의해 풀도록 사례 취합 요구</li> <li>→ (살포비 검토) 퇴비전문유통조직은 주로 축협이 진행하고 있는데, 살포비에 대해 상황을 확인·파악해 검토하도록 함</li> <li>→ (조사료 확충을 위한 농지은행 활용 적극 검토) 생산비 절감 차원의 공감. 검토</li> <li>→ (사업 중단 예정) 신청자는 많으나 중도포기 등 예산불용 지속</li> </ul>

구분	주요 키워드	세부 질의 및 답변
전남	국내조사료 수입조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금 상향) 국내산 조사료 자급율 향상을 위해 조사료 작업비, 종자비 지원 상향 필요</li> <li>• (수입조사료 쿼터 상향) 수입조사료의 수급이 불안정해 농가의 생산비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생산비절감을 위한 공동구매를 위해 수입조사료 쿼터 증가 및 조기배정 건의</li> </ul>
	농식품부 답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조사료 작업비 검토) 국내 조사료 작업비, 종자비 상향 등 국내산조사료 활성화를 위한 방안 검토중</li> <li>→ (수입조사료 쿼터 상향) 쿼터 30만톤 증량</li> </ul>
경북	사료가격 생산비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료가격 지원책 마련) 사료가격 폭등으로 생산비 부담. 출하시 생산비에도 못 미치고 있어 농가의 어려움 가중. 사료 인상분 차액지원, 사료안정기금 등 마련 건의</li> <li>• (자가배합TMR, 옥수수 사일리지 기계 지원) 생산비감축을 위한 자가배합 TMR기계·옥수수 사일리지 제조기계 지원 등 농가의 자급자족을 위한 국비 지원 건의</li> <li>• (벚짚환원사업 중지) 벚짚 유통 보조 등 건의</li> </ul>
	농식품부 답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 조사료 경작 직불금 마련) 대선공약의 일환으로 논에 조사료를 경작할 경우 직불금 지원책 마련.</li> <li>→ (물가안정 기계 지원) 경북 추경·지원사례 파악, 사료가격 안정대책으로 기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공동(마을, 축협)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기계 지원(보조)방안 마련</li> <li>→ (사료비 대응) 사료회사에 사료가격 인하요인 시 반영 요구</li> <li>→ (유통체계 개선) 벚짚 유통구조 명확화, 조사료 유통단지 구축</li> </ul>
이희대 부회장	한우질병 브루셀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병 근절책 마련) 농가의 빠른 신고를 유도하고 질병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브루셀라 조기신고 시 100% 살처분 보상액 지급</li> <li>• (인센티브 지급) 방역철저·관리 우수 농가 인센티브 지원</li> </ul>
	농식품부 답변	→ 질병예방 방안 검토
울산	축사현대화 ICT보급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사 ICT 보급) 축사현대화 사업 추진에 있어 ICT보급사업을 확대해 농가의 생산성, 편리성 확대 및 민관협력차원의 방역관리 시스템 마련 / 울주의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정부의 지원 사업</li> </ul>
	농식품부 답변	→ (축사 ICT 지원) 울주군 사례 등 확인 후 축사 ICT 보급에 대해 적극 검토
한양수 부회장	사료안정기금 소비·유통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료안정기금) 사료비 폭등에 대한 대책으로 안정기금 등 마련 건의</li> <li>• (소비·유통 활성화) 상시적인 소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 마련</li> <li>• (송아지생산안정제) 한우산업 위기. 기반안정을 위한 제도 개편 검토</li> </ul>
	농식품부 답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조금 활용 기금조성) 자조금의 일부로 안정기금을 만들어 농가 스스로 쓸 수 있는 방안 검토</li> <li>→ (송아지생산안정제) 과잉 및 부족할 때 관리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지금의 송아지생산안정제로는 불가능. 무배추 계약재배 사례처럼, 소규모 한우농가 기준을 설정해 무이자로 사료비용을 지원하고 조정하는 방안 등 연구용역 / 검토</li> </ul>
임종선 감사	한우수출 미경산품질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우수출 증대) 한우의 수출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 청정국 지위 획득, 수출 장려 지원, 저등급 숙성육 지원</li> <li>• (미경산우 소비활성) 암소감축사업 연계 및 소비활성을 위한 미경산우 품질표시 마련</li> <li>• (종모우 개량) 종모우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예산 확대 건의</li> </ul>
	농식품부 답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 지원)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획득 노력(올해 신청). 다만 농가에서도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 요청. 수출장려대책에 보조는 없어졌지만, 우회 지원 방안 고려</li> <li>→ (미경산우 표시제 제도적 도입 검토) 정부의 제도적 도입 검토. 사전 자율표시제로 한 위험회·축협 사전 시행 추진</li> </ul>





## 7.12(화) — ○ 주거취약계층 한우나눔 곰탕 전달

- 장소 : 서울 창신동 쪽방 상담소

## 7.14(목) — ○ 농림축산식품부 김정욱 축산국장 협회 방문 면담

- 장소 : 중앙회 회장실
- 참석자 : 김정욱 축산국장, 정재환 축산경영과장 등

## ○ 한국농어민신문 창간 42주년 기념행사 참석

## ○ 음성공판장 중도매인조합 업무협약

- 한우가격안정화 협의 및 교류 활성화 계기 마련

## 7.18(월) — ○ 농림축산식품부 출입기자단(일간/방송/경제지) 간담회

- 정부의 수입무관세 정책 수정 필요 설명
- 한우산업 관심과 농가 애로사항 이해의 장 마련

## 7.19(화) — ○ 한우정책연구소운영위원회

7.20(수)

## KBS통합뉴스룸 출연

- 수입축산물 관세 제로화의 부당성 설명
- 한우산업 등 식량안보 중요성 및 한우농가 경영 어려움 호소
- 소비자와 한우농가에게 직접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개선 촉구



7.20(수)

## ○ 한우수출분과협의회

### ● 2022년 수출 실적

‘22.7.14 기준 (단위 : kg, 천\$)

품목명	수출업체	‘21년 동기(A)		‘22년 누계(B)		비교(B-A)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한우고기	9개소	21,175	1,650.5	23,987	1,664.2	2,812	13.7

- 수출업체(9개소) : 씨엘아이, 황성축협, 탐라인, 서귀포시축협, (주)기본, 어메이징파인 푸드, 우리인터내셔널, 한국한인홍, 한산(주), 엘에스트레이딩

### ● 한우 수출동향

- 한우고기 수출물량은 작년 동기대비 13.3% 증가

- 22년 한우고기 수출물량은 23,987Kg(7.14)로 작년 동기(21,175Kg) 대비 13.3% 증가

- 22년 수출금액은 1,664.2천\$(7.14)로 작년 동기(1,650.5천\$) 대비 0.8% 증가

### ● 연도별 수출 실적

년도	수출물량 (kg)	수출금액		Kg당 수출가격 (\$)	전년대비	
		(천\$)	(원)		물량	금액
2016	47,885	3478.3	4,191,351,500	72.6		
2017	57,061	3308.9	3,533,905,200	58.0	19.2%	-4.9%
2018	65,245	3325.4	3,711,146,400	51.0	14.3%	0.5%
2019	51,616	2910.0	3,422,160,000	56.4	-26.4%	-8.4%
2020	48,882	3098.2	3,423,511,000	63.4	-5.6%	6.1%
2021	38,764	3016.8	3,586,975,200	77.8	-26.1%	-2.7%

- ‘19년 홍콩사태(홍콩송환법 반대 시위)

- ‘20년 이후 코로나로 인한 외식소비 감소 등으로 수출 물량 감소

- 높은 한우 가격에 따른 홍콩 오퍼 지속적 감소

### ● 한우고기 수출물량 확대 계획 수립

- 질병문제 :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 계획 수립(농림축산식품부)

- 단계별 한우고기 수출가능국 확대 계획 수립(농림축산식품부)

구분	국가	내용
수출 가능국	홍콩·마카오	· 화우와의 경쟁 우위 확보(품질, 가격 등)
	캄보디아	· 중국의 우회 수출국으로 수출시장 개척
	UAE·말레이시아	· 할랄인증 도축장, 수출국 현지실사 지원
수출검역협상추진중	태국	·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 필요 · 성장촉진제(보바인소마토트로핀) 사용 금지
	필리핀	·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 필요
	베트남	·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 필요
	싱가포르	·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 필요

7.21(목)

### 제 3차 이사회

- 의결 사항
  1. 조직 활성화 방안(위탁수수료 처리 방안)  
⇒ 원안의결
  2. 명절 도축비 지원 암소감축사업 위탁수수료 지급 방안 ⇒ 집회 지원비용으로 사용
  3. 2022 한우인 전국대회 추진계획(안)  
⇒ 원안의결 (10월 7일, 충북 괴산군 괴산공설운동장)
  4. 수입 소고기 무관세 규탄 및 사료값 지원 대책 촉구 한우인 총 결기대회  
⇒ 원안의결 (축산인 총결기대회 추진, 일시는 비상대책위원회 통해 결정 후 안내)
- 보고 사항
  1. 한우산업 동향
  2. 한우산업 정책 활동
  3. 협회 사업 추진 현황(협회 전용사료, 조사료 쿼터, 유통사업)
  4. 한우자조금 사업 추진 현황
  5. 한우정책연구소 연구 활동
  6. 한우마당 발행 등 홍보 활동
  7. 회원 및 회비납부현황, 전농가 회원화 현황
  8. 추석 성수기 한우암소 도축수수료 지원
- 기타 사항
  1. 소 결핵병, 브루셀라 검사 기준 개정(안)  
※ 개정검토안 :  
(결핵) 6개월령 이상 소, 가축시장 및 농가 간 거래되는 6개월 이상의 소(도축장 출하 소 제외)  
(브루셀라) 6개월령 이상 암소, 가축시장 및 농가 간 거래소, 도축장 출하소(거세우 제외)  
\* 금년 개정, 2023년 시행 예정

7.25(월)

###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간담회

- 농협 본관 중회의실(2F)
- 참석 : 농협 및 한우협회 임원 등
  - 농협(8) : 안병우 축산경제대표, 상무(2), 축발협의회 회장(의성축협 이상문 조합장), 한우조합장협의회 임원(거창축협 최창열, 부여축협 정만교, 원주축협 신동훈, 순정축협 고창인)  
\* 사료사장, 축기부장, 지원부장 배석
  - 협회(6) : 김삼주 중앙회장, 부회장(한양수(전북 정읍), 이희대(경남 고성), 김문흠(충북 충주), 감사(임종선(경기 광주), 박완욱(경남 고성)  
\* 전무, 국장, 홍보팀장 등 배석
- 주요내용
  - 협회 임원 및 축협 조합장 상견례
  - 당면현안 공감대 형성, 농협-협회간 상생발전 협의 등



7.26(화)

### 축산생존권사수비상대책위원회 회장단 회의

- 비대위 : 축산생산자단체인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도종닭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경주마생산자단체 등 9개 단체로 구성
- 8월 11일(목) 13시 서울역 집회 추진 확정

### 협회 고문변호사 위촉

- 법무법인 선우 우양태 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 41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1기)
  - 주요 고문변호 이력  
NH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전력공사, 강서구청, 관악구청, 광명시청 등 공적기관 및 삼성화재 해상보험,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대검찰청 양성평등 위원 등



7.28(목)

### 소 렘피스킨병 국내유입 대비관련 가축방역심의회(영상)

### 2022년 제 3차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 주요내용
  - 2022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안)
  - 2022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 추가 승인 보고
  - 2022년 한우자조금 조성 및 운용실적
  - 2022년 한우자조금 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전국한우협회 대한한우사료

- 한우 사료 품질과 가격의 표준점 제시
- 농가 주도 생산·원가공개·매달 가격 연동 시행

대한한우 고급육 사양관리 프로그램

비육 구분	어린송아지	육성기								비육전기								비육후기						비고	
급여사료명	대한한우	대한한우								대한한우								대한한우							
생후 월령	2~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출하월령 28개월 이상	
체중 (kg)	150	200	220	240	260	290	320	350	380	420	450	480	510	540	570	600	630	650	670	690	710	730	750	출하체중 750kg 이상	
일당증체량(kg)	0.8	0.8 - 1.0								1.0 - 1.2								0.6 - 0.8						0.84 kg	
	건초	자 유 채 식								2.0	2.0	1.0													
	볏짚															1.0	1.0	1.0	2.0	2.0	1.5	1.5	1.5		1.0
배합사료 급여량		3.0	3.5	4.0	4.5	5.0	5.5	6.0	7.0	8.0	9.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9.5	9.0	9.0	8.5	8.0		

대한한우 번식우 사양 프로그램

사 육 구 분		번식우육성(반추위, 소화기관 완성기)							임신우															포유우	
월 령 (개월)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 경산우												포유중
체 중 (kg)		130 ~150	150 ~170	170 ~190	190 ~210	210 ~230	230 ~250	250 ~265	270 ~285	290 ~305	310 ~325	330 ~345	350 ~365	370 ~385	390 ~405	410 ~425	430 ~445	450 ~465	470 ~485	490 ~505	510 ~515	520 ~535			
일당증체량 (kg)		0.6 ~ 0.8							0.4 ~ 0.6																
1일사료 급여량 (kg)	구 분	번식용 증송아지							임신우															임신우	
	섭취 량	2 ~ 3 kg							3 ~ 4 kg															4 kg	
	배합 조사료	조사료는 자유채식							조사료는 자유채식															조사료는 자유채식	
	증감 요인	■ 겨울철(혹한기)과 환절기에는 10% 정도 증가시켜 줄 것							■ 겨울철(혹한기)과 환절기에 10%정도 증가시켜 줄 것 임신 7개월부터 10% 증가															■ 겨울철(혹한기)과 환절기에는 10% 정도 증가시켜 줄 것	

대한한우  
어린송아지사료  
2~6개월  
25kg

대한한우협회

대한한우 어린송아지  
적용범위 생후2개월~6개월

- 미아리산과 탄닌 함유에 의한 고창증과 설사 예방
- 천연물질에 의한 항병력 강화
- 반추미생물과 효모제 강화
- 식이섬유와 비타민/미네랄 강화에 의한 스트레스 완화
- 대용유함유에 의한 빠른 입몰이기

구분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에너지	20.0	2.5	20.0
조화분	칼슘	인	TDN
	10.0	0.9	70.0

고품질  
대한한우  
번식  
25kg

대한한우협회

대한한우 번식우  
적용범위 5개월~임신우

- 발정과 수태율 최적화를 위한 충분한 영양소 공급
- 골격과 내장의 발달을 촉진
- 번식전용 비타민/미네랄 설계
- 황토급여에 의한 미네랄 보충
- 성장을 위한 충분한 단백질 공급

구분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번식우	14.0	2.0	15.0
조화분	칼슘	인	TDN
	15.0	0.8	68.0

고품질  
대한한우  
육성  
25kg

대한한우협회

대한한우 육성기  
적용범위 생후7개월~14개월

- 성장을 위한 충분한 단백질 공급
- 골격과 내장의 발달을 촉진
- 적정에너지 공급
- 섬유소 공급에 의한 반추위와 소화기관 안정화
- 높은 수준의 비타민과 균형 있는 미네랄 공급

구분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육성기	15.0	2.5	20.0
조화분	칼슘	인	TDN
	15.0	0.7	70.0

고품질  
대한한우  
비육전기  
25kg

대한한우협회

대한한우 비육전기  
적용범위 생후15개월~22개월

- 반추위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
- 최대 성장을 위한 충분한 단백질 공급
- 비타민 A조절에 의한 고급육 향상, 육량과 육질등급 향상
- 간기능과 요석증 등 비육장애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영양소 균형
- 비육효과를 최대로 발현시키기 위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 필요

구분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비육전기	13.0	2.5	20.0
조화분	칼슘	인	TDN
	15.0	0.7	73.0

고품질  
대한한우  
비육후기  
25kg

대한한우협회

대한한우 비육후기  
적용범위 생후 23개월~28개월

- 근육내 지방 발달 극대화로 육질 향상
- 단백질과 에너지의 균형 있는 배합
- 간기능과 요석증 등 비육장애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영양소 균형
- 고급육 효과를 최대 발현시키기 위하여 TDN을 높여 줌
- 비타민 A조절에 의한 고급육 향상, 육량과 육질등급을 향상
- 과비방지

구분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비육후기	12.0	2.5	20.0
조화분	칼슘	인	TDN
	15.0	0.7	75.0

대한한우 사료의 원료구성

옥수수, 루핀후레이크, 대두박, 옥배아박, 채종박, 아자박, 팜박, 소맥피, 단백피, 비타민+미네랄혼합제, 황토, 미생물제, 당밀향+감미제, 번식개선펙제

사료가격 투명화 / 합리적 가격 / 생산비 절감

고품질 한우사료 ‘대한한우’

한우 생산비 중 농가소득을 좌우하는 사료비 비중이 50%이상!

사료가격 결정의 주체는 농민이 되어야 합니다

※ 매월 1일 환율 및 유가(곡물가) 변동 등에 따라 기준가격 변동

22년 8월

협회전용 사료 ‘대한한우’ 가격 안내

공장출고가 기준(운송비 등 추가비용 반영안된 가격임)



어린송아지  
15,6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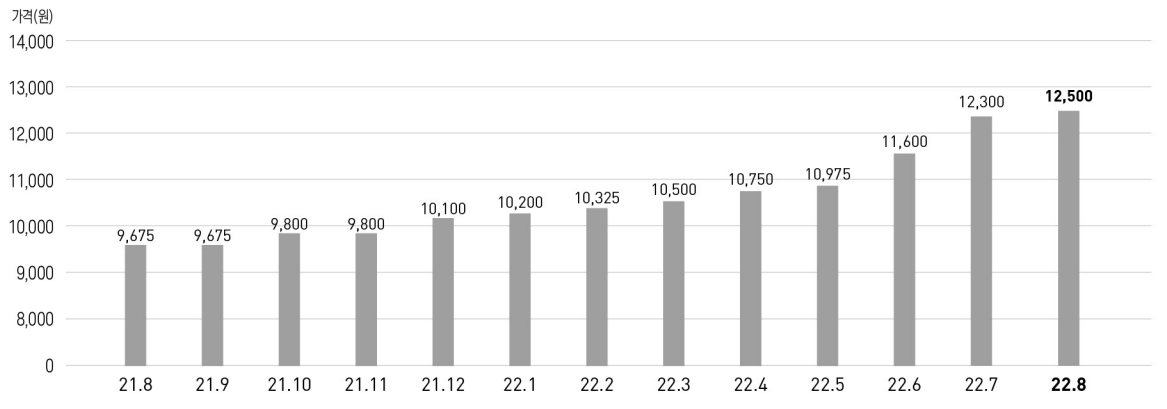
번식우  
12,350

육성  
12,500

비육전기  
12,700

비육후기  
12,950

대한한우 사료 가격 변동 추이 (육성우 기준)



협회전용사료 문의 ☎ 02-525-1053 (내선 208)



# 새로운 한우의 차별화 전략에 대해

한우는 국내에만 존재하는 우리 고유의 유전자원이다.

2000년을 전후해 실시된 시장 개방에도 불구하고 한우가 국내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유전자원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한우가 고유의 유전적 특성만을 보유한 품종이었고, 한반도에서 반만년 동안 농우로써 함께 농사를 지으며 동고동락하였던 정서적 영향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한우를 세계 최고의 육우로 발전시키기 위한 끊임 없는 개량과 사양기술의 발전이 더해지면서 이제는 일본의 와규, 미국의 블랙앵거스 등 유명 육우와 견주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에 다다랐다.

비육우 특유의 자질은 뛰어나 맛과 식감에 있어서는 유일무이한 경쟁력을 가졌지만, 곡물비육이라는 단일속성의 상품만을 가지고 있어서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에 맞는 차별화, 시장세분화 등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차별화는 소비자가 같은 제품이라도 제품이 가지는 속성으로 인해 다른 상품으로 인식해 소비하도록 하는 것으로 쇠고기라는 동일한 상품이 있지만, 육우, 젓소, 한우와 같이 품종에 따라 다르게 소비자가 인식하거나, 미국산, 호주산과 같이 원산지에 따라 다른 상품으로 인식해 소비하는 것과 같은 것을 이야기 한다.

시장세분화는 고객을 성향에 따라 그룹을 지어 특정 그룹의 소비자가 선호하는 상품을 전략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이야기 한다.

환경보호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화학농자재를 일절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축산물을 판매한다거나,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저가의 상품을 제안하는 식의 행위를 말한다.

지금까지 한우는 한우라는 고유 유전자원, 곡물비육을 통한 마블링스코어가 높은 한우고기라는 두가지 속성으로 시장을 공략하여왔다면, 국민소득 3만불을 돌파한 현시점에서 다른 속성의 한우고기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나가는 적극성을 보여야 할 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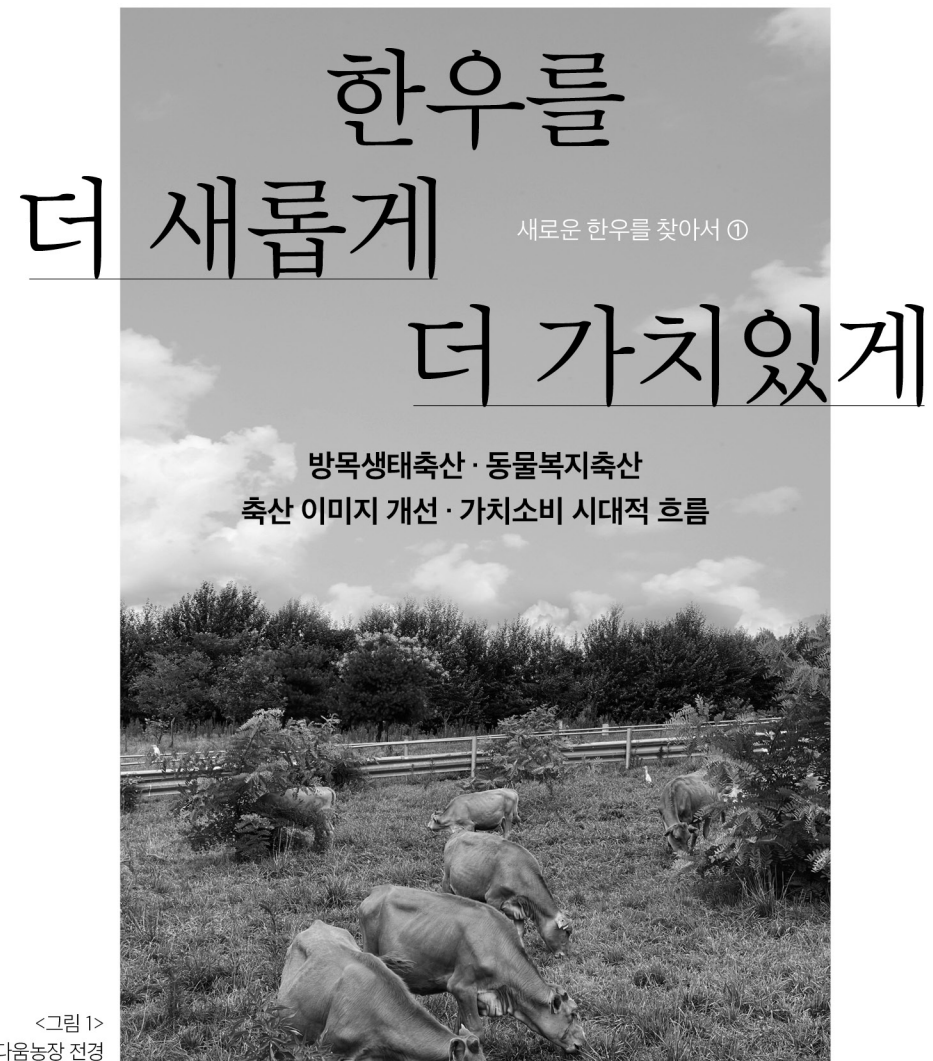
정부가 물가안정을 빌미로 수입쇠고기에 대한 관세를 일시적으로 철폐하였고, 주요 쇠고기 수출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2020년대 중후반 수입쇠고기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면서 가격 때문에 국내 시장에 들어오지 못했던 다양한 속성의 쇠고기가 국내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호주산, 미국산 와규는 조금씩 국내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으며 CPTPP추진으로 일본산 와규까지 국내 시장 진입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상품전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소를 방목해 사육한다거나, 가축에게 고통을 덜 줘야 한다는 인식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인구가 폭 발적으로 늘고 있는 요즘 우리 한우업계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대목이다.

가축에게 스트레스를 덜 주고, 좋은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만큼 한우업계 도 소비자들의 관심과 요구에 귀를 기울여 새로운 한우시장 창출에 나서야 할 때다.



<그림 1>  
정읍 다움농장 전경

실제로 최근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과 방목생태 축산농장 등에 관심을 기울이는 농가들이 하나둘 등장 하고 있고, 방목하여 생산된 축산물, 동물의 복지에 더 신경을 쓴 축산물에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소비자가 늘어나며 점차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모든 농가가 방목하고, 동물복지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축산농장도 시장에서 해당 행위에 대해 보상이 주어지는 만큼 즉 시장의 크기만큼 방목 목장도 동물복지인증 농장도 늘어날 것이기 에 해당 시장을 발견한 농가라면 도전해 볼 만하다는 것이다.

## 방목생태축산

호주, 뉴질랜드, 미국, 브라질 등 국토는 넓고 인구밀도가 낮은 신대륙 국가에서는 소 사육은 주로 방목을 통해 이뤄졌다.

몽골, 중동, 유럽 등의 국가의 경우도 유목과 같 은 방식으로 풀 자원을 따라 가축을 이동시키 며 사육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소는 방목해 사육된 역사가 거의 없다.

집에 소 한두 마리가 들어갈 수 있는 외양간에 들어 사육하였고, 청초가 나는 계절 낮에는 풀 이 많은 곳에 말뚝을 박고 소를 매어 놓고 풀을 뜯도록 하는 정도가 방목 비슷한 행위였다.

한우는 농우로 주로 이용되었고 매우 귀하였기 때문에 방목하여 사육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고, 소 증식, 소의 연구를 위한 국가 목장 정도에서나 제약적으로 이뤄져 왔다.

한우를 가두어 키우는 방식은 농기계의 보급으 로 소가 농우로서 가치를 상실한 이후에도 계 속되었으며, 표준적 사육방식이라 하겠다.

하지만 주요 쇠고기 수출국에서는 소를 방목하 여 사육한다거나, 대부분 사육 기간을 청초나 건초 등으로 비육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방 목 사육한 쇠고기에 대한 높은 호감이 소비자 들 사이에서 생겨나기 시작한다.

사실 미국 등 쇠고기를 많이 소비하는 국가에 서는 방목해 사육한 쇠고기가 질기고 특유의 잡내 때문에 전 연령 곡물 비육을 하거나 후기 곡물 비육을 한 쇠고기가 인기를 끌고 있고, 쇠 고기보다는 송아지고기를 더 선호하는 식문화 가 있다. 방목해 사육한 쇠고기에 대한 우리 소 비자들의 로망과 달리 평가는 박하다는 것을

이야기 한다.

우리 한우의 경우 소의 생리적, 유전적 특성을 고려한 사료를 급여함으로써 최고의 맛을 끌어 내는 반면, 방목한 소의 경우는 풀과 같은 거친 사료만을 먹고 조절되지 않는 날씨, 외부 여러 위협 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활동 등을 해야 해서 곡물 비육 쇠고기보다 맛 에서는 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호주가 자국 쇠고기를 ‘청정우’라고 마 케팅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에게 일반 적이지 않은 방목생태 목장에서 생산된 축산물 은 전통적인 축산물과 다른 가치로 판단 받게 된다.

## 방목생태 축산농장 지정

방목생태 축산농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축 산업 등 유희 산지, 농지, 기타토지를 활용하여 초지를 조성하거나 방목으로 가축을 사육해야 한다. 초지 또는 임간 방목지의 면적은 1ha 이 상 보유하여야 생태 방목 축산농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방목생태 축산농장이라 해서 초식 가축인 한우 나 젖소, 염소 등만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한 육우, 젖소, 말, 닭, 오리, 염소, 면양, 사슴, 토끼, 돼지 등 축종 제한은 없다.

정부의 지원사업은 초지 조성에 맞춰져 있다. 초지 관리에 드는 인건비, 자재대, 측량수수료, 초지·사료작물 재배부지 정비비, 초지용 울타 리 설치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방목생태 축산농장은 친환경이나 HACCP와 같은 인증프로그램이 아니다. 자격 여건이 갖

새로운 한우를 찾아서 ①

특집

취진 농가를 지정하는 사업이며, 한우의 경우 방목생태 축산농장은 자연스럽게 동물복지농장 인증 사업을 생각하게 되는데, 방목을 하는 농장의 사육여건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에 핵심적 요소인 단위면적당 사육면적 기준에 있어 소에게 더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방목생태축산농장 지정 현황

소재지		목장명	축종 및 사육규모	시설면적	초지면적(㎡)
계		48개소			11,008,259
울산 (1)	울주군	신우목장	한우 120두 산양 200두 면양 12두	120,000㎡	190,000
경기 (1)	양평군	서울우유 생명공학연구소	젖소 240두 한우 4두	9,089㎡	327,061
강원 (14)	평창군	농업회사법인 대관령양떼목장 주식회사	면양 270두	923.6㎡	202,037
	평창군	산너미농장	흑염소 500두	991.7㎡	300,000
	춘천시	해피초원목장	한우(번식)20두 면양45두 기타(토끼45두 등)	826.4㎡	240,000
	평창군	평창보배목장	젖소 190두 닭 200두 면양 40두 말 3두	6,611.56㎡	600,000
	평창군	하늘마루염소목장	흑염소 500두	701㎡	100,000
	평창군	삿갓봉목장	한우 170두 흑염소 40두	991.7㎡	200,000
	평창군	청정도래덕목장	한우 143두	1,444㎡	248,158
	평창군	설목장	젖소 150두		914,575
	평창군	대관령 알프스 양떼목장	면양 105두	347㎡	270,000
	정선군	황우목장	한우 72두 면양 100두 닭 20두 오리 10두 말 7두	1,074.37㎡	5,000
	태백시	삼수령농장	한우 80두	744㎡	277,685
	태백시	몽토랑농장	염소 150 유산양 100	1,837㎡	180,983
	태백시	꿈벌사슴목장	사슴 200두	1,313㎡	274,328
	태백시	연화목장	한우 36두	1,784㎡	112,148
충북 (6)	괴산군	하늘목장	유산양 300두	1144.53㎡	86,701
	괴산군	풍산농원	흑염소 300두 사슴 50두	1,000㎡	165,000
	괴산군	알프스농장	한우 3두 젖소 137두	3,305㎡	99,000
	충주시	보니숲밤농장	토종닭 1,000두	246㎡	20,000
	제천시	원목장	한우 180두	6,611㎡	100,000
	영동군	해맑은농장	유산양 500두	3966.9㎡	958,677
충남 (3)	금산군	농업법인 산양마을 (구, 이담산양목장)	유산양 300두	1,600㎡	90,000

## 방목생태축산농장 지정 현황

현재 방목생태축산농장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48개 농장이 지정되었고 5개 농장인 지정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그중 한우농장은 18개소로 한우농가들이 방목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으로 보면 산지가 많은 강원지역이 지정 농장에 집중되어 있다.

소재지		목장명	축종 및 사육규모	시설면적	초지면적(㎡)
충남 (3)	부여군	성동목장	젖소 180두	4,511㎡	210,000
	서산시	대곡목장	한우 137두	1,888.82㎡	150,000
전북 (2)	진안군	농업회사법인 데미샘목장(㈜	젖소 100두	1,686.56㎡	264,000
	정읍시	다움농장	한우 250두	6,446㎡	49,500
전남 (4)	강진군	수암영농조합법인	흑염소 1,000두	1,355.35㎡	5,005
	구례군	초원목장	젖소 125두 면양 15두	1,092㎡	59,394
	완도군	백두목장	한우 120두	833㎡	110,000
	광양시	농업회사법인 이레목장(㈜	유산양 200두	1,183㎡	27,902
경북 (6)	김천시	추풍령산양목장	염소 1,000두		600,000
	칠곡군	광개토한우 (전, 칠곡양떼목장)	한우 5두 면양 80두 유산양 40두	2,400㎡	100,000
	성주군	배만농장	한우 28두	462.8㎡	128,926
	상주시	무지개목장	젖소 63두	1,020.87㎡	203,888
	안동군	농업회사법인 야호목장주식회사 (전, 박경숙농장)	입식 전	528㎡	470,286
	안동군	권용수농장	한우 40두	532.56㎡	10,977
경남 (9)	사천시	상아농장	염소 800두	2,235㎡	30,000
	사천시	흙사랑농장	한우 2두 돼지 27두 염소 20두	3,471㎡	67,000
	거창군	군암목장	한우 100두 염소 30두	1,883㎡	231,404
	고성군	천황산농장	사슴 400두 염소 20두	1,255㎡	267,314
	거창군	거창축협	한우 618두	11,003㎡	163,000
	고성군	종생농장	한우 7두 염소 100두	879㎡	200,000
	남해군	초원농장	한우 61두 면양 40두	1,700㎡	63,868
	남해군	남해양떼목장 양모리학교	면양 41두 산양 8두 토끼, 당나귀 등 기타	367.1㎡	33,288
	남해군	남해상상양떼목장 편백숲(주)	면양 200두 사슴 40두 앵무새 등 기타	980.5㎡	63,289
제주 (2)	서귀포시	수망리공동목장	한우 150두	1,188㎡	1,382,759
	서귀포시	현중배농장	한우 150두(흑우)	855.4㎡	155,106

자료 : 친환경축산협회





<그림 2> 한우 분야 1호 동물복지농장 인증을 받은 한우 해남 만희농장을 찾은 김영록 전남지사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은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동물의 본래 습성대로 키우는 등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다.

2010년~2011년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많은 가축이 살처분 당하는 등 지속 가능한 축산농장으로의 전환 요구가 거세던 당시 정부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동물도 생명이라는 윤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내 축산업을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키자는 의미에서 시작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사업은 2012년 산란계, 2013년 돼지, 2014년 육계, 2015년 한·육우, 젓소, 염소, 2016년 오리 등 현재 7개 축종에 대해 인증하고 있다.

## 가축에게 자유를



동물복지 축산농장의 인증의 기본요소는 5가지 결핍으로부터 자유를 보장하는데 있다.

배고픔과 갈증, 영양불량으로부터의 자유, 불안과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 정상적 행동을 표현할 자유, 통증·상해·질병으로부터의 자유, 불편함으로부터 자유 등 다섯가지다.

사육과정에서만 다섯 가지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동물 운송 시 운송차량의 구조와 설비 등을 갖춰 이동 중 동물의 상해 및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고, 도축이나 살처분 때에도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도살 단계로 넘어가도록 명문화하여,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최소화 하도록 하였다.

## 동물복지와 축산물 수출

동물복지 정책은 한-EU FTA 등 국제 협상에서도 주요한 쟁점이 되었다. EU로 우리 축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EU가 정하는 동물복지프로그램에 따라 생산된 축산물만 수출이 가능하다.

EU와 FTA 협상이 한창이던 당시 농림부 장관이었던 장태평은 유럽산 돼지고기가 많이 수입되어 양돈농가가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유럽에서 우리나라로 삼겹살을 많이 수출하면, 우리는 유럽서 비교적 고가에 거래되는 돼지 뒷다리살을 수출하면 된다는 주장을 펼치며 진화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돼지고기 뒷다리살을 포함한 어떤 부위도 유럽 땅을 밟지 못했다. 정작 당시 협정에는 유럽의 보편적 동물복지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은 우리 돼지고기는 아무리 가격 경쟁력이 있고, 품질경쟁력이 있다고 해도 수출은 불가했었고 지금도 그러한 현실은 상존한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운송·도축·살처분 등 12개 분야의 동물 복지 기준을 제정하였으며, 최신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동물복지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EU는 동물복지 5개년 행동계획('12~'15)을 수립하고 2012년부터 산란계 일반케이지 사육 금지 및 2013년부터 돼지의 스톨 사육을 금지하는 등 구체적인 동물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내 사육 단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2012년 산란계를 시작으로 양돈(2013년), 육계(2014), 젓소, 한육우, 염소(2015), 오리(2016)농장에 대해 인증을 하고 있다.





## 한우의 동물복지 인증 걸음마 단계

한우의 동물복지 인증은 현재 걸음마 단계다. 18개 농장이 참여 중인 방목과 달리 한우는 3개 농장만이 인증을 완료하였고, 2015년 한우와 함께 인증이 시작된 젖소의 경우 31농가가 인증을 받은 것과도 비교가 되는 부분이다.

한우와 젖소 모두 기본적인 사육면적은 관행 사육과 동일하나 최소 사육면적과 동일한 면적의 운동장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동일 면적에서 절반의 한우 밖에 사육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기본적으로 젖소가 한우보다 최소 사육면적이 더 넓고 그로 인해 운동장 면적도 더 넓어야 하지만 한우보다 젖소의 인증이 많은 이유는 동물복지인증을 마케팅에 활용하려는 유업체의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유업체의 필요에 의해서건, 낙농목장 주가 자체적인 유가공사업을 하던 동물복지 농장을 통해 차별화를 하려는 노력이 한우보다 젖소에서 10배 이상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 한육우 최소 사육면적

사육단계	깔짚 제공면적, m <sup>2</sup>	총 면적, m <sup>2</sup>
번식우	5	10
비육우	3.5	7
송아지	1.5	2.5

<표 3> 젖소 최소 사육면적

사육단계	깔짚 제공면적(m <sup>2</sup> )	총 면적(m <sup>2</sup> )
경산우	착유우	8
	건유우	6.5
미경산우		3
육성우		3
송아지		2

## 동물복지 농장 인증 현황

<표 4> 동물복지농장 인증수

구분	농장수
산란계	206호
육계	136
젖소	31
돼지	17
한우	3
오리	-
합계	343

현재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농장수는 393호로 그중 산란계 농장이 206호, 뒤를 이어 육계가 136호로 양계분야가 동물복지 농장 인증에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젖소가 31호, 돼지가 17호, 한우가 3호로 뒤를 잇고 있다.

동물복지인증을 통해 가장 차별화에 심혈을 기울이는 축종은 산란계라 할 수 있다. 농장단위에서 곧바로 상품화해 산물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농장주가 결심만 하면 생산과 유통에 있어 어려움이 비교적 적다는 장점이 있다.

산란계 다음으로 많은 농가가 참여하고 있는 육계도 계열업체들이 자사 닭고기의 차별화를 위해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농장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돼지는 한우와 함께 동물복지 인증에 가장 미온적인 축종이라 할 수 있다.

계열화되어 있는 산란계, 육계, 우유와 달리 생산과 유통이 분리되어 있는 한우와 돼지의 경우 누가 어떻게 유통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먼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시사점

2000년대 친환경인증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유기인증, 무항생제 인증프로그램을 통해 차별화를 시도하였던 많은 농가들이 있었다.

여러 제약 요소로 인해 유기축산물인증의 확대는 쉽지 않았으나 무항생제 인증의 경우 보편적 인증으로 자리 잡으며, 안전축산물로써 인식되게 하였다.

해당 프로그램이 도입된 지 20년이 넘어서면서 이제 무항생제 인증은 기초적인 인증프로그램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금은 학교급식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친환경인증은 기본적인 인증프로그램으로 요구될 정도로 보편화되어서 무항생제 인증을 통한 차별화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즉, 기본 중에 기본적인 인증프로그램이 되었다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축산업계는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외부의 압력에 시달리고 있어 이미지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며, 산지와 유희부지를 활용한 방목축산은 축산업의 이미지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

또한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지금 산업동물인 농장가축에게도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동물복지인증 또한 축산업의 이미지 개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개별 농장의 차별화뿐만 아니라 넓게는 축산업, 좁게는 한우산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임을 알리는 전초기지가 될 수 있는 만큼 한우업계에서 적극적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하는 부분이다.



# 방목한우에 도전한 40대 청년 농부의 7년차 귀농일기

1만5천평 방목지서 2백여마리 한우사육 방목생태축산 ‘실현’  
손영수 소다움 대표, HACCP 인증에 동물복지·생태축산까지 인증



비탈진 언덕길에 수십여 마리의 한우가 이곳저곳을 누비며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다.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의 모습도 아니고, 외국의 목장 풍경은 더더욱 아니다.

전라북도 정읍시 북면 칠북로의 한우 목장 전경이다.

7년 전 고향인 정읍에 내려와 전국에서 몇 안 되는 방목생태축산에 도전, 한우의 생산부터 출하, 가공, 판매까지 1인 다역을 소화하며 ‘새로운 한우 소비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손영수 소다움 대표의 남다른 한우 사육 스토리를 들어봤다.

## 7년전 귀농...한우와 인연 맺다

30대 후반 서울에서 건강 관련 사업을 하던 손영수 대표가 급작스럽게 귀농을 결정하게 된 건 순전히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다.

스무 마리 남짓 한우를 키우시던 어머니가 급작스럽게 담낭암 판정을 받았고, 어머니의 병간호를 위해 고향으로 내려오게 됐다. 한우사육은 고향에서 그가 생업을 위해 선택한 길이다.

평소 건강에 남다른 관심을 두고 있었던 손 대표는 한우를 키우되, 좀 더 건강하게 한우를 사육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에 골몰했고, 당시 축산업계 화두로 떠올랐던 생태 축산을 직접 실현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2015년 손 대표가 목장을 처음 시작했을 당시엔 운도 따랐다.

세월호를 운영했던 세모그룹이 수련원을 짓기 위해 확보해 두었던 정읍의 땅을 보상금 마련을 위해 급하게 내놓으면서 싼값에 매입할 수 있었다. 여기에 귀농 자금 일부와 융자 등을 합쳐 1만 5천 평 규모의 방목장까지 조성했다. 부족한 조사료를 위해 10만여 평의 조사료포를 함께 임대해 직접 재배한 풀을 먹여 키우는 자급자족 시스템까지 갖추게 됐다.

## 15~16개월령까지 방목... 윤환방목으로 한달간 돌아

소 사육에 전혀 문외한이었던 손 대표는 이곳저곳을 찾아 배움을 시작했다.

각종 서적과 인터넷 자료 등을 찾아 탐독했고, 현장 교육도 틈틈이 찾았다.

이 가운데 풀만 먹여 사육하는 전남 장흥 풀로

만목장의 조영현 대표로부터 많은 조언을 들었다. 초지조성에는 축산과학원 박사님들의 교육과 조력이 큰 도움이 됐다.

“처음엔 윤환방목이라던지 이런 개념도 전혀 없었어요. 조사료 포에 풀을 심고 재배만 열심히 하면 풀도, 한우도 저절로 자랄 줄로만 알았죠. 축산과학원 초지방목과 김은호 박사님과 최기준 박사님께서 초지조성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목장부지는 모두 3만4천여 평으로 손 대표는 이 중 1만5천 평을 방목장으로 조성했다.

목구는 총 7개인데, 한 목구 당 작게는 1400평에서 크게는 6천 평이 넘는 목구도 있다.

주 초종은 오차드와 톨 페스큐, 페레니얼, 켄터키 블루그래스를 비롯해 화이트클러버와 라이글라스 등을 다양하게 조성했다.

소다움 목장에선에선 15~16개월령의 육성우까지 방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목구당 3~4일씩을 방목하는데, 초지를 모두 도는데 약 한 달이 걸린다.

오전 7시 방목장으로 이동시킨 육성우들은 해가 질 무렵에나 우사로 들어온다.

아주 큰 비가 오지 않는 이상 날마다 이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임신우들의 경우 완전한 방목은 아니지만 육성우들이 채식하고 지나갔거나 깔고 앉았던 자리의 초지들을 재정비하는 ‘청소베기용’으로 한 번씩 방목장으로 이동시킨다.

비육기의 한우는 축사에서 그가 직접 배합한 조사료와 외국산 알팔파 등 양질의 풀사료를 양껏 채식하게 한다. 알팔파도 재배를 시도했지만, 아직은 성공하지 못해 외부 조달에 의존하고 있다.



## 사육부터 가공·판매·배송까지 직접 해결

건강한 한우를 키우자는 목표를 두고 의욕적으로 달려온 손영수 대표도 생각지 못한 문제에 부딪히게 됐다. 바로 판로 확보였다.

“차별화된 방식으로 한우를 키우면 소비자들은 물론이고 유통업체들 모두 인정해줄거라 생각했어요. 판매는 자연히 해결될 거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꿈이고 이상이었던 거죠.”

출하처를 찾기 위해 온·오프라인에 수도 없이 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기존의 한우로도 판매에 어려움이 없는데, 굳이 비싼 방목 한우를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큰 꿈을 가지고 한우를 시작한 그에게 닥친 가장 큰 시련이었다.

소의 출하 시기가 몇 달 앞으로 다가온 중에서도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하자, 결국 손 대표는 전 구간 풀만 먹여 키우는 방법을 포기하고 비육 후기엔 곡물을 먹여 키우는 것으로 전환했다.

한 마리 당 일일 15킬로 넘게 먹는 생산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결국 판로를 찾을 때까지 관행 사육방식을 병행하기로 한 것이다.

절망으로 지쳐갈 무렵 결국 유통에도 실마리를 찾게 됐다.

온라인 마켓인 ‘유기농방목마켓’에 입점하면서 숨통을 트이게 됐다. 현대백화점과 갤러리아백화점의 축산담당 바이어도 현장을 답사한 뒤 몇 차례 프로모션이 이뤄지기도 했다.

소다움한우의 방목한우들은 모두 손 대표가 가공장에서 직접 가공·판매한다.



한 달에 출하 두수가 다섯 마리 남짓인데 이를 별도로 가공해줄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울며 겨자 먹기로 그가 직접 가공에 뛰어들었고, 현재는 모든 발주물량을 직접 가공, 포장까지 해결하고 있다.

## HACCP·방목생태축산·동물복지까지... 32~33개월령에 출하

소다움의 목초 사육 한우는 유기농방목마켓에서 현재 100g 기준 등심 1만 6천 원에 판매 중이다. 일반한우보다 가격이 다소 높은 이유는 전 구간을 모두 직접 재배한 조사료와 일부 외 국산 알팔파 등을 혼합해 32~33개월까지 사육하면서 생산비는 관행 사육보다 더 많이 드는데 도체 중량이 일반 한우에 비해 약 100kg 적게 나가기 때문이다.

마진을 최소화해 가격을 책정해 판매하고 있는 손 대표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HACCP와 방목생태축산 인증까지 모두 받았다.

동물복지 역시 현상심사만 남아,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목초만을 먹여 키운 한우의 맛과 소비자 반응은 어떨까.

손 대표에 따르면 한우의 고유한 풍미가 더 깊고 진하다.

때문에 별도의 양념이나 소스는 추천하지 않는다고.

국거리 국물도 깔끔하다는 평들이 많다. 사골과 잡뼈도 뼈대가 크고 골이 짝 차 있다.

“전문 요리사님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맛이 압축되어 있다’라고요.”

영양성분에서도 기존의 관행 방식과는 사뭇 다른 결과가 나왔다.

필수 아미노산 계열이 많았고, 특히 오메가3와 6의 지방산 비율이 1.25대 5로 분석됐다.

이는 WHO의 권고기준 1:4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 보다 많은 농가들이 방목생태축산에 관심 갖길

손 대표는 건강한 한우사육뿐만 아니라 환경을 보호하는 데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포장 박스와 용기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친환경 박스와 트레이에 고기를 담고 냉매는 일체 사용하지 않는다. 냉매 대신 생수를 얼려 포장 박스에 고기를 담아 배송하고 있다.

방목지에선 최대한 경운을 덜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땅을 갈아엎을 때마다 땅속에 있는 탄소가 배출되는 경우가 있어서란다.

현재 출하 예정인 50여 두의 한우는 출하처를

미처 확보하지 못해 비육 후기 배합사료를 먹여 사육 중인 가운데 이 소들의 출하를 완료하면 전 구간을 ‘풀로만’ 사육하는 그래스페드 전용목장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저는 뭐든 ‘진짜’를 좋아하거든요. 방목장도 소들이 그곳에서 식생과 영양이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제대로 갖춰진 진짜 방목장 조성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귀농 7년 만에 한우업계에서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미래 그의 꿈은 무엇일까.

“한우의 6차산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체험 농장이 아니라

저희 방목농장을 공원처럼 꾸며

한가롭게 풀을 뜯어 먹고 있는 소들을 여

유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 그렇거든요.

방목장에 풀어진 한우만 봐도

전 그 자체로 힐링입니다.

보다 많은 한우농가들이 방목생태한우에

관심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 새로운 한우에 대한 유통업계의 생각은?



요즘 그동안 소비해오던 한우의 부위, 조리법을 벗어나 새로운 형태, 부위의 한우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기존의 부위를 색다른 방식으로 정형해 인기를 끌거나 전혀 다른 방식의 조리법이 각광 받는가 하면 티본스테이크, 토마호크 한우, 한우생고기 같은 새로운 정형, 새로운 조리 방법 또한 인기를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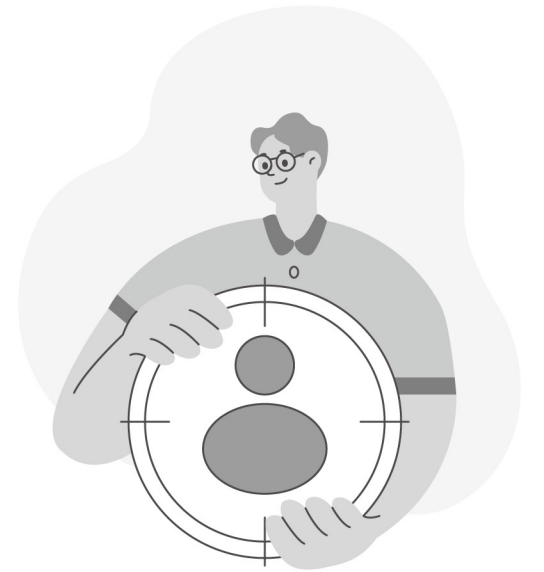
최근에는 유전자원을 활용한 칩한우, 흑한우 등을 상업화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고, 목초 비육 한우, 건조숙성 한우, 생태방목 한우, 동물복지 한우 등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대응한 한우도 등장하고 있다.

이에 축산바이어를 대상으로 새로운 한우에 대한 상품화 사례, 새로운 속성의 한우고기에 대한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

주요 유통업체들은 현재 1+등급 중심 한우고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고, 새로운 속성의 한우에 대해 유통채널별로 온도차이가 느껴졌다. 백화점의 경우는 새로운 속성의 한우를 상품화하는데 집중하고 있으나, 대형마트의 경우는 관심도가 낮았으며, 명절 등 특별한 시기에 기획상품으로 취급한 경험이었다.

향후 새로운 속성의 한우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가격과 공급 안정성 측면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새로운 속성의 한우가 고객들의 니즈로 인해 조금씩 성장할 것이라는 답변이 우세하였다.

다음은 조사 전문이다.



## 최근 귀하의 소속회사에서 주로 취급하는 한우는 어떤 상품인가?

<b>HYUNDAI</b> 현대그린푸드	백화점	현	현대그린푸드	이병욱 바이어
<b>GS리테일</b>	슈퍼마켓	지	GS리테일	이상규 바이어
<b>emart</b>	대형마트	이	이마트	심창우 바이어
<b>Homeplus</b>	대형마트	홈	홈플러스	안선욱 바이어
<b>엠패스트</b>	슈퍼마켓	현	엠패스트	염성복 바이어
<b>MEGA MART</b>	슈퍼마켓	메	메가마트	서진혁 바이어
<b>배달의민족</b>	온라인커머스	배	우아한형제들(배민)	이우용 바이어
<b>coupang</b> Color Your Days	온라인몰	쿠팡	쿠팡	-

**현** 당사는 1등급 이상의 암소한우에 주력하고 있고, 현대 지정농장인 서산 화식한우 및 인증된 전국 지역 브랜드 한우에 대한 순환 판매를 하고 있다.

**지** 당사에서 운영하는 한우브랜드 ‘우월한우’는 1+등급 이상 원료육을 기준으로 가장 맛있는 기간을 위한 철저한 도축일 관리를 하고 있다. 최근 당사 ‘모바일 사전예약 판매’를 통해 ‘한우새우살’, ‘한우 3CM등심스테이크’, ‘한우T본스테이크’, ‘한우알꼬리구이’ 등 평상시 판매하기 어렵지만,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찾는 ‘구이용 별미’ 상품을 확대하였고 근거리 오프라인 플랫폼의 특성상 고객님의 일상식으로 주로 사용하는 국거리(양지, 사태, 목심)의 매출이 높다.

**이** 일반한우/브랜드한우 전 부위를 취급하고 있고 주요 판매등급은 1등급과 1+등급이다. 브랜드한우는 횡성축협한우/경주천년한우 등 지역 축협 브랜드 중심으로 운영 하고 있다.

**홍** 마리분 취급으로 전부위를 취급, 판매하고 있다.

**엠** 저희는 2등급 한우 제품을 주로 판매하고 있다.

**배** 1+등급의 등심, 채끝과 같은 구이용 부위, 국거리용의 한우고기를 주로 취급하고 있다.

**쿠** 1등급, 1+등급의 등심, 안심, 채끝 등 구이나 스테이크 부위와 국거리 불고기 등의 정육 부위를 주로 판매하고 있다.

**메** 1등급 이상 한우 전부위 취급하고 있으며, 우골류, 내장류 등도 취급하고 있다.

## 한우고기에 대한 소비자 수요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6년 전 한우시장(귀사 중심), 최근(2019 ~2022)과 비교해 주된 변화가 있는가?

**현** 등급제도의 개선 및 높은 등급의 출하량 증가로 고객수요의 양극화가 가격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대중매체(먹방, 예능, 맛집) 및 유튜브, 인스타, 다양한 체험과 부위 소개로 소비자들이 한우고기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고 있으나 유통업체도 외식업체도 전체적으로 고객의 니즈는 못따라간다고 생각된다. 현시점 이후 다양한 구이문화, 숙성고기, 양념(일본식-야끼니꾸, 마리네이드)고기 선호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 당사는 현재 한우를 포함한 축산 전산품을 ‘포장상품’으로 전환하였다. 초기 대면판매에 익숙한 소비자의 특성으로 고객수가 감소하였으나, 위생적인 시설(HCCAP)에서 축산 전문가가 작업한 고품질의 상품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소비자들에게 ‘포장상품’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만족도를 향상시켜 고객이 증가하는 추세다. 소비자의 수요를 용도별로 보았을 때 ‘구이, 스테이크’ 수요는 크게 증가하나, 불고기를 포함한 잡채, 카레, 다짐육 등 가정에서 조리가 필요한 용도에 대한 수요는 지속 감소하는 추세다. 아마도 가정 내 간편식 소비 증가가 원인으로 보인다.

**현** 당사의 경우 수입육은 성장하고, 한우 볼륨 하락세였고, 한우의 경우도 국거리, 불고기 위주 정육 판매가 중심이었다. 최근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해외여행이 제한되고



내식이 증가하면서 한우 매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구이용 부위(등심, 안심, 채끝, 특수부위) 매출 급상승하고 있으며, 최근 판매 트렌드는 혼합 상품(갈비살 모듬, 특수부위 모듬) 호조세다.

**홍** 농협과 제휴를 통해 안심한우를 홍보하고 판매 중이며, 2022년 3월 1일 창립행사를 기점으로 대대적인 한우 투자를 진행 중이다.

**엠** 최근 소비심리가 가격적인 부담을 줄이면서 찾을 수 있는 먹거리에 맞춰져 있다. 그러면서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은 한우를 찾는 객수가 증가했다. 지역적 소비 수준은 다르지만 가격대가 높은 1등급 이상에 상품에 비해 2등급에 한우국거리, 불고기, 구이류 구매가 부담스럽지 않고 소비할 수 있는 한우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증가했다. 2등급 한우에 가격과 품질이 좋다는 고객 반응과 현장에서 판매하는 담당자는 가격대비 품질은 높다는 평가다.

**배** 한우를 판매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당사의 경우 아직 기존과의 변화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다만, 현재 당사에서 운영하는 커머스 2개를 놓고 보자면

(B마트, 쇼핑라이브) 커머스의 유형별로 한우에 대한 고객 수요가 명확하게 나뉘는 것 같다. 어느 정도의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도 빠른 배송을 원하는 쿠팡커머스의 경우 저단가의 상품보다는 맛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고단가(1+이상 등)의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다. 반면 일정 배송에 대해 기다림을 수용하는 라이브 커머스의 경우 합리적인 가격에 대한 수요, 반응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당사에서는 커머스별로 한우 카테고리에 대한 상품군을 다르게 가져가고 있으며 새로운 속성의 한우, 특히 고품질의 한우의 경우 B마트를 타겟으로 준비하고 있다.

**쿠** 당사는 한우를 취급한지 2~3년밖에 되지 않아 큰 변화는 없으나, 다양한 인터넷 쇼핑몰과 함께 부위명 기준이 유연화되며 더욱 다양한 상품명과 부위명으로 고객의 Needs를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 토마호크, 터프스테이크, 깍둑등심, 큐브스테이크 등

**메** 기존 국거리/불고기 저가 부위에 대한 수요가 많았으나 최근 경제발전에 따른 소비자의 구매력 향상으로 고급 구이류 고객 수요가 늘어나면서 당사의 경우 전 부위 판매가 활성화되었다.





최근 흑한우, 칙한우, 건조숙성한우, 동물복지한우, 그래스패드, 목초비육한우 등 새로운 속성의 한우가 등장하고 있다. 귀하의 소속사에서 이러한 새로운 속성의 한우를 기획해 상품화한 사례가 있는지, 만약 있다면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떤지?

**현** 당사는 다양한 고객에게 제안할 수 있는 특별함, 차별화에 강점이 있는 축산물에 대해서 많은 도전을 하고 있고, 고객에게 여러 제안을 하고 있다. 새로운 속성의 한우는 어떻게 광고하고, 표현하느냐(동영상, 지류전

단, 쿠폰, 한정수량)에 따라서 반응은 틀리나, 대체적으로 희소성에 대한 만족과, 특별함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당사에는 고객 소비가 증가될 것으로 생각한다.

**지** '22년 임인년을 맞이하여 호랑이의 무늬를 담은 '호반우(쥬소)'를 활용한 명절선물세트를 기획하여 운영하였으며, 끓인 여물을 먹여 키운 '화식한우'상품을 온/오프라인에서 운영하였으나 소비자들에게 맛과 품질 그리고 가격면에서 고객들에게 어필하는데 부족함이 있었다.

**이** 특별하게 상품화 한 사례 없고, 선물세트에 일부 흑한우, 화식한우 등의 상품을 접목한 적이 있다. 선물세트 고객 반응은 우수하고 가장 먼저 품절된바 있다.

**배** 저희의 경우 커머스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한우를 본격적으로 판매한지 이제 1년이 되었기에 아직 새로운 속성의 한우를 상품화하거나 판매한 경험이 없다. 현재는 워터에이징 등의 한우의 속성이 아닌 한우 상품에 대한 품질을 높이기 위한 보관, 포장 등에 집중하여 상품을 기획하고 있다.

**쿠** 당사는 원활하게 지속 공급이 가능한 한우 중심으로 제품을 구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특성화된 한우는 취급하고 있지 않지만 대신, 횡성한우, 녹색한우, 합천황토한우 등 유명 산지와 설로인, 우미학, 본앤브레드 등 프리미엄 외식 브랜드 한우는 확대해 가고 있다.

**메** ESG 경영 트렌드 확대와 함께 무항생제 제품에 대한 요구 증가하면서 무항생제 한우를 산소포장 패키지화하여 점포별 무항생제 Zone 운영 중에 있다.

## 새로운 속성의 한우를 최근 준비하거나 기획하고 있는지?

**현** 사육농가 중 명인으로 지정 받은 농가 그리고 환경 친화적 방목목장 등 이런 속성의 차별화(사료, 사육, 인증, 환경)가 가능한 상품 중심으로 꾸준히 준비하고 있다.

**지** 전국 각지의 농가들과 소통하면서 다방면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 현재 무항생제 한우 도입 준비 중에 있다.

**흙** 새로운건 아니지만 '메가푸드 마켓' 점포에서 '1++ NO.9 암소', '1+무항생제 한우' 취급 중이다.

**배** 이번에 검토되고 있는 저탄소 인증부터 위에 질문에 언급된 다양한 속성의 한우를 후보로 놓고 한우 카테고리의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쿠** 에이징과 워터에이징 등을 통해 더욱 부드럽고 맛있는 숙성한우와 갓 도축한 원료로 생산한 육회 등을 차별화된 상품으로 준비하고 있다.

**메** 흑한우, 칙한우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제한된 공급으로 가격이 높아 현재로서는 경쟁력이 일반한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 다양성 측면에서 새로운 속성의 한우고기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는가?

**현** 과일시장이 제철과일에서 새로운 품종(예, 샤인머스켓)과 먹는 문화의 변화(혼합쥬스에서 생과일쥬스)의 변화가 있듯이, 축산시장도 고기를 먹는다는 문화가 어떤 고기를 먹는가? 어떤 숙성고기를 먹는가? 어떤 식당에서 먹는가?로 세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우인증점에 대한 차별화도 필요하다. 유행에 휩쓸리기 보다는 주관적 소비패턴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며, 새로운 속성의 한우고기 시장의 확대가 점진적으로 증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지** 소비자들의 다양성이 어느 때 보다 넓어진 지금 새로운 속성의 한우고기 시장의 전망은 밝을 것으로 전망하나, KBF(Key buying factor)인 맛, 품질, 가격에 크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속성의 한우고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새로운 속성의 한우가 성공하려면 생산과 유통이 협업하는 모델로 장기 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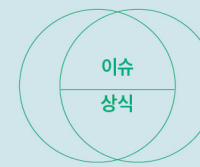
젝트가 돼야 한다. 지자체 / 농림부 등의 지원을 받아 새로운 시도를 해도 결국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동상이몽이 되는 경우가 많다. 가장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미경산 암소 한우라 생각한다.

**엠** 소비자는 새로운 상품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원하고 있어 기능성 속성의 한우 등 무항생제와 같은 상품들을 제공한다면 안전하고 다양한 한우에 먹거리 시장이 넓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배** 한우의 자급률이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지금, 소비자에게 다양한 새로운 속성의 한우를 선보여 고객에게 한우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것은 필수라 생각한다. 다만, 단순히 새로운 것이 아닌 고객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상품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고 이를 위해서 한우협회에서 많은 홍보와 새로운 속성 한우에 대한 품질 관리 등을 공신력있게 관리해 준다면 더욱 고객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쿠** 고객은 최근 가격, 맛, 품질에 더해 용도, 환경까지 고려해 상품을 선택하는 등 더욱 다양한 Needs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고객의 다양한 Needs 충족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시장 가격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면 빠른 정착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우 등급을 세분화하고 마블스코어까지 넣는 복잡한 등급 체계는 정확한 등급을 표기하고 균일한 품질과 마블링의 한우를 구매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반면, 가격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고객도 많은 만큼 새로운 속성의 한우는 고객을 향한 Customized된 상품으로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메** 소비자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속성의 한우고기시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관 및 정부차원의 홍보와 브랜드화가 이루어져서 수요가 늘어나야 생산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 공급이 증가해야 실제 유통되는 대중적인 상품으로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녹색분류체계

기업의 활동 중 어떤 것이 '친환경'이고 또 어떤 것이 '반환경'이며, '그린워싱'인지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이를 정확히 구분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필요한데 이 기준을 '녹색분류체계'라 한다.

지난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 발표됐다.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에 따르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유럽연합(EU)이 발표한 그린 택소노미의 한국판"이다.

이 지침에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 가능한 보전, 자원순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등 6대 목표가 설정되어 있으며, 각 목표는 환경목표에 기여할 것,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을 것,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그린워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침이 마련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GREEN WASHING

## 그린워싱

요즘 친환경, ESG 경영 등이 화두가 되면서 너도나도 친환경 기업임을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그 기업이 정말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지,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다. 기업 내부의 폐쇄성을 활용해 친환경이지 않지만 '그린으로 포장한 기업'이 있고 이러한 행위를 그린워싱이라 한다.

그린워싱은 녹색(green)과 세탁(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비즈니스 전체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재활용품 구매와 같은 작은 단위의 환경친화적 행동을 과장하거나 집중홍보해 친환경 이미지를 갖는 것을 말한다.



박사골농장  
김삼기 대표

글·사진 박현욱 기자  
(농축유통신문)

## 한우농장 얼리어답터! 축산의 미래를 그리다

전북 임실의 박사골농장. 건강한 소들이 운동장을 한 바퀴 휘돌며 건강한 덩치를 뽐낸다. 때깔도 좋다. 황토색 빛깔의 윤기가 흐르는 모습에서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고 삼삼오오 모여 휴식을 취하는 자태에서 여유마저 느껴질 정도다. 사람에 대한 경계는 풀지 오래. 외부 인력이 농장에 들어오는 일이 거의 없어서다. 배합사료와 TMR 사료는 첨단 기계가 제때 주기적으로 급이하고 농장주는 한우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피며 일대일 한우 관리에만 매진한다. 흡사 한우의 건강을 챙기는 전문 트레이너처럼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들의 영양을 체크해 실시간으로 소들의 사료량을 조절한다. 박사골농장은 김삼기 대표가 인력을 최소화하도록 디자인한 첨단 농장이다. 일명 ‘소박사’라 불리는 그를 한우마당이 찾았다.

\*얼리어답터

신제품을 남보다 빨리  
구입해 사용하는 사람을  
뜻하는 신조어

김삼기 박사골농장 대표.





### TMR 로봇 도입 맞춤형 데이터로 관리 250두 규모 농장 나 홀로 사육도 가능

암소 한 마리가 천천히 자신의 순서를 기다린다. 마치 줄을 선 것처럼 앞 소가 사료 먹기를 마치자 제 차례 인양 사료급이 틀 안으로 들어선다. 첨단 센서가 해당 소를 감지하고 김 대표가 데이터화한 사료량이 분출된다. 일대일 맞춤형 사료 급이 시스템이다. 해당 소는 사료를 더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다. 하루에 급이할 수 있는 총량에 맞게 분출되며 소 각자의 특성에 맞게 하루 3~5번 정도 나눠먹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돼 있다.

“사람이 식단을 조절하는 것처럼 소 성향에 맞도록 데이터화하고 사료량을 조절할 수 있어요. 비육 전기 암소들은 스스로 사료 급이 틀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센서가 해당 소의 특별 코드를 감지하죠. 가령 하루에 총 2.5kg의 배합사료를 다섯번에 나눠서 먹는다고 프로그램하면 500g씩 급이하는 것이지요. 일대일 식단 관리가 되다보니 소들이 건강하고 활기가 넘쳐요.”

배합사료뿐만 아니라 TMR사료도 전 자동이다. 공장 한 편에서 TMR을 제조하고 나면 TMR 급이 로봇이 자신의 몸 안에 TMR을 저장하고, 스스로 축사를 돌아다니며 소들에게 배급하는 식이다. TMR 로봇에 데이터를 입력하면 TMR양도 조절이 가능하며 장애물을 피하는 센서도 있어 사람의 노동력 또한 절감된다.

“250두를 혼자 키울 수 있을 정도로 자동화한 셈인데요. 인력을 쓰지 않아 생산비도 절감되고 무엇보다 정확하게 사료량을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장의 모든 시스템을 데이터화 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지요.”

### "CCTV만 30대" 첨단 농장 인프라 구축 원격 관리·무인 사료급이로 생산비 '뚝'

김삼기 대표가 축산업계 얼리어답터(Early-adopter, 신제품을 남보다 빨리 구입해 사용해 보는 사람)라 불리는 이유는 축사를 전 자동화했기 때문이다. 사료급이까지 로봇을 도입한 사례는 전국에서도 손에 꼽힌다. 한때 “축사에는 농장주의 발자국 소리가 있어야 한다”는 신념 때문에 축사 전 자동화를 고민했던 김 대표는 지난해 대대적인 기계 도입으로 자동화 시스템을 완성했다.

박사골농장에 있는 CCTV만 해도 30여 대가 넘는다. 김 대표가 자리를 비울 때도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다보니 지방에 출장이나 여행 시에도 수시로 농장 관리가 가능하다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또

한 자동화된 농장으로 오히려 소들에게 세심한 정성을 쏟을 수 있다는 게 그의 귀띔.

“오히려 기계를 도입하게 되면서 농장 관리가 수월해졌어요. 사실 배합사료나 TMR 사료를 급이하는 것 자체가 노동력이 소요되잖아요. 그 시간을 단축하게 됐고, 농장에 상주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한우 일대일 케어가 가능하게 됐고요.”

- 1 사료급이 틀에 들어가는 한우. 이곳에서 자동으로 급이되는 사료를 적당량 섭취한다.
- 2 사료가 공급되는 파이프라인(좌)과 자동 사료 급이 내부 모습.
- 3 TMR 로봇(우측)이 사료를 공급받는 모습.





인공수정부터 모든 걸 직접 관리하는 김 대표는 ‘소박사’로도 유명하다. 우량 소들을 배출한다는 입소문과 명성이 자자한 탓에 한우를 키우고자 하는 청년들도 김 대표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한다. 김 대표는 청년들에게만큼은 송아지를 보급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청년들이 한우산업의 미래만큼 최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나누기 위해 노력한다”는 그는 한우 농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구축이 우선 한우에 대한 관심·섬세한 케어가 비결

물론 첨단 장비를 구축하는 등 대대적인 자본을 투자한다고 해서 우량 소들을 키워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로봇이나 장비는 보조적인 수단일 뿐 축산농민의 세심함이 농장의 성패

를 결정한다는 게 김 대표의 조언. 가량 엄청난 성능의 하드웨어가 구축됐다고 해서 그에 걸맞은 소프트웨어를 갖추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는 얘기다.

“많은 사람들이 장비만 갖추면 일반인들도 쉽게 한우를 키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소의 습성에 대해 알지 못하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값비싼 하드웨어 운용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소프트웨어는 농장을 운영하는 핵심 노하우입니다. 가령 단계별 소의 특성에 맞는 사료 선택이나 사료량 조절, 소들의 운동 능력 향상을 위한 농장 인프라, 깨끗한 농장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배려 등 공부해야 할 것 투성이예요. 한우에 대해 진정으로 아는 사람만이 첨단 기술의 혜택을 더 잘 누릴 수 있습니다.”



박사골농장 전경.

박사골농장에 걸맞은 소프트웨어를 갖추기 위해 김 대표는 수십 번의 시행착오를 거쳤다. 기온, 습도, 일조량, 소의 습관, 연령별 소의 행태 등 한우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데이터로 구축했고, 이는 명문 농장으로 거듭나기까지 든든한 기반이 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 협회 전용사료 '품질·가격·효율' 강점 갖춰 우량소 만들기 최적...확장 가능성도 높아

전국한우협회에서 론칭한 협회 전용사료 사용도 김 대표가 농장 성공의 비결로 꼽는 일 중 하나다. 김 대표는 축산계의 얼리어답터답게 한우협회에서 사료 론칭 당시부터 지역에서 개최된 사료 설명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해 구매의사를 밝혔다. 협회의 본격적인 사료 사업 시작으로 초기부터 한우협회 사료를 사용해 본 김 대표는 “품질로는 상위그룹에 들어갈만하다”라는 평가를 내놓는다. 현재 박사골농장은 배합사료 전량을 협회 사료로 바꿨다.

“초창기 한우협회 사료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죠. 이제 데이터가 쌓이고 농가들도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품질에서는 뒤지지 않는다는 세간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농장에서도 데이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성적 데이터를 꼭 뽑아봐도 상위그룹에 랭크될 정도로 품질은 보장할 수 있습니다.”

협회 사료는 일반 사료보다 1포당 평균 2,000~3,000원 정도 저렴하다고 알려져 있다. 김 대표는 품질뿐만 아니라 가격과 가성비를 협회 사료의 성공 포인트로 꼽기도 했다. 특히



박사골농장의 한우.

곡물가격 상승으로 사료값에 대한 저항이 높은 시기 협회 사료가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협회 사료는 시중에서 가장 저렴하다는 민간 배합사료보다 약 2,500원 저렴하거든요. 지금처럼 가격이 높을 때는 구세주 같죠. 가격만 싼가요. 협회 사료를 먹인 소들은 육질도 좋고 무게도 많이 나가요. 농장에 1톤을 넘나드는 한우들이 많은데 전부 한우협회 사료를 먹인 소들입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무색해지죠. 보통 암소가 하루 4kg 정도 먹는데 2.5kg만 먹어도 통통해 사람들이 놀라요. 협회 사료는 이 같은 강점이 유지된다면 앞으로의 확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할 겁니다.”



이규옥

전국한우협회 대전세종충남도지회장

## “임기 내 안정적인 조직 구축 위한 기틀 마련에 최선”



단체의 조직화는 중요하다. 많은 사람이 참여해야 조직의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 있는 것은 물론 재정적 측면 등에서 조직을 탄탄하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한우협회를 비롯한 축산단체도 마찬가지. 축산 농가 대변이라는 축산단체의 역할에 충실하려면 안정적인 조직화가 필수다. 지난해부터 전국한우협회 대전세종충남도지회장을 맡고 있는 이규옥 대전세종충남도지회장이 협회 창립, 천안시지부 결성 등에 적극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규옥 대전세종충남도지회장은 “90년대 후반부터 소값 파동과 생우 수입, 쇠고기 시장 개방 등 한우산업에 악재가 잇따랐다. 그래서 농가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농가들을 조직화해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이규옥 대전세종충남도지회장을 비롯한 많은 지도자들의 노력으로 한우협회 중앙회와 지역별 조직은 점점 탄탄해지고 있다. 하지만 그는 충남도지회와 충남도 내 각 지부의 조직화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강조한다.

이규옥 회장은 “지자체 지원사업이 충남도지회와 시군지부 등 단체를 통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탄탄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며 “생산자단체를 통해 지원하면 질병 등이 발생했을 때 농가 통솔력 등에서 괜찮기 때문에 생산자단체를 통한 지원을 지자체, 시군의원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제주도로 충남도내 시군 지부장과 사무장, 실장 등과 함께 한우지도자역량강화 교육을 다녀온 것도 한우협회 조직 활성화 방

안의 일환이다. 이들은 2박 3일 동안 제주국립 축산진흥원과 제주서귀포농협 생축장 견학, 충남도 한우산업발전 간담회 등 충남도지회가 마련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규옥 회장은 “회원들에 한 번에 늘어나진 않는다. 다만, 회원 활성화를 위해 임기 동안 집중하려고 한다. 제주도에서 교육을 진행한 후 참가자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 한우와 흑우를 보며 비교도 해보고 농협 설명도 듣는 등 알차게 시간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천안 병천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우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거리두기 완화로 소비자와 만날 기회가 늘어났다. 이에 이규옥 회장은 소비자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다.

그는 “그동안 소비자들이 끊임없이 한우를 찾아준 덕분에 한우가격이 유지될 수 있었다. 항상 고마운 마음이다. 농가들도 소비자들을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개인적으로 가장 두려운 것은 가축 전염병 발생이 아니다. 소비자들이 한우고기를 외면하는 것이다. 십 수 년 전에 미국 광우병 사태 여파로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한우가격도 일시적으로 급락한 적이 있다. 소비자들이 한우를 믿고 찾아줄수록 농가들은 질병과 농장 관

리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11월 1일 대한민국 한우 먹는 날 행사도 소비자들의 한우 사랑에 대한 감사를 표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규옥 회장은 “최근 천안시가 시청 내 주차장에 로컬푸드 매장을 설립했다. 이곳의 위치가 가장 변화가인 것은 물론 주차공간도 넓고 주변에 아파트도 많다. 최적의 판매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매장에서 한우고기를 할인 판매하는 방안을 두고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활동 방향은 충남도 내 한우 농가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개량 향상 등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규옥 회장은 “아쉽게도 충남지역의 개량 수준 등이 전국에서 꼴찌. 개량이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만큼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지자체와 함께 농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중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또 “최근 2세들이 늘어나고 있고 인공지능 교육에 많이 참여하는 등 배움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농가 스스로 개량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시행하겠다”며 “도지회가 농가들에게 보탬이 되는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한다면 회원 숫자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한우협회 금산군지부

## 지부단위 최초 숯불구이축제 통해 한우소비 촉진 앞장

한우농가 실익 위해 군청·기술센터 공무원에 쓴소리 마다 안해  
200여 한우농가 중 120농가 회원 가입 등 작지만 강한 지부



금산은 금수강산의 준말로 비단처럼 아름다운  
산과 강이 흐른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예로부터 인삼이 유명하여 2015년 3월 국가  
중요농업유산 5호로 동재가 되었고, 2018년에  
는 금산전통인삼농업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  
로 등재가 되었다.

이렇듯 금산은 인삼의 고향으로 소문나 있지만, 한우로도 매우 유명한 지역이다.

대전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금산은 17번 국도가 지나가는 복수면에 위치해 있는 금산한우특화거리는 타지역에서도 많이 찾는 금산 맛집으로 유명한 곳이다. 대둔산과 수락계곡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금산한우도 맛보고 인삼도 사기 위해 금산을 찾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 인삼 축제를  
한우 홍보장으로

특히 금산인삼축제는 인삼농사가 풍성하게 되  
기를 기원하는 삼장제를 발전시켜 1981년 제1  
회금산인삼제가 시작되었고, 대한민국의 대표  
하는 축제로 자리 잡게 된다. 대전세종충남도  
지회 김호상 금산군지부장은 축제 기간 금산  
을 찾는 소비자들이 매우 많아 이 기간 금산한  
우를 알리는 기회로 삼겠다는 계획하에 한우  
시식 홍보 부스를 운영했고, 이후 지부 단위  
에서는 처음으로 2019년 금산한우숯불구이축제  
를 개최하게 된다.

‘한우 먹go 인삼 먹go, 우리한우라는 슬로건으로 인삼축제기간인 9월 27일~10월 6일까지 10일간 진행된 행사는 전국에서 금산 인삼을 사러왔던 소비자들이 숯불구이 행사장을 찾아 인산인해를 이루며 큰 성공을 거두었다.

2019 한우먹go, 인삼먹go, 우리한우愛

금산한우  
숯불구이  
축제

1등급 한우등심  
100g 6,500원

**9.27 |금| - 10.6 |일|**  
금산 중도오거리 앞 행사장



한우자조금의 재원으로 실시한 행사는 고품질 1등급 한우고기를 100g에 6500원에 즐길 수 있어 가격 때문에 한우에 접근하지 못했던 소비자들에게도 한우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축제장에는 한우고기를 맛보려는 관람객들로 연일 발길이 이어졌다. 너무 많은 손님들이 한우를 맛볼려고 몰려들면서 제때 물량을 공급하지 못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고 행사기간 동안 총 1억 2천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리기도 하였다.

금산군의 한우숯불구이 축제는 2년 만인 올 9월말 또 다시 도전한다. 자조금 예산이 책정이 안되어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당초 충남도지회가 보령머드축제 자리에서 하기로 했던 한우 홍보행사가 주최측의 비협조로 불용되는





김호상 금산군지부장이 농장에서 포즈를 취했다.

일이 벌어졌고, 금산군지부는 도에서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금산 숯불구이 축제로 전용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금산에서 인삼축제 기간 숯불구이 축제를 펼쳐 한우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비자들에게는 한우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입장이다.

전국한우협회 중앙회 및 자조금과 협의 과정이 남아 있지만, 김호상 금산군지부장은 꼭 협조를 얻어내어 한우 홍보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 농가 목소리 대변에 농가 협회 가입 늘어

금산지역 한우농가 수는 200여호다. 인삼이 지역 경제를 떠받드는 중추적인 품목이다 보니 농가수는 타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지만, 이 중 한우협회 회원은 130농가로 가입

률이 매우 높다. 협회 가입이 안된 농가는 1~2두를 사육하는 소규모 농가뿐이라는게 김호상 지부장의 설명이다.

농가들의 협회 가입률은 높았지만 이렇다할 구심점은 없었던 가운데, 김호상 지부장은 금산군지부를 맡은 이후 관성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협회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농가들의 협회가입이 활성화된 이유는 금산군과의 유기적 협조체계의 구축이다. 금산군의 경우 농업기술센터 사업이 예산이 많은데 협회가 환풍기, 목걸이, 카메라 등의 보조사업을 유치하면서 농가들의 협회 사업 참여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기술센터의 농업인 지원 예산이 매년 6억원 내외가 책정되는데 기술센터 내 30개 품목회 중 한우가 2억4천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한우 관련 예산이 큰 이유는 적극적인 김호상 지부장의 역할이 크다. 기술센터나 군 축산담

당자들에게 아쉬운소리, 때로는 큰소리 내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한우농가들을 위한 작은 사업이라도 하나 만들려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왔기 때문이다.

금산지역 공무원들 사이에서 김호상 금산군지부장에 대한 평가는 너무 강하다는 것이다. 서너번 건의를 하고 부탁을 해도 들어주지 않으면 본인 입장에서는 큰 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고 한다. 하지만 한우농가를 위한 사업을 따와야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라도 농가들의 실익이 증진되기에 어쩔 수 없다고 한다.

김호상 금산군지부장이 한우 사육을 시작한지도 6년여가 되었다.

대전에서원룸 사업을 하던 김호상 지부장의 아내는 오래전부터 한우사육을 꿈꾸어왔고, 김호상 지부장의 결단으로 대전의 사업을 정리하고 고향인 금산에 300두 규모의 한우농장을 시작하게 되었다. 지금은 번식우 농장과 조금 떨어진 곳에 비육우 농장 두 곳을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시작된 한우사육이 어느덧 만 6년이 되었다.

짧은 경력에도 불구하고 한우를 사육한지 4년

이 되던 때 금산군지부장을 맡게 된 것이다. 초기 한우협회 금산군지부가 생겨날 때만해도 활력이 넘쳤지만 20여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협회 주축을 이뤘던 분들은 연로하여 은퇴를 하게 되었고, 연로한 몇몇 임원 중심으로 협회를 꾸리게 되면서 활력을 잃게 된 것이다.

한우산업과 협회에 애정과 열정을 가진 김호상 지부장이 협회에 가입하면서 기존 임원들은 호감을 가질 수 밖에 없었고, 자연스럽게 금산군지부 일꾼으로 일하게 된 것이다.

### 조사료, 한우가격 등등 고민 많아

조사료 문제는 전국의 한우, 낙농가 모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다.

금산군지부는 어떻게든 조사료를 자급해야겠다는 생각에 기술센터에 자주식 베일러 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조사료 수급 어려움은 단기간에 끝날거 같지 않다며, 옥수수나 총채버 등을 농가들이 직접 재배하고 수확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관련한 시연회가 천안 풍세에서 있다고 하여 기술센터 담당자 등과 함께 방문하기도 했다.

퇴비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방안을 마련 중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공동처리장의 확보인데, 금산지역을 뒀진 결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지를 찾아 놓은 상황이다.

김호상 지부장은 현재의 생산비와 한우가격 등을 고려할 때 500~600만원에 송아지를 구입해 입식한 농가는 사료비 상승으로 두당 가격이 1200만원이 나와도 겨우 본전을 건지는 수준이라며 수급조절과 한우소비 촉진에 협회와 자조금이 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우식당 기행(8)

정음한우식당



전북 정읍시 북면 화평길 2

11:30 ~ 21:00

063-534-6492

## 1++등급 출현율 52%... ‘정음한우식당’의 성공 비결은

정읍시지부·전북한우육종협동조합  
통합 시너지로 ‘비상’

정읍시지부와 전북한우육종협동조합이 통합운영 2년 만에 시너지효과를 누리며 새로운 도약을 예고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 지부 최초로 송아지 경매시장 운영과 생산이력제 사업 수행 등 농가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 온 정읍시지부와 사료 공동구매사업과 직영 식당을 운영해 온 전북한우육종조합은 2020년 7월 통합의 길을 택했고, 현재 경제사업의 모든 부분을 총괄하며 한우농가와 직원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조직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두 조직의 통합 스토리와 정읍에 가면 꼭 들러야 할 명소로 자리 잡은 정음한우농가들의 직영 식당 ‘정음한우’의 성장스토리를 들어봤다.



1



2

1 박승술 전북한우육종조합 이사장(한우협회 정읍지부장)

2 정음한우식당의 내부 전경 모습

### 정읍시지부-전북한우육종협동조합 ‘대승적 통합’

전북도지회 정읍시지부는 1999년 협회 설립 당시부터 조직화된 농민운동을 통해 협회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 2000년대 초반 협회의 생우 수입반대 운동의 중심에서 농가들을 결집했고, 위기의 한우 산업을 지키기 위해 추진됐던 ‘한우지키기 만만(萬萬)운동’ 전개와 한우자조금 사업 도입 등에도 늘 선봉에 있었다.

전국의 축협을 중심으로 운영돼 온 송아지 경매시장 운영 사업에 뛰어들었고, 열악한 조건에서 송아지 생산이력제 사업까지 대행하며 조직의 내실화를 도모해 나갔다.

하지만 열악한 생산자단체에서 경제사업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송아지가 태어날 때마다 농가당 2만 원씩을 각출하고, 우시장에서 송아지 거래 시 판매자와 인수자가 각각 3만 원씩을 내서 협회의 필요경비로 사용했지만, 직원들에게 급여를 챙겨주기에도 빠듯한 살림살이는 나이지기 어려웠다.

2013년 우여곡절 끝에 설립된 전북한우육종조합은 사료 공동구매사업과 이듬해 직영 식당까지 개설하는 등 경제사업에 의욕을 보였다. 하지만 정읍시지부와 육종조합으로 나뉘진 상황에서 크고작은 잡음이 속출했고, 결국 2020년 두 조직은 ‘통합’의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



## 우시장·사료·판매장·이력제까지... 사업 다각화로 경쟁력 제고

통합된 조직의 구원투수로는 박승술 전 한우협회 중앙회 부회장이 만장일치로 이사장에 선임됐다.

협회 설립 당시부터 정읍시지부 사무국장과 지부장, 도지회를 맡아 밀알 같던 한우농가를 ‘한우협회’로 결집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던 박 이사장은 흠어진 정읍 농가들의 민심을 하나로 수습하기 위해 많은 힘을 기울였다.

“40대 초반부터 전북도지회 정읍시지부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며 내 인생의 허리를 바친 곳인데, 작은 오해가 쌓여 조직이 흔들리는 모습에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통합된 조직을 바탕으로 다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자고 호소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가장 먼저는 경제사업 부문에서 통합의 시너지가 발휘되고 있다.

작년까지는 코로나로 어려움이 컸던 식당 사업이 방역 제한조치 해제와 한우 지육 가격이 낮아지며 흑자로 전환됐지만, 사료 사업은 원료곡 상승으로 가격이 크게 오르며 간신히 적자를 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사업의 상호 보완 효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

지난해는 사료에서 약간의 이윤을 남겨 식당 유지에 보탬이 됐다면, 올해는 식당 영업 활성화로 사료 가격 인상분을 낮추며 농가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는 것이다.



## 20여 년간 매진해온 개량의 효과 ‘빛을 발하다’

‘정읍한우’ 식당은 현재 정읍의 이름난 한우 맛집으로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정읍에 가면 꼭 가야 할 한우 맛집이 아니라, ‘정읍 한우’를 방문하기 위해 정읍에 들러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정읍 한우식당은 2014년 임대 형태로 운영되다 2018년 북면 한교리 지금의 부지에 770㎡의 2층 건물로 새롭게 개장했다. 200여 석 규모의 연회석과 함께 별도의 가공공장과 정육 판매장도 갖췄다.

그동안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피할 수 없었지만, 올해 들어선 ‘정읍한우’를 맛보기 위해 일일 평균 480여 명이 이곳을 찾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매출은 50억 원을 무난히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읍한우의 인기 비결은 고품질 거세우를 중심으로 암소의 경우 50개월령 미만을 취급하는 등 철저한 품질 관리에 있다. 특히 1++등급 등심이 1만 1천 원, 1+등급의 경우 1만 원에 판매하는 등 고품질 한우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며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동안 착실히 추진해온 개량사업 추진 등 정읍 한우농가들의 남다른 품질 고급화 노력은

정읍 한우의 경쟁력이라는 게 박 이사장의 설명이다.

25년 전만 해도 개량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시절, 박승술 이사장은 이근수 전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전 전북도지회장)과 한우핵군육종연구회 멤버로 활동하며 정읍을 비롯한 전국의 한우농가들에 개량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었다.

정읍에서만 두 차례 심포지엄을 농가 자비로 개최했었고, ‘육종 농가들의 송아지 현장 경매’까지 유치하며 지역의 농가들에 생생한 개량의 교육 효과를 각인시켰다.

특히 당시 박승술 회장은 정읍의 한우 개량을 위해 ‘한우종모우 정액의 무상 공급’을 정읍시에게 적극로 건의해, 수용되면서 정읍의 한우 개량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지난해 1++한우 등급 출현율이 52%를 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고급육 출현율을 기록하는 것은 이러한 노력과 무관치 않은 셈이다.

현재 정읍한우로 출하할 경우 육종조합에선 1++9의 경우 마리당 70만원의 장려금을 준다.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윈윈하는 구조를 완벽히 구현해냈다.





## 1++등심 1만1천 원, 불고기·국거리는 원가 이하 판매

정읍한우 식당이 자리를 잡기까지는 적잖은 어려움도 있었다.

안심, 등심, 채끝 등 구이용 부위는 소비되는 데 불고기, 국거리 등은 재고로 남아 냉동물량이 크게 늘면서 골머리를 앓은 적도 있다.

“평생을 한우를 키우며 농민운동만 해오던 장사와는 완전히 거리가 먼 나같은 사람이 재고 문제에 부딪혔을 땐 밤에 잠도 오질 않더라고요. 내가 왜 통합비상대책 위원장을 맡아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후회도 많았습니다.”

어려웠을 당시 도움을 받은 곳은 일품한우 김치영 대표다. 정읍에서 생산한 소를 일품한우로 보내 필요한 부위만 사오고, 나머진 일품한우에선 처리하는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숨통을 트이게 됐다. 이같은 과정을 겪으며 유통부문에서도 노하우를 터득하게 됐다.

최근엔 국거리와 불고기 부위를 100g에 2500~2800원에 판매하는 등 최하가격에 내놓으면서 정읍 한우에서 한우 한 마리의 모든 부위를 소화해 내고 있다.

“우리같은 조직이 살아야  
한우농가가 살 수 있습니다.

정읍에 있는 한우 식당에선 우리와  
비슷한 가격으로 고기를 팔려고 합니다.

영뚱하게 비싸게 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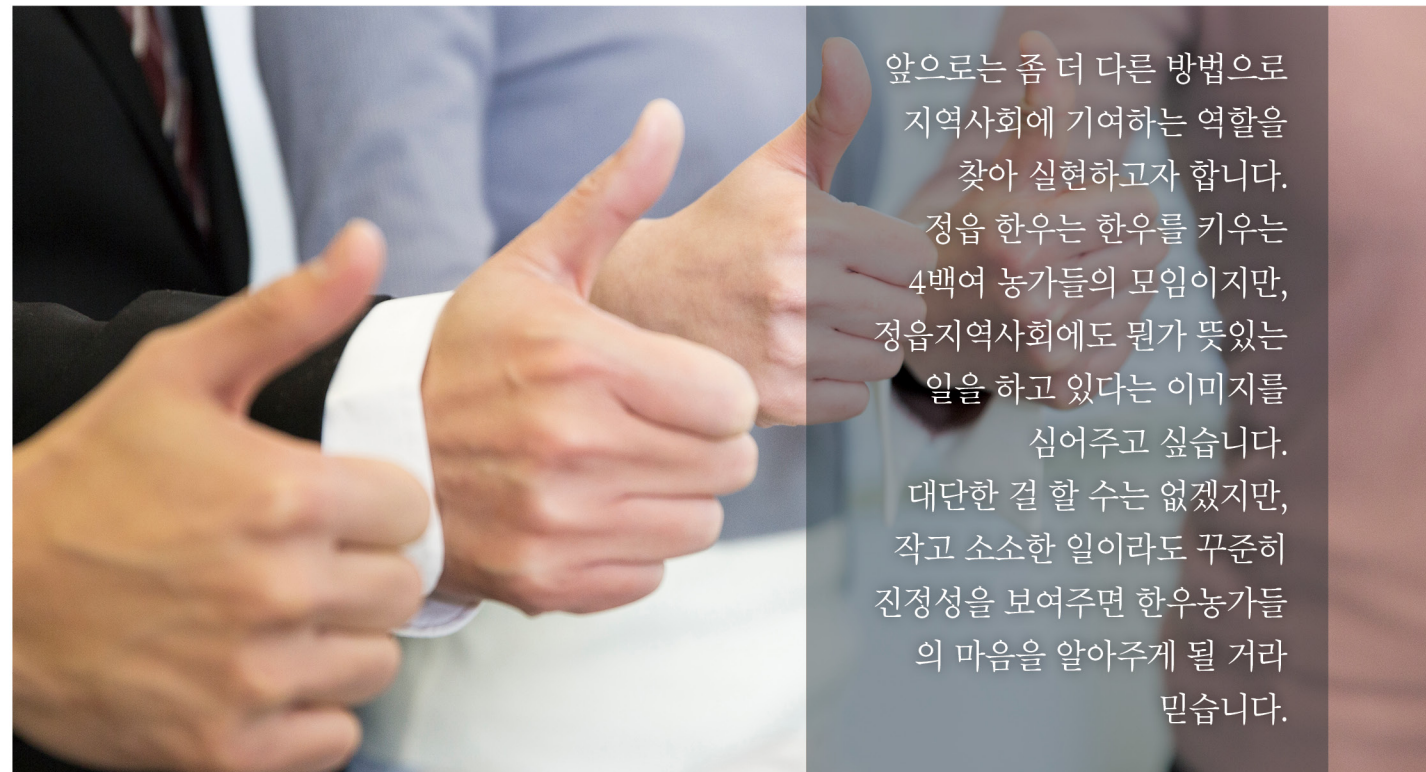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유통의  
기준점을 잡아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농가형 식당의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1 한우 육회

2 여름철 별미 한우물회

3 정읍한우에선 1++한우등심을 100g에 1만원에  
즐길 수 있다.



앞으로는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을  
찾아 실현하고자 합니다.  
정읍 한우는 한우를 키우는  
4백여 농가들의 모임이지만,  
정읍지역사회에도 뭔가 뜻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습니다.  
대단한 걸 할 수는 없겠지만,  
작고 소소한 일이라도 꾸준히  
진정성을 보여주면 한우농가들  
의 마음을 알아주게 될 거라  
믿습니다.

##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정읍 한우’ 만들기 최선

각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박 이사장도  
“조금씩 자신감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계획과 관련해 박 이사장은 직원들  
이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싶은 곳, 평생 다니  
고 싶은 직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이사장은 “한우농가와 지부, 조합의 발전보  
다 직원들이 우선”이라면서 “직원들이 건재하  
지 않으면 조합은 물론 농가들의 발전은 기대  
할 수 없다는 게 나의 지론”이라고 강조했다.

농가들이 구상한 어떤 좋은 일이라도 결국 직  
원이 없이는 그 무엇도 해낼 수 없다는 걸 뼈  
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란다.

정읍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으로 성장시  
키는 것 역시 그의 또 다른 큰 꿈이다.

정읍 한우식당에서 창출된 이익 일부를 떼어 ‘  
지역사회’ 환원 계정을 새롭게 만들 만큼 사회  
공헌사업에 관심이 큰 그는 올해 지역의 이장  
들을 초청해 한우 불고기 등 음식을 대접하는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는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을 찾아 실현하고자 합니다. 정  
읍 한우는 한우를 키우는 4백여 농가들의 모  
임이지만, 정읍지역사회에도 뭔가 뜻있는 일  
을 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습니다.  
대단한 걸 할 수는 없겠지만, 작고 소소한 일  
이라도 꾸준히 진정성을 보여주면 한우농가들  
의 마음을 알아주게 될 거라 믿습니다.”





# 전국한우협회 직거래유통망

- 농가가 원하는 적기 출하
- 경매 상장 수수료 無
- 운송비 절감
- 하자육 발생시 농가 손실 방지제도 운영



• 한 차(8두 기준) 출하, 100만원 이상 이득 ⇒ **농가수익개선**

전국한우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거래유통망은 부산물 제값받기와 적기출하를 위해 만들어진 전국한우협회 전용 도축유통망입니다.  
경매 상장수수료가 없고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어 경영안정에 유익합니다.

## ◆출하 신청방법 (☎ 02-525-1053)

- 담당 : 유통사업국 박호경 대리(내선 207)
- 시기 : 출하 계획 14일~30일전 협회로 신청
- 접수 : 중앙회 담당직원 연락 또는 시군지부 접수
- 팩스 : 02-525-1054



## ◆정산기준

구분	거세우	암소	비고
출하규격 (지육중량)	27개월령 이상 36개월령 이하 380kg이상 600kg이하	26개월령 이상 60개월령 이하 300kg이상 550kg 이하	※ 등심단면적 기준 (거세) 86cm <sup>2</sup> 이상 110cm <sup>2</sup> 이하 (암소) 76cm <sup>2</sup> 이상 100cm <sup>2</sup> 이하
가격적용 기준	농협 음성공판장 화,수,목,금 평균가	음성공판장 화,수,목 평균가	
부산물	두·내장·우족은 농협 음성공판장 가격 적용		우피는 당해 도축장 가격에 따름
하자육 처리	근출혈 보상보험 두당 8,500원		하자육 금액이 kg당 1,000원 이상으로 발생시 일부 자부담 발생
출하장려금	(거세, 두당 7만원) 도체중 420kg~560kg이하, 월령 30~34개월이하, 등심단면적 86cm <sup>2</sup> 이상 (암소, 두당 12만원) 도체중 350kg~550kg이하, 월령 28~60개월이하, 등심단면적 76cm <sup>2</sup> 이상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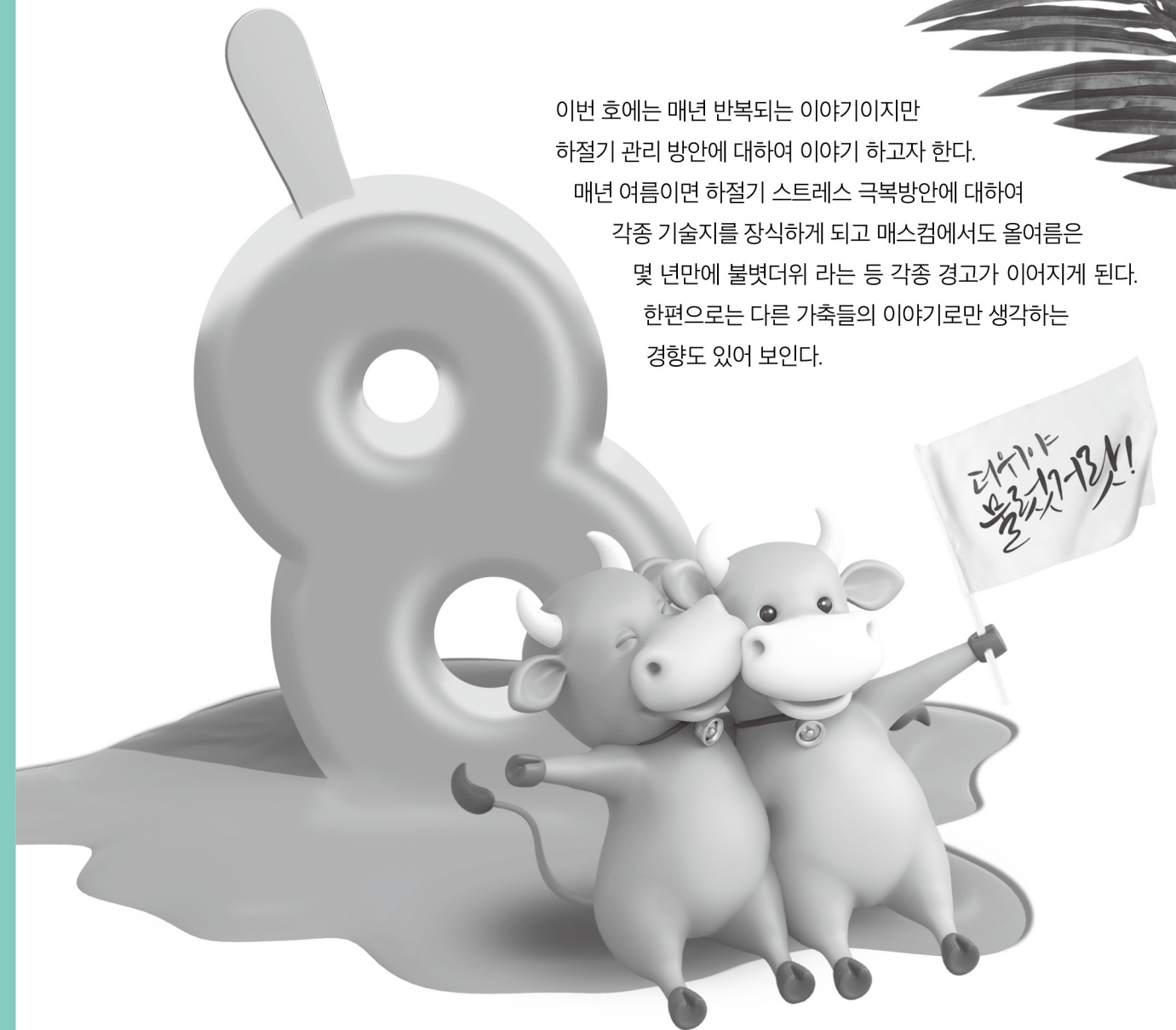
## 철저한 기본관리 통한 여름 극복

글. 지엠디컨설팅

이번 호에는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하절기 관리 방안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한다.

매년 여름이면 하절기 스트레스 극복방안에 대하여

각종 기술지를 장식하게 되고 매스컴에서도 올여름은  
몇 년만에 불뼉더위 라는 등 각종 경고가 이어지게 된다.  
한편으로는 다른 가축들의 이야기로만 생각하는  
경향도 있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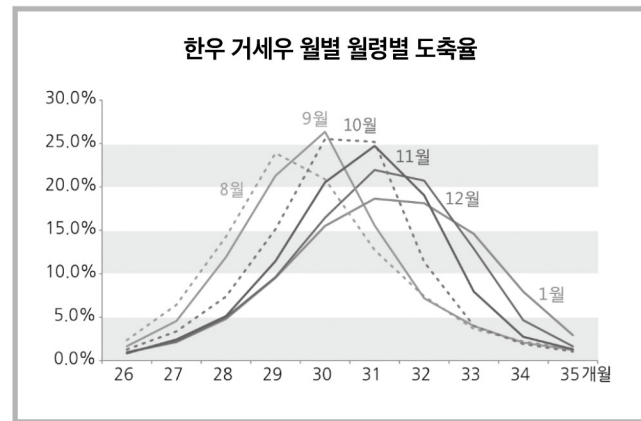




컨설팅  
사양·컨설팅

한우의 환경온도에 따른 섭취량 및 음수 요구량

환경온도(°C)	사료섭취량(건물기준)	물 요구량(kg/kg DM)
35°C 이상	10~35% 감소	8~15
25 ~ 35	3 ~ 10 감소	4 ~ 10
15 ~ 25	사양표준 기준 섭취량	3 ~ 5
5 ~ 15	2 ~ 5% 증가	3 ~ 5
5 ~ -5	3 ~ 8% 증가	2 ~ 4
-5 ~ -15	5 ~ 8% 증가	2 ~ 3
-15°C 이하	8 ~ 25% 증가	2 ~ 3



그러나 우리 한우인들은 경험을 통하여 여름철 피해를 이미 인지하고 있음을 위의 월별 월령별 도축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위 내용은 혹서기인 8월에는 출하월령이 짧아진다는 것이고 혹서기 피해로 인해 9월부터는 점점 출하월령이 길어지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비육농가에 있어서 하절기 스트레스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이 번호에서는 이러한 중요성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하절기 대책 중 가장근본적인 기본관리에 대하여 몇 가지 이야기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물통청소이다. 물통 청소의 중요성은 기본적으로 신선한 물을 공급하기 위함이지만 생리적으로도 체온을 유지하기 위하여 음수량이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이유 외에도 음수량의 증가는 사료 섭취량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특히 ‘비육 구간에서 낮시간 물통청소’를 권장하는 바이다. 낮시간에 물통청소를 하면 쉬고있는 비육우의 이목을 끌 수 있게 되고, 고여있는 물통에 신선한 물을 공급하게 됨에 따라 비육우의 음수를 자극할 수 있다. 음수 이후에는 추가적인 사료 섭취로 이어지기 때문에 섭취량 하락이 걱정된다면 반드시 실시하기를 권장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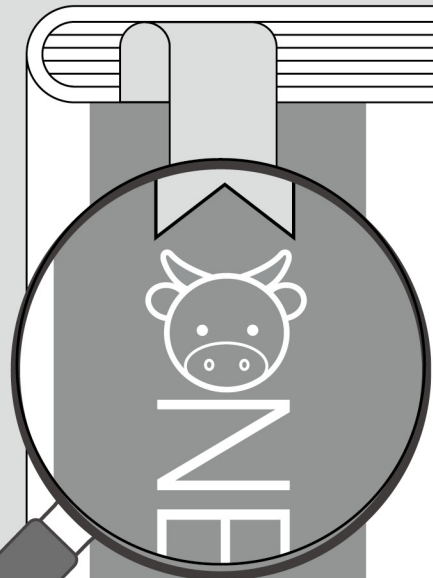
두 번째는 분리급여시 조사료를 배합사료보다 먼저 급여하는 것이다. 조사료를 먼저급여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 이겠지만 많은 농장에서는 관리시간을 이유로 반대로 급여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비육우에 있어서는 하절기 성적을 좌우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비육우의 경우 비육전기 이후로는 조사료의 급여량을 제한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특히 하절기에는 조사료가 배합사료보다 섭취 이후 체내에서 열을 발생시키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조사료 섭취량이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일이 일정기간 지속되면, 입담음 현상으로 이어지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사료 우선 급여가 필요하겠다.

셋째는 급여횟수를 증가하는 것이다. 최근에 자동급여기 시설을 설치하는 농장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자동급여기의 장점은 급여시간 및 횟수를 조절할 수 있으며,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클 것이다. 그러나 하절기에 급여횟수를 증가하는 농장은 그렇게 많지 않다. 타이머를 이용한 자동급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부분은 눈으로 확인하면서 급여하고 오작동을 염려하는 부분이 많다. 그렇다면 아침 저녁은 확인급여 점심 정도는 타이머로 이용한다면 자동급여기의 장점도 활용하면서 노동력도 절감하고 하절기 섭취량 감소도 예방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아닌가 한다.

이 세가지 외에도 하절기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대처법이 있겠으나 가장 기본적인 하절기 관리는 ‘낮 시간 물통관리’, ‘조사료 우선 급여’, ‘급여횟수 증가’ 일 것 이다.





## POINT LESSON

모든  
한우  
농가  
에게  
필수  
인  
것



이종현 농학박사  
전 한우협동조합연합회  
사무국장

# 남원축협 등록우 경매시장 풍경



<사진1> 경매장에 나온 많은 사람들(필자촬영)

## 1. 머리말

올 여름 더위는 사람과 소들을 유난히 피곤하게 만드는 것 같다.

오전 8시가 되기 전부터 후끈거리는 경매시장은 소를 사러 나온 사람들보다는 최근 멈춰서 있는 송아지 시세를 알아보려고 나온 농기들이 부쩍 많아 보였다.

남원축협에서는 비육우경매 부터 시작해서 암소 번식우, 송아지의 순서대로 경매를 실시하는데 1차 경매 후 유찰되면 2차 경매를 실시하여 가능하면 출하된 소가 경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어느 경매장에서나 마찬가지로 최저가격을 산정할 때는 축협에서 지정한 2명이 가격을 결정했는데 오늘(8월 4일)

출장할 송아지를 보면 총 125두 중에서 93두가 수송아지이며 32두가 암송아지로 예정되어 있다.(수:74.4%, 암:25.6%)

송아지 출장두수를 보고 판단 한다면 암송아지는 많은 농가에서 번식용 밀소로 활용하고 수송아지를 판매하는 경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2. 송아지 앞다리도 잘 살펴야 한다.

송아지를 구입하기 전에 머리와 등, 허리 후구(엉덩이, 넓적다리 등)는 잘 살펴볼 수 있는데 앞다리 부분은 소홀하게 보게 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비육종료가 완료되는 종료 시 체중이 900kg이 넘는 큰 소가 많고 번식암소라도 600kg을 넘는 대형우가 출현되고 있다.

소가 크게 되면 전구(어깨, 가슴)가 발달하게 되며 체중이 증가할수록 앞다리가 튼튼해야만 앉고 일어나는데 소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된다.

송아지 구매 전에 일반적으로 살펴보지 말고 앞다리를 잘 관찰해 보아야 한다.

「사진2」의 송아지를 보면 가슴에서 다리와 이어지는 부분이 굽었는데 이렇게 앞다리가 벌어지면 향후에 체중을 감당하기 어려우며 오른쪽과 같이 가슴에서 다리는 일직선으로 잘 붙어 있어야 한다.

다리는 소의 체중을 일생동안 지탱 해주기 때문에 반듯하게 벌어져 있는 것이 좋으며 발굽도 앞으로 똑바르게 있어야 하는데 다리가 옆으로 벌어진 송아지도 있으니 잘 살펴보는 것이 좋다.

「사진3」의 오른쪽 소는 앞발이 밖으로 벌어져 있는데 이런 송아지도 구입명단에서는 제외를 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시장에 소가 많은데 잘 관찰하지 못하고 이런 송아지를 구입하는 실수는 없어야 하며 직접 구입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송아지를 골라야 하는 것이다.



<사진2> 왼쪽소의 앞다리가 굽었음 (필자촬영)



<사진3> 오른쪽소의 앞다리가 벌어졌음 (필자촬영)



### 3. 우시장에서 흘러나온 이야기

#### ● 쌍둥이는 1대를 거쳐 나온다.

“우리집 암소는 쌍둥이를 낳아서 키워 볼려고 안가지고 나왔어!

이것도 암송아지 하고 수송아지 쌍둥이는 못 쓰고 암송아지 쌍둥이가 좋다네.

아무 소나 쌍둥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한 마리 있으면 기분이 좋은데 이것도 그 다음 암소에서는 안 나오고 다음 대에서 나온다고 길러 봐야지.”

언뜻 지나가다 우시장에 나온 농가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사진4」는 인터넷(잇소제공)에서 찾은 자료인데 한우농가들도 궁금해 할 것 같아서 인용하였다. 이 자료에 의하면 한우의 쌍둥이 분만비율은 1% 미만이라고 한다. 농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에서 10년간 생산한 송아지 6,142두 중에서 쌍둥이 분만두수는 54두로 전체의 약 0.88%였으며 이중에 19두인 35%가 프리마티노로 태어났다고 한다. 그러니 한우농가에서 쌍둥이 송아지가 태어나는 것은 경사스러운 일이며 최근에는 발정남 암소에 인공수정을 실시한 후 1주일 뒤에 수정란을 이식해서 인공적으로 쌍태 생산을 유도하고 있는데 송아지를 생산한 후 어미소의 젖이 부족하여 추가적인 관리만 잘 해준다면 농가로서는 경사스러운 일이다.



<사진4> 자료:인터넷 네이버(잇소)인용

한우 성비 및 쌍태 생산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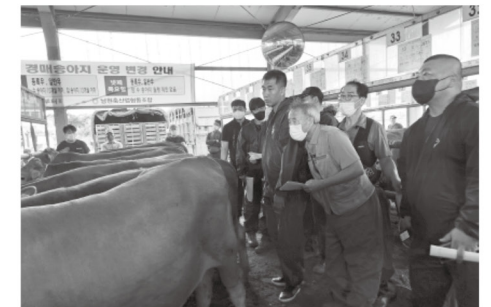
암수비율			쌍태생산				
암	수	계	암쌍태	수 쌍태	프리마틴	계	쌍태
2,889	3,253	6,147	8	27두	19두	54두	54두
47%	53%	100%	15%	50%	35%	100%	0.88%

자료: 농협중앙회(2004)

#### ● 우리는 불으면 바로 죽어!

등록우 경매시장에 가서 보면 느낄 수 있는 일이지만 최근 들어서 젊은 경매 참가자가 많이 보인다.

이들은 그 지역 사람이 아니라 외부에서 송아지를 대량으로 구입하는 사람들인데 송아지를 많이 구입할 뿐만 아니라 사고 싶은 송아지가 있으면 경매가격도 높아서 지역농가들은 좋은 한우가 있어도 마음대로 송아지를 구입하기가 어렵다. 경매에 참여하여 경쟁을 해도 이들을 상대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다.



<사진5> 젊은 경매참여자들이 많다 (필자촬영)

「사진5」에서 보면 한 두 사람을 제외하면 경매

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젊고 이들은 좋은 송아지가 있으면 경매가격을 높게 지불하더라도 송아지를 구입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살고 있는 생산농가보다 경쟁력에서 우월하다.

지역 농가들은 이들과 붙어봐야 송아지 구입이 어려우니 농가들이 모여서 푸념섞인 소리를 들었다.

물론, 번식농가들은 외부에서 오는 경매참여자들이 많이 와서 높은 가격에 송아지를 구입하면 좋은 일이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 서글픈 이야기일 수도 있다. 옛날 같으면 우시장에서 큰 소리 치며 송아지 가격을 흥정하고 시장에 많이 나오지 못하는 소규모 번식농가라도 만나면 중매를 잘 해서 막걸리 값이라도 건졌을 테지만 요즘 같이 경매가격을 단말기로 입력하는 세상에서는 어렵없는 이야기 이다.

오늘도 우시장에는 비교적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이 구경꾼이며 실제로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10명 내외의 참여자들이 열심히 단말기를 누르고 있는 모습이다.

경매가 파장으로 갈 즈음이면 그 많던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썰물처럼 빠져나가 썰렁한 분위기 마저 느껴진다.

### 4. 남원축협경매시장의 특징

#### 가. 개월령을 잘 살펴 보아야 한다.

가축경매자료(22년 8월 4일 : 응찰자용)를 살펴보니 암송아지는 8~13개월령 이었으며 수송아지는 6~12개월령으로 다른 지역보다 넓게 분포 되었다.



이 가운데서 대부분의 암송아지는 10~12개월령에 분포되어 있었으며 수송아지는 8~9개월령의 송아지가 많이 출품되었다.

축협직원의 협조를 받아 응찰가격(응찰하한가)을 결정하는 유국열(65세 : 경력 20년)님과 김홍선(73세 : 경력 15년)님을 만나서 송아지 고르는 방법을 물어보니 「같은 가격이면 개월령이 낮은 것이 좋다」면서 「송아지의 폭이 좁고 개월령도 높으며 뿔이 크고 마른소」를 가장 낮은 가격으로 책정 한다고 말했다. 유국열님은 한우 100두를 일관사육 하는데 남원 국립축협원의 가격 산정위원으로도 참여한 적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축사 1칸에(5×10m) 7마리씩 넣어 길렀는데 최근에는 5두를 넣는다고 하면서 너무 적게(4두)넣으면 사료를 덜 먹는다고 말했다.

본인은 집에서 송아지를 직접 생산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구매를 많이 하지는 않지만 혹시 모자라면 시장에서 구입 하는데 비슷한 개월령이 3두 있으면 2두를 구입하여 축사 1칸에 5두를 채워서 비육을 하며 같은 칸에는 체형이 비슷한 송아지를 넣어야지 차이가 많으면 안 된다고 했다.

또한, 개월령에 비해서 뿔이 너무 큰 송아지는 송아지 생산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 개월령이 낮으면서도 체형이 큰 송아지를 구매 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남원축협의 경매시장에는 남원지역 뿐만 아니라 전남곡성, 구례 등 인근의 송아지도 출품을 하기 때문에 잘 살펴보아야 한다.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 출품한 번식우 중에는 송아지가 1~2개월령이 되었음에도 귀표를 하지 않은 송아지가 출품된 것을 볼 수 있었다.

## 나. 너무 어리거나 작은 송아지는 불리하다.

송아지 출품 개월령이 5~6개월령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한우농가에서도 너무 일찍 출품 할 이유가 없다.

송아지의 경우라도 1개월에 최소 20kg에서 많게는 30kg 차이가 나는 송아지를 출품 할 경우에는 다른 송아지 틈에 끼어서 가격도 낮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사진8」과 같이 큰 송아지 속에 작은 송아지가 있으면 가격을 제대로 평가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송아지가 개월령도 높으며 뿔이 크다면 시장에서 최하위 취급을 받게 되며 구매자의 외면을 받을 수가 있으니 송아지를 생산한 농가에서도 이런 송아지가 있으면 개월령을 높여서 늦게 나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진8> 큰 송아지 속에 있는 송아지 (필자촬영)

## 5. 맺음말

450만원이면 나락이 몇 가마니여?

시골에서는 한우도 키우면서 벼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많다.

방송에서는 올 해도 벼농사가 풍년이면 지난 해 수매한 벼를 판매하지 못하여 창고에 가득 쌓아 놓고 있어 쌀이 남아 돌 걱정을 하고 있다.

송아지는 잘 키워 놓기만 하면 내가 기르던지 경매시장에 출하 하더라도 못 팔아서 걱정을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지난(21년도)해 조곡용 벼 수매가격을 살펴보았더니 40kg에 66,000원이었으니까 송아지 한 마리에 벼가 68가마니였다.

옛날에는 흰 쌀밥에 쇠고기국이 최고의 음식 이었는데 지금은 남아돈다고 걱정을 하고 있으니 세월이 참 많이도 변했다.

시골에서 한우도 키우면서 벼농사도 짓는 우리 농민들의 가슴을 아프지 않게 소값도 좋고 쌀값도 좋은 세상을 만났으면 좋겠다!



<사진6> 좌측:김홍선님 우측:유국열님 (필자촬영)



<사진7> 귀표 없는 송아지 (필자촬영)



## 김재경 원장의 **한우 키포인트** **이것만은 꼭!**

많은 농가가 한우를 사육하다 보면 헛갈리거나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면서 소들을 키우고 있는 것 같다. 오랜 기간 수의사 생활을 하면서 현장에서 느낀 노하우들과 현재 '소앤소 김재경 원장'이라는 네이버 밴드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자주 받는 질문들을 바탕으로 한우 농가들이 쉽게 질병이나 사양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연재를 해보려고 한다.



**Q** 안녕하세요 원장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침, 저녁 축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날씨가 더워져서 그런지 애들이 전체적으로 사료 먹는 양이 2/3가량 떨어진 것 같아서 걱정이입니다. 주변에서는 일단 지켜보라고 하는데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20개월 넘어가는 거세우들이 안 먹으니까 살도 안찌고 크지도 않는 것 같아서 속상하네요. 수의사님의 꿀팁이 있다면 시도해 보고 싶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A** 비육우의 식욕부진의 원인은 폐렴, 제1위 부전각화증과 간농양, 대사성장염, 급성간염, 과산증, 지방간 등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요즘처럼 30°C이상의 고온이 지속되는 시기에는 한우의 분당 호흡수가 증가하고 사료 먹는 양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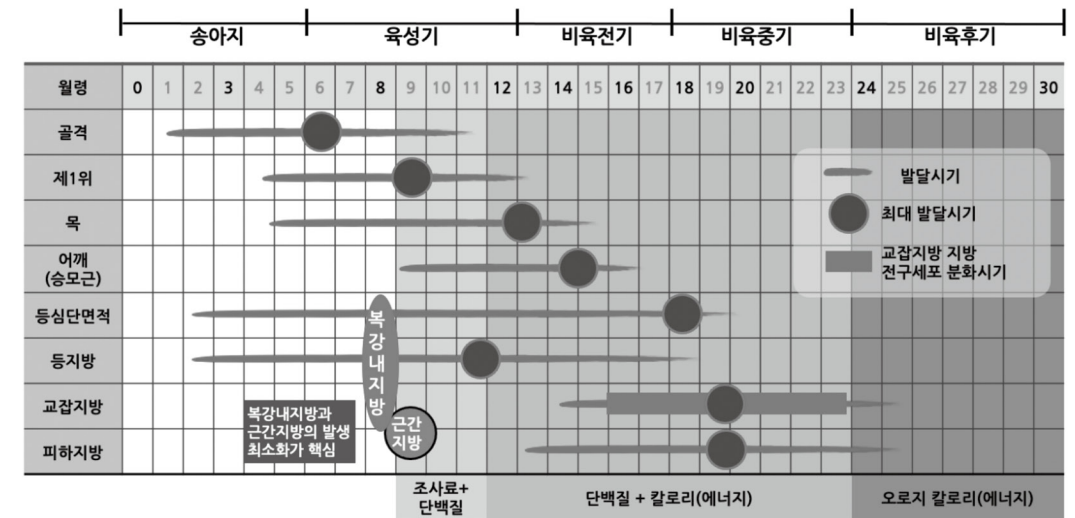


그 이유는 소와 같은 반추동물(되새김을 하는 동물)은 소화과정에서 발생하는 반추위 내 발효열에 의해 고온 스트레스가 더욱 심해지고 사료 섭취량 또한 떨어지게 됩니다. 식욕부진이 발생한 경우 농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비타민A의 주사 또는 급여

20개월이 넘는 거세우들의 식욕부진은 비타민A가 부족할 가능성이 큼니다. 한우에서는 비육전기와 비육중기 사이에 사료 중 비타민A 농도를 제한하여 직·간접적으로 소의 지방세포를 분화시키고, 근내 지방도를 향상 시킵니다. 따라서 근내 지방이 형성되는 시기인 비육전기와 중기사이에는 비타민A를 제한하고, 이 시기 전 후로는 비타민A를 급여하거나 주사해야 비타민A의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A는 시력, 면역력 향상, 식욕 및 성장에 큰 역할을 합니다.



[비육우 각 부위 발달시기]



## 1 비타민A는 정상적인 식욕을 유지하게 합니다.

따라서 비타민A가 부족한 경우 식욕 부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비타민A의 적정량은 거세우의 경우 하루에 체중 Kg당 40IU를 급여하거나 주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500kg의 거세우의 경우  $500\text{kg} \times 40\text{IU} = 20,000\text{IU}$ 를 하루에 필요로 합니다. 만약 주사를 놓을 경우에는 1달 간격으로 주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고, 그 양은  $500\text{kg} \times 40\text{IU} \times 30\text{일} = 60\text{만IU}$ (시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비타민 주사제를 기준으로 2cc)를 적용하여 주사합니다. 비타민A의 경우 개체별로 알리지 증상(눈이 붓거나, 홍분하여 뛰어 다니거나, 잠시 동안 기립불능)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알리지 증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타민A가 서서히 흡수 되도록 근육 주사가 아닌 피하로 주사하는 것이 좋고, 심한 경우에는 항히스타민제를 주사하면 급세 호전이 됩니다.

## 2 비타민A는 송아지 및 성우에 있어서 정상적인 상피조직의 구조와 기능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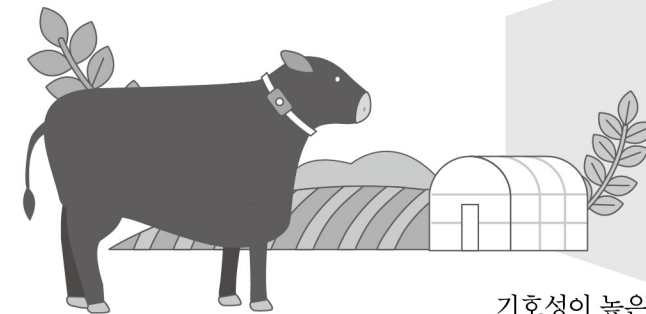
이것은 송아지에게 있어서 어미 소의 젖을 잘 소화시켜 설사를 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고, 성우에게는 요도상피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 요결석 예방과 성장을 촉진시킵니다. 따라서 비타민A가 부족하면 송아지에게는 설사가 발생하고 생후 17~18개월 이상의 소에게는 요결석과 식욕부진 현상을 일으킵니다.

## 3 비타민A는 성장호르몬, 갑상선호르몬, 인슐린인자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발육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비타민A는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비타민A가 부족하면 증체가 되지 않습니다.

## 4 비타민A는 골화세포의 활동을 지지하여 정상적인 뼈의 발육에 관여합니다.

이것은 비타민A가 뼈의 성장과 몸집을 크게 하는 역할을 하며 등심단면적의 크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기호성이 높은 당밀이나 호로파(식욕 및 성장촉진제의 역할)가 함유된 첨가제의 급여는 입 닫음 현상을 완화시키고 증체에 도움을 줍니다.

**식욕 및 성장촉진제 함유된 첨가제 급여**

### 식욕 촉진제를 3일간 주사

카르니틴 성분의 식욕 촉진제를 3일간 주사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1일 50cc씩 4일간 주사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L-carnitine 200mg 기준)

간 기능 강화제(네오헥사메치오닌) 주사를 권장합니다. 권장 사용량은 1일 50~100cc 근육 또는 혈관주사로 5일간 주사하면 좋습니다.

**간 기능 강화 주사 권장**

### 환경 관리

마지막으로 소들이 사료를 잘 먹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① 수조의 관리. 수조에 떨어진 사료의 부패로 수조가 오염되거나 수조 청소를 하지 않아 수조에 이끼가 끼는 경우, 이끼는 청산가리와 유사한 성분으로 송아지와 거세우의 사료 섭취량을 저하시키고, 임신우의 경우 유산과 사산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름철에는 특히 수조 청소를 자주 해주고, 수조에 중조를 뿌려주면 이끼가 덜 발생합니다.

② 축사의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그늘 막을 설치, 시원한 물을 충분히 급여, 우사에 바람이 잘 통하도록 송풍의 위치를 조정, 사료가 공급 후 변질 가능성이 있는 사료는 깨끗이 치우는 등 축주분의 노력으로 좋은 축사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식욕부진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인식 작가의

# 소고기

소가 배출하는 메탄가스가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란이 있는 가운데 스웨덴 최대 할인매장 가운데 하나인 쿠팡(Coop)사가 세계 최초로 메탄가스 발생량을 90%정도 줄인 소고기를 시판한다고 발표하였다.

지난 1918년에 설립되어 유럽내 1천여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이 회사는 스웨덴의 생명공학 회사인 볼타 그린테크(Volta Greentech)가 개발한 해조류를 이용한 메탄가스 저감제를 사육과정에 급여한 소고기를 시판하는데, 이 소고기는 수년간의 연구에서 인체는 물론 가축에게도 안전한 것으로 판명된 바 있다.

이 메탄가스 저감제를 개발한 회사에 따르면 소는 연간 100kg 정도의 메탄가스를 발생하는데 최근 거세우에 대한 사양 시험에서 도축 전 3개월간 저감제를 급여한 결과 메탄 발생량이 90%정도 줄었으며, 일반 농가 사양시험에서도 평균 80%정도의 저감 효과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소고기를 시판하는 쿠팡사 관계자들은 소비자들에게 지구 환경에 도움을 주는 소고기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제한된 매장에서 판매되는 소고기는 메탄이 낮다는 의미인 롬(LOME)이라는 브랜드로 스테이크용이나 안심 외에 다진고기 형태로 시판되는데, 가격은 500g 한팩에 5.8유로(7800원)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이같은 해조류를 이용한 메탄가스 활용을 검토하는 유명기업으로는 덴마크 최대 유제품 식품회사인 알라푸드(Arla Foods), 미국 아이스 크림회사인 벤 앤 제리(Ben & Jerry's), 미국 햄버거 업체인 버거킹(Burger King) 등이 있으며, 세계 최대 도축 및 육류 가공 유통업체인 브라질의 제이비에스(JBS S.A.)사도 소 사육과정에 메탄가스 저감제 활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웨덴에서 세계최초로  
메탄가스 발생량을  
90% 줄인 소고기를  
시판한다**

2022년 1월 기준 9200만 두의 소를 사육하고 있는 미국에서 도축하기 전에 일정기간 곡물 사료를 먹인 소고기와 풀사료만을 급여한 고기 사이에 맛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영양학적으로 어느 것이 더 좋고 건강에 더 유익하다고 할 수 없으며, 환경 영향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학(Oklahoma State University) 축산식품학과 연구진이 발표하였다.

통상 미국에서 사육되는 비육우의 97%정도는 출하되기 160-180일 전후로 집단 사육시설에서 곡물 사료 위주로 비육되는데, 출하 체중의 50%이상이 이 시기에 형성되며, 평균적으로 생후 15개월령에 출하 도축된다. 반면에 풀사료 사육방식은 도축시 까지 풀사료만을 급여하는 방식으로, 급여되는 영양소 함량의 차이로 출하 월령이 더 길어 18개월령에서 24개월령 사이에 출하되며, 출하 체중도 곡물 사육 시에는 600kg전후인 반면 550kg전후로 알려져 있다.

연구진은 일반적으로 풀사료 급여 소고기가 비타민과 미량광물질의 함량이 높고 포화 지방산의 함량이 약간 낮은 것은 사실이나 그 수준 자체로 곡물 사육한 고기에 비해 더 건강에 좋다고 할 수는 없는 수준이라며, 반면에 곡물 사육을 한 고기는 근육 내 지방함량이 더 축적되어 풍미가 있고 조직감, 육즙이 많아 맛이 좋다고 느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어느 고기가 더 좋냐 하는 문제는 개인의 취향으로 미국 내 전체 소고기 시장에서 풀사료만을 급여한 고기 소비량이 5%정도에 불과한 점도 언급하였다. 또한 환경 영향 측면에서도 풀사료 사육 소고기는 더 오랜기간 사육하면서도 출하 체중은 크지 않아 단기 비육하는 곡물 사육 방식에 비해 영향 요인이 더 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미국내에는 비육우 집중 사육시설이 3만 여개 이상이 있으나, 1천 두 미만 이 93%에 이르고, 출하 물량 기준으로는 1천두 이상을 수용하는 대규모 시설에서 전체 출하우의 85%를 차지하며, 그중에 3만2천두이상의 대형 시설에서 전체 시장의 40%를 장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풀 사료만을 급여한  
소고기는 큰 차이가 없으며  
환경에 영향 요인이  
더 클 수 있다**



#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및 이전등기의 필요성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호가하는 등 그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허술하게 체결한다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다분하므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매매계약 시 기본사항 확인에 충실 등기부등본, 신분증 등 서류 등

먼저 매매하고자 하는 목적물(토지 및 건물 등)의 등기부등본을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여 발급받거나 가등기나, 가처분 및 압류, 저당권, 임차권등기 등이 기재되어 있는지 등 소유권 분쟁과 관련한 사항을 확인하고 가등기나 가처분 및 압류 등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말소하는 조건을 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매매 목적물의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매도인등으로부터 교부받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상대방이 가져온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믿지 말고 반드시 본인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합건물이 아닌 토지 및 건물이 별도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매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할 것이며,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소유자의 주소, 건물의 구조, 층수, 용도, 면적, 특약사항 등을 자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소유자와 매매계약 체결 당사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만약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대리인이라면 소유자로부터 위임받았다는 위임장과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고 위임장에 소유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었는지 확인하여 대리인의 신분증을 복사하여 매매계약서에 첨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법률용어 설명

#### ✦ 가등기

장래에 이루어진 본등기에 대비해 미리 그 순위 보전을 위해 하는 예비적 등기로서, 가등기가 이루어진 후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소급됩니다.

#### ✦ 가처분

금전채권이 아닌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처분금지 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즉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등기에 해당합니다.

#### ✦ 압류

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아 법원이 다른 사람의 재산처분이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국세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 채권자가 금전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압류 등이 있습니다.

#### ✦ 저당권

채무가 변제되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가 저당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대출에 따른 근저당권 등이 있습니다.

#### ✦ 임차원등기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전세보증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법원의 명령에 따라 하는 등기



##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계약서 작성후 지체없이 소유권이전등기

계약서상 매매대금 등 숫자로 기재된 부분은 위조 및 변조 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숫자 옆에 한자나 한글을 같이 기재하는 것이 좋고,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당사자간의 간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당사자의 인감도장을 날인받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추후 소송 등 혹시 모를 분쟁을 대비하여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 특약사항으로 합의내용, 위험부담, 계약해제와 위약금, 세금, 공과금 등 내용을 자세하게 기재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여전히 부동산 소유자는 매도인이라 할 것으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지위에 있을 뿐으로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이러한 법리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의한 등기가 유효기간의 경과로 무효로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그 경우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역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라고(대법원 2013다26647호 판결) 판시하고 있는바,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 및 사용하고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 부동산에 대한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 여전히 부동산 소유자는

### 매도인이라 할 것으로,

###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부동산소유권을

### 이전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 가지고 있는 지위에 있을 뿐으로

###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수한 후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게 될 수 있고, 매수자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즉시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받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시기 바라며,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않을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은 후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022

# 7월 한우동향분석

글.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

(한우사육) 2022년 7월 한우 사육두수 및 가임암소 두수 전년 동월 · 전월 대비 증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암소 자육감축 필요

- 한우 사육두수 전년 동월 대비 4.90%, 전월 대비 1.22% 증가
- 가임암소는 전년 동월 대비 5.22%, 전월 대비 2.01% 증가
- 연령별 사육두수 전년 동월 대비 1세 미만은 3.56% 증가, 1세~2세 5.47% 증가, 2세 이상 5.30% 증가

(등급판정) 6월 한우 등급판정두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전월 대비 감소

- 1등급 이상 출현율 73.6%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전월 대비 동일
- 1++등급 : 23.1%, 1+등급 : 25.5%, 1등급 : 25.0%

(도매 및 산지가격) 6월 한우 도매 평균 도매가격 전년 동월 대비 하락, 전월 대비 상승, 큰 소 · 송아지 모두 전년 동월 대비 하락, 큰 소 및 6~7개월령 송아지 전월 대비 상승

- 한우 큰 소(600kg) 암소 가격 전년 동월 대비 11.6% 하락, 전월 대비 4.2% 상승
- 한우 암송아지(6~7개월령) 가격 전년 동월 대비 22.2% 하락, 전월 대비 3.0% 상승

(배합사료 · 정액판매) 배합사료 생산량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정액 판매량 전년 동일

- 6월 배합사료 생산량은 전년 동월 대비 4.1% 증가
- 6월 정액판매량 전년 동월과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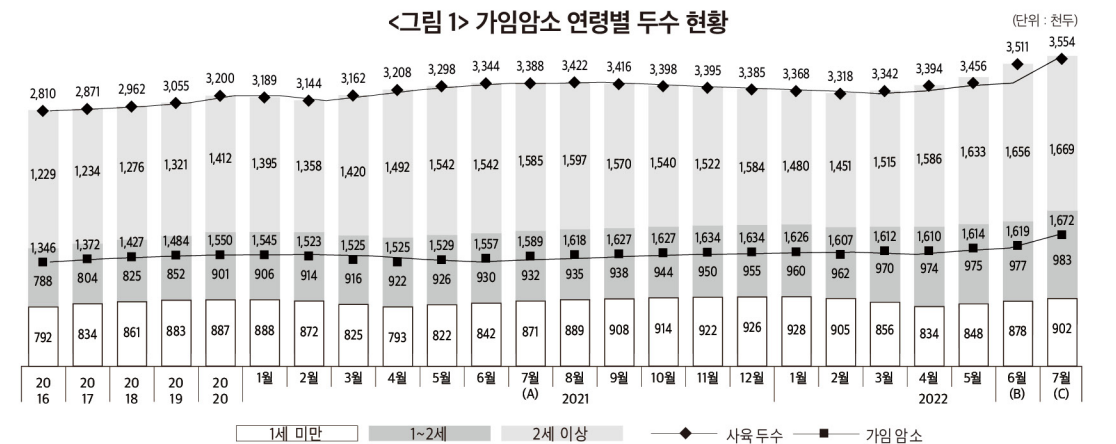
(쇠고기 수입) 6월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월 대비 1.7% 증가, 전월 대비 15.8% 감소

- 전월 대비 냉장육 수입량 10.1% 감소, 냉동육 수입량 17.3% 감소

## 1. 한우 사육동향

☑ 2022년 7월 한우 사육두수 및 가임암소 두수 전년 동월 및 전월 대비 증가, 한우 수급 안정화를 위한 암소 자육적 감축 필요

- 한우 사육두수는 355만 4천 두로 전년 동월(338만 8천 두) 대비 4.90%(16만 6천 두) 증가, 전월(351만 1천 두) 대비 1.22%(4만 3천 두) 증가
- 가임암소는 167만 2천 두로 전년 동월(158만 9천 두) 대비 5.22%(8만 3천 두) 증가, 전월(163만 9천 두) 대비 2.01%(3만 3천 두) 증가
- 연령별 사육두수는 전년 동월 대비 1세 미만은 3.56%(3만 1천 두), 1~2세는 5.47%(5만 1천 두), 2세 이상은 5.30%(8만 4천 두) 증가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가격조사위원회 '소이력관리현황'

- 사육 농장수는 89,016농장으로 전년 동월(89,617농장) 대비 0.67%(601농장) 감소, 전월(89,153농장) 대비 0.15%(137농장) 감소
- 농장 당 사육두수는 39.9 두로 전년 동월(37.8 두) 대비 5.56%(2.1 두) 증가, 전월(39.4두) 대비 1.27%(0.5두) 증가

<표 1> 한우 사육 현황

(단위 : 호, 천두, %, 두)

구분	농장수	사육두수	가임암소두수	송아지두수	연령별 두수			농장당 사육두수
					1세 미만	1~2세	2세 이상	
2016	97,498	2,810	1,346	723	792	788	1,229	28.8
2017	94,107	2,871	1,372	784	834	804	1,234	30.5
2018	92,238	2,962	1,427	899	861	825	1,276	32.1
2019	89,616	3,055	1,484	135	883	852	1,321	34.1
2020	88,879	3,200	1,550	55.5	887	901	1,412	36



구분		농장수	사육 두수	가임 암소두수	송아지 두수	연령별 두수			농장당 사육두수
						1세 미만	1~2세	2세 이상	
2021	1월	88,933	3,189	1,545	58.2	888	906	1,395	35.9
	2월	88,860	3,144	1,523	65.1	872	914	1,358	35.4
	3월	89,003	3,162	1,525	79.7	825	916	1,420	35.5
	4월	89,295	3,208	1,525	131.5	793	922	1,492	35.9
	5월	89,494	3,298	1,529	142.5	822	926	1,542	36.8
	6월	89,576	3,344	1,557	123.8	842	930	1,571	35.4
	7월(A)	89,617	3,388	1,589	101.7	871	932	1,585	37.8
	8월	89,658	3,422	1,618	88.7	889	935	1,597	38.2
	9월	89,678	3,416	1,627	77.9	908	938	1,570	38.1
	10월	89,645	3,398	1,627	67.2	914	944	1,540	37.9
	11월	89,657	3,395	1,634	62.7	922	950	1,522	37.9
	12월	89,720	3,385	1,634	59.7	926	955	1,504	37.7
2022	1월	89,559	3,368	1,626	61	928	960	1,480	37.6
	2월	89,378	3,318	1,607	58.2	905	962	1,451	37.1
	3월	89,378	3,342	1,612	44.1	856	970	1,515	37.4
	4월	89,343	3,394	1,610	87.7	834	974	1,586	38.0
	5월	89,242	3,456	1,614	89.5	848	975	1,623	38.7
	6월(B)	89,153	3,511	1,639	78.6	878	977	1,656	39.4
	7월(C)	89,016	3,554	1,672	66.5	902	983	1,669	39.9
증감률	전년동월(C/A)	△0.67	4.90	5.22	△34.61	3.56	5.47	5.30	5.56
	전월(C/B)	△0.15	1.22	2.01	△42.87	2.73	0.61	0.79	1.27

자료 : 통계청, 축산물품질평가원

## 2. 한우 등급판정 동향

### ☑ 6월 한우 등급판정두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전월 대비 감소

- 6월 한우 등급판정두수는 64,617두로 전년 동월(60,949두) 대비 6.0%(3,668두) 증가, 전월(67,373두) 대비 4.1%(2,756두) 감소

- 성별비율은 암소 51.2%, 수소 0.6%, 거세우 48.1%

\* 전월대비 : 암소 1.5%p↑, 수소 0.1%p↓, 거세우 1.4%p↓, 거세율 0.2%p↑

<표 2> 한우 성별 등급판정두수

(단위 : 두, %)

구분	계	암	수	거세	수소거세율
전년누계 (‘21.1~6월)	376,103	173,459	4,424	198,220	97.8
	100.0	46.1	1.2	52.7	
금년누계 (‘22.1~6월)	404,202	188,755	3,233	212,214	98.5
	100.0	46.7	0.8	52.5	

구분	계	암	수	거세	수소거세율
전년동월 (‘21.6월)	60,949	29,952	616	30,381	98.0
	100.0	49.1	1.0	49.8	
전월(‘22.5월)	67,373	33,502	492	33,379	98.5
	100.0	49.7	0.7	49.5	
당월(‘22.6월)	64,617	33,114	409	31,094	98.7
	100.0	51.2	0.6	48.1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 ☑ 6월 한우 등급판정 결과 육질 1등급 이상 출현율 73.6%, 전년 동월 대비 0.7%p 감소, 전월 대비 0.8%p 감소

- 6월 1등급 이상 등급별 출현율은 1++등급 23.1%, 1+등급 25.5%, 1등급 25.0%

- 1등급 이상 전체 출현율은 전월(74.94%) 대비 0.1%p↑, 1++등급 1.2p↓, 1+등급 0.3%p↑, 1등급 0.1%p↑

- 전년 동월(73.0%) 대비 1등급 이상 전체 출현율 0.6%p↑, 1++등급은 1.2%p↑, 1+등급 0.2%p↓, 1등급은 0.4%p↓

- 전년 누계(74.3%) 대비 1등급 이상 전체 출현율 0.8%p↑, 1++등급은 2.5%p↑, 1+등급은 0.4%p↓, 1등급은 1.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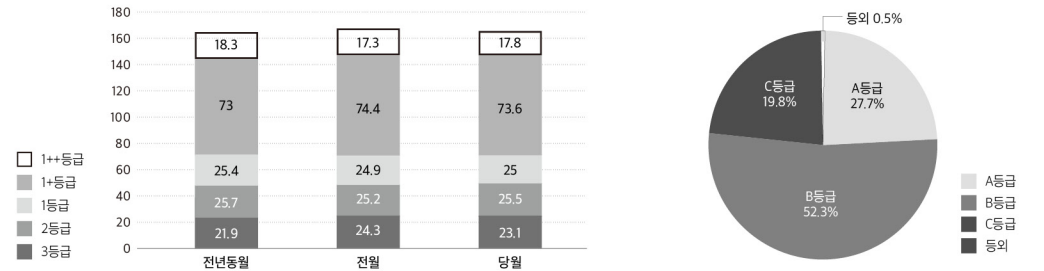
<표 3> 한우 등급별 출현율 추이

(단위 : 두, %, %p)

구분		판정두수	육질등급						육량등급			등외
			1++	1+	1	소계	2	3	A	B	C	
2016		737,476	9.6	30.4	29.4	69.3	22.8	7.6	22.9	47.2	29.6	0.2
2017		742,536	10.1	33.3	28.7	72.1	20.3	7.4	21.2	47.1	31.4	0.3
2018		736,354	12.2	30.4	30.4	72.9	19.4	7.3	20.5	47.6	31.7	0.3
2019		765,297	15.7	28.3	29.9	74.0	18.6	7.1	20.7	48.2	30.8	0.3
2020		762,749	22.5	25.5	26.1	74.1	18.2	7.4	25.0	50.5	24.2	0.3
2021		794,238	23.8	25.8	25.3	74.9	17.5	7.3	24.4	52.4	23.0	0.3
2021	6월(A)	60,949	21.9	25.7	25.4	73.0	18.3	8.4	24.9	52.7	22.1	0.3
	1~6월(B)	376,103	22.5	25.9	25.8	74.3	17.9	7.5	23.8	52.1	23.9	0.3
2022	'21.5월(C)	67,373	24.3	25.2	24.9	74.4	17.3	7.9	27.6	52.0	20.1	0.3
	6월(D)	64,617	23.1	25.5	25.0	73.6	17.8	8.4	27.7	52.3	19.8	0.2
	1~6월(E)	404,202	25.0	25.5	24.6	75.1	17.2	7.4	25.2	52.3	22.2	0.2
전월대비(D-C)		△2,756	△1.2	0.3	0.1	△0.8	0.5	0.5	0.1	0.3	△0.3	△0.1
전년동월대비(D-A)		3,668	1.2	△0.2	△0.4	0.6	△0.5	0.0	2.8	△0.4	△2.3	△0.1
전년누계대비(E-B)		28,099	2.5	△0.4	△1.2	0.8	△0.7	△0.1	1.4	0.2	△1.7	△0.1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그림 2> 육질 1등급 이상 출현율(좌) 및 육량 등급 출현율(우)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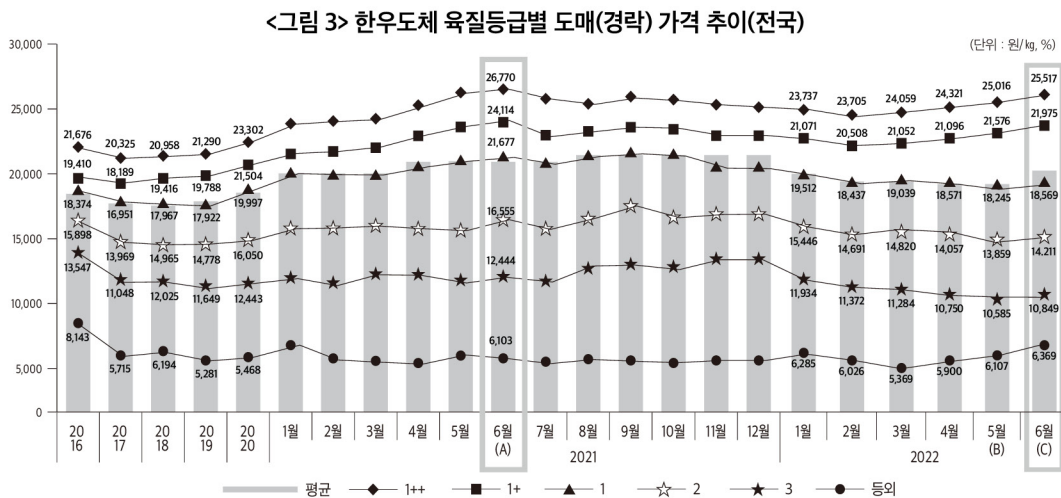


### 3. 한우 도매 및 산지가격 동향

#### ☑ 6월 한우 평균 도매가격 전년 동월 대비 하락, 전월 대비 상승

• 6월 1등급 기준 도매가격(18,569원/kg)은 전년 동월(21,677원/kg) 대비 14.3%(3,108원/kg) 하락, 전월 (18,245원/kg) 대비 1.8%(324원/kg) 상승

- 한우도체 kg당 평균 도매가격(19,644원/kg)은 전년 동월(21,737원/kg) 대비 9.6%(2,093원/kg) 하락, 전월(19,503원/kg) 대비 0.7%(141원/kg) 상승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표 4> 한우도체 육질등급별 도매(경락) 가격 추이(전국)** (단위 : 원/kg, %)

구분		1++	1+	1	2	3	등의	평균
2016		21,676	19,410	18,374	15,898	13,547	8,143	18,116
2017		20,325	18,189	16,951	13,969	11,048	5,715	16,719
2018		20,958	19,416	17,967	14,965	12,025	6,194	17,772
2019		21,290	19,788	17,922	14,778	11,649	5,281	17,965
2020		23,302	21,504	19,997	16,050	12,443	5,468	19,891
2021	6월(A)	26,770	24,114	21,677	16,555	12,444	6,103	21,737
2022	5월(B)	25,016	21,576	18,245	13,859	10,585	6,107	19,503
	6월(C)	25,517	21,975	18,569	14,211	10,849	6,369	19,644
증감율	전년동월(C/A)	△4.7	△8.9	△14.3	△14.2	△12.8	4.4	△9.6
	전월(C/B)	2.0	1.8	1.8	2.5	2.5	4.3	0.7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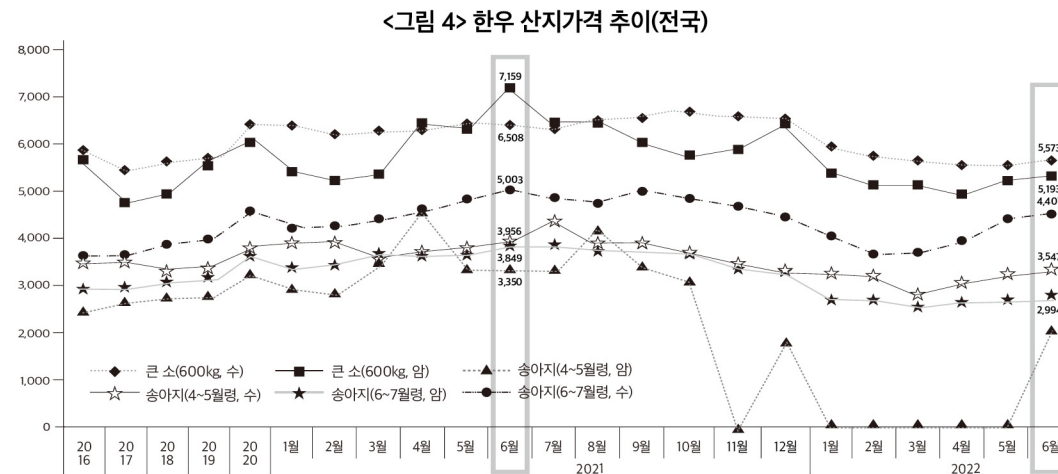
#### ☑ 6월 한우 산지가격 큰 소와 송아지 모두 전년 동월 대비 하락, 큰 소 및 송아지(6~7개월령) 전월 대비 상승

• 6월 큰 소(600kg) 산지가격은 암소의 경우 5,753천원으로 전년 동월(6,508천원) 대비 11.6%(755천원) 하락, 전월(5,521천원) 대비 4.2%(232천원) 상승

- 수소의 경우 5,193천원으로 전년 동월(7,159천원) 대비 27.5%(1,966천원) 하락, 전월(5,163천원) 대비 0.6%(30천원) 상승

• 6월 송아지(6~7개월령) 산지가격은 암송아지의 경우 2,994천원으로 전년 동월(3,849천원) 대비 22.2%(855천원) 하락, 전월(2,907천원) 대비 3.0%(87천원) 상승

- 수송아지의 경우 4,407천원으로 전년 동월(5,003천원) 대비 11.9%(596천원) 하락, 전월(4,208천원) 대비 4.7%(199천원) 상승



자료 : 농협 축산정보센터 '월별산지가격동향'

주 : 2020년 송아지(4~5월령)의 경우 3월과 5월은 코로나로 인한 가축사정 임시폐쇄로 가격자료 없음

**<표 5> 한우 산지가격 추이** (단위 : 천원, %)

구분		큰소(600kg)		송아지(4~5월령)		송아지(6~7월령)	
		암	수	암	수	암	수
2016		5,816	5,650	2,465	3,485	2,900	3,550
2017		5,406	4,733	2,612	3,444	2,919	3,572
2018		5,599	4,911	2,725	3,272	3,118	3,841
2019		5,646	5,476	2,790	3,394	3,212	3,930
2020		6,114	5,446	3,060	3,711	3,435	4,295
2021	1월	6,372	5,372	2,990	3,877	3,402	4,196
	2월	6,209	5,207	2,880	3,891	3,436	4,263
	3월	6,263	5,348	3,500	3,641	3,594	4,328
	4월	6,322	6,434	4,500	3,597	3,729	4,562
	5월	6,379	6,289	3,350	3,709	3,778	4,785
	6월(A)	6,508	7,159	3,350	3,956	3,849	5,003
2022	1월	6,026	5,370	-	3,329	2,864	3,842
	2월	5,882	5,148	-	3,198	2,862	3,640
	3월	5,701	5,154	-	2,893	2,735	3,683
	4월	5,600	4,967	-	3,048	2,868	4,001
	5월(B)	5,521	5,163	-	3,379	2,907	4,208
	6월(C)	5,753	5,193	2,278	3,547	2,994	4,407
증감율	전년동월(C/A)	△11.6	△27.5	△32.0	△10.3	△22.2	△11.9
	전월(C/B)	4.2	0.6	-	5.0	3.0	4.7

자료 : 농협 축산정보센터 '월별산지가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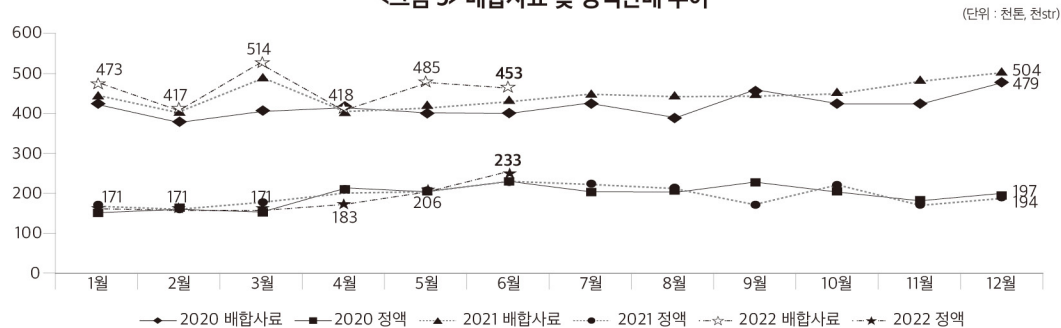


## 4. 배합사료 생산 및 한우정액 판매 동향

☑ 2022년 6월 배합사료 생산량 전년 동월 대비 증가 한우 정액판매량 전년 동월 동일

- 6월 배합사료 생산량은 453천 톤으로 전년 동기(435천 톤) 대비 4.1% (18천 톤) 증가
- 6월 한우 정액판매량은 233천 str로 전년 동기간(233천 str) 대비 동일

<그림 5> 배합사료 및 정액판매 추이



자료 : 한국사료협회,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

<표 6> 배합사료 및 정액판매 추이

(단위 : 천톤, 천str)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배합 사료	2020	426	384	412	414	404	402	427	390	457	428	430	479	5,053
	2021	442	406	490	406	423	435	451	444	451	453	482	504	5,387
	2022	473	417	514	418	485	453							2,760
정액	2020	157	168	155	213	207	231	207	211	227	205	186	194	2,361
	2021	172	162	179	209	209	233	226	214	183	220	170	197	2,374
	2022	171	171	171	183	206	233							1,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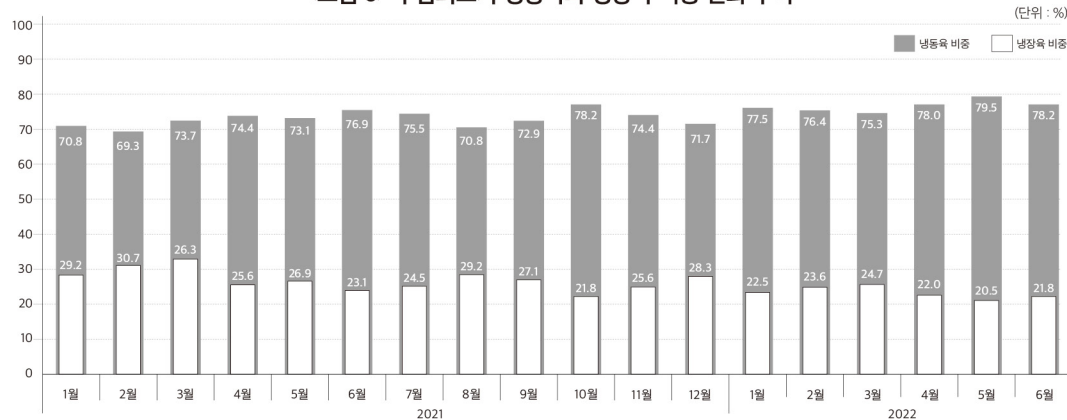
자료 : 한국사료협회,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

## 5. 쇠고기 수입현황

☑ 2022년 6월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월 대비 1.7%(616톤) 증가, 전월 대비 15.8%(7,062톤) 감소

- 6월 쇠고기 수입량은 3만 7,607톤으로 전년 동월 3만 6,991톤 대비 1.7%(616톤) 증가, 전월 44,669톤 대비 15.8%(7,062톤) 감소
  - 전월 대비 냉장 및 냉동 쇠고기 각각 10.1%(920톤), 17.3%(6,142톤) 감소
- 6월 부위별 쇠고기 수입물량은 전월 대비 등심 8.5%(289톤), 양지 30.7%(1,327톤), 갈비 7.9%(1,327톤), 앞다리 20.0%(926톤) 감소
- 6월 국가별 쇠고기 수입량은 전월 대비 미국산이 15.3%(3,745톤) 감소, 호주산이 13.4%(1,846톤) 감소, 기타 국가에서 23.0%(1,471톤) 감소

<그림 6> 수입쇠고기 냉동육과 냉장육 비중 변화 추이



자료 : 수입축산물 부위별 검사실적, 식품의약품안전처

<표 7> 쇠고기 수입 추이

(단위 : 톤, %)

구분		물량			부위별					국별		
		합계	냉동	냉장	갈비	양지	앞다리	등심	기타	미국	호주	기타
2015		297,265	245,952	51,313	115,460	38,582	31,404	42,826	68,993	112,431	164,063	20,771
2016		361,531	301,219	60,312	133,197	35,049	45,295	50,001	97,989	153,181	177,530	30,820
2017		344,271	265,665	78,606	142,659	37,517	42,648	39,031	82,416	168,502	149,935	25,834
2018		415,685	326,531	89,154	151,933	53,737	54,270	55,595	100,150	219,769	167,454	28,462
2019		426,626	339,240	87,386	164,792	57,444	53,881	49,849	100,660	237,624	163,158	25,844
2020		419,469	321,646	97,823	161,018	54,616	54,937	44,522	104,376	228,686	158,293	32,490
2021	1월	34,626	24,503	10,123	11,799	5,164	4,810	3,112	9,741	17,111	14,676	2,839
	2월	26,774	18,547	8,227	10,308	4,057	3,688	2,263	6,458	18,797	5,585	2,392
	3월	41,272	30,406	10,866	13,090	7,874	5,548	4,256	10,504	21,154	16,657	3,461
	4월	37,495	27,888	9,607	13,334	5,640	4,848	3,744	9,929	20,470	13,298	3,727
	5월	39,815	29,116	10,699	12,337	5,640	5,240	4,426	12,172	20,794	16,220	2,801
	6월(A)	36,991	28,430	8,562	12,020	5,384	4,740	3,642	11,205	23,288	11,009	2,694
	7월	38,455	29,032	9,423	13,073	3,978	5,279	2,681	13,444	21,096	14,516	2,843
	8월	37,402	26,487	10,915	14,018	4,247	4,930	4,146	10,061	24,686	9,681	3,035
	9월	38,746	28,247	10,499	12,976	4,919	5,486	5,043	10,322	22,435	13,205	3,106
	10월	42,494	33,249	9,244	15,505	5,723	5,488	5,144	10,634	24,630	13,952	3,912
	11월	39,704	29,544	10,161	12,394	6,475	5,737	4,630	10,468	18,309	17,846	3,549
	12월	39,018	27,963	11,055	12,627	6,230	4,831	3,861	11,469	22,104	13,472	3,442
누계		452,792	333,412	119,381	153,481	65,331	60,625	46,948	126,407	254,874	160,117	37,801
2022	1월	39,218	30,375	8,843	12,121	7,403	5,285	3,964	10,445	15,987	17,969	5,262
	2월	34,349	26,232	8,117	13,150	6,485	4,737	2,640	7,337	22,977	8,291	3,081
	3월	39,926	30,050	9,876	14,508	8,339	4,291	3,412	9,376	23,943	11,821	4,162
	4월	36,355	28,367	7,988	14,449	7,439	4,073	2,940	7,454	21,141	9,854	5,360
	5월	44,669	35,532	9,137	16,877	9,480	4,641	3,490	10,181	24,545	13,732	6,392
	6월(B)	37,607	29,390	8,217	15,550	6,572	3,715	3,192	8,578	20,800	11,886	4,921
	누계	232,124	179,946	52,178	86,655	45,718	26,742	19,638	53,371	129,393	73,553	29,178
증감률 전년동기(B/A)		1.7	3.4	△4.0	29.4	22.1	△21.6	△12.4	△23.4	△10.7	8.0	82.7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축산물 검사실적 순기보'



# CPTPP 이후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오염 와규 수입위험



## CPTPP 가입을 추진하는 대만, 일본정부 요구로 후쿠시마(福島県) 산 농축산물 수입 해금

- 대만은 22년 2월 21일, 2011년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사고 이후, 취해온 후쿠시마 및 인근 5개현 식품수입금지 조치 해제를 발표
  - 수입금지조치가 해제되는 지역은 후쿠시마, 이바라기, 토치키, 군마, 치바의 5개현이며, 이는 11년만의 수입재개
  - 앞으로 방사성물질 검사보고서와 산지증명서 첨부를 조건으로 수입을 인정하게 됨, 다만 야생조수 고기, 버섯류는 여전히 수입금지
- 이번 조치는 2021년 9월에 가입 신청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PTPP) 가입을 위

## 한 사전 포석

- 일본은 대만의 CPTPP 가입 신청 이후, 후쿠시마 및 인근지역의 농축수산물 수입해금을 강하게 요구해 왔음

##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과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광범위한 농축수산물의 방사성물질 오염 사건 발생

-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발생 및 피해
  - 동일본 대지진은 3월 11일 14시 46분, 일본 동북지방 태평양 연안에서 발생한 지진, 지진규모는 마그네튜드(M) 9.0으로 일본 지진 관측 사상 최대
  - 최고 높이 40.1m의 해일이 발생, 동북지방 및

1) 베크렐(Bq)은 원자핵이 방사선을 내면서 붕괴되어 가는 비율을 표시한 방사능 단위, 1베크렐(Becquerel)은 1초에 1개의 원자핵이 붕괴하면서 방출하는 방사능을 말한다. 방사선을 발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03년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프랑스의 물리학자 앙투안 앙리 베크렐(1852~1908)의 이름을 땄다.

관동지방에 큰 피해가 발생, 피해면적은 561km<sup>2</sup>에 이르는, 서울면적(605km<sup>2</sup>)에 필적

- 인명피해는 사망 및 행방불명 18,425명, 중경상자 6,157명
- 동경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 대지진 및 해일이 원전 냉각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원자로의 초고온 수소 폭발로 52경(京) 베크렐<sup>1)</sup>(추정)이라는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방출 (※ 경(京)은 1조의 1만 배)
  - 국제 원자력 사고등급(INES), 7단계 중 최상위 7등급(심각한 사고)으로 분류되며, 세계역사상 7등급 사고는 구소련의 체르노빌(1986년 4월 발생)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2건뿐
  - 2022년 현재 폐로작업이 진행 중이며, 완료 시점은 2041~2051년경
- 방사성 물질의 방출 및 농축수산물 오염
  - 이 사고로 기인한 방사성물질로 귀환 곤란 지역은 337km<sup>2</sup>로, 우리나라의 부천시와 김포시를 합친 면적(329km<sup>2</sup>)과 비슷한 수준
  - 2011년, 원전사고 발생연도의 기준치(100Bq/kg) 이상 방사성 오염 농축수산물은 농산물 1,020 건, 축산물 1,098건, 수산물 1,476건으로 나타났으며, 축산물 중에서는 쇠고기가 1,083건으로 축산물의 대부분

## 쇠고기 방사성물질 오염 전국 확산 (오염 벚꽃의 전국 유통)

- 검사 대상 기간 및 핵종 : 원전사고 직후 ~2012년 3월
  - 반감기 1년 이상 핵종인 세슘134(반감기 2.1년), 세슘137(30년) 대상
- 기준치(2014년 4월 이후 적용) : 100Bq/kg (우유는 50Bq/kg)

구 분	검사건수(건), A	100Bq/kg 초과(건), B	기준치 초과 비율(%), A/B
농산물	26,464	592	2.2%
수산물	8,576	1,476	17.2%
축산물	95,330	1,098	1.2%
쇠고기	92,174	1,083	1.2%
돼지고기	544	6	1.1%
닭고기	240	0	-
계 란	419	0	-
우 유	1,919	8	0.4%
기 타	34	1	2.9%
농축수산물 소계	130,370	3,166	2.4%
기타 재배 사육관리 곤란 품목	6,491	1,343	20.7%
계	136,861	4,509	3.3%

자료 : 일본농림수산성(www.maff.go.jp), '농산물에 포함된 방사성 세슘농도 검사결과'/'식품중의 방사성 물질'

주 : 1) 당해 연도는 당해 4월부터 익년 3월까지

2) 우유는 2011년 4월 이후 기준치를 50Bq/kg으로 강화

3) 기타 재배 사육관리 곤란 품목은, 버섯, 산나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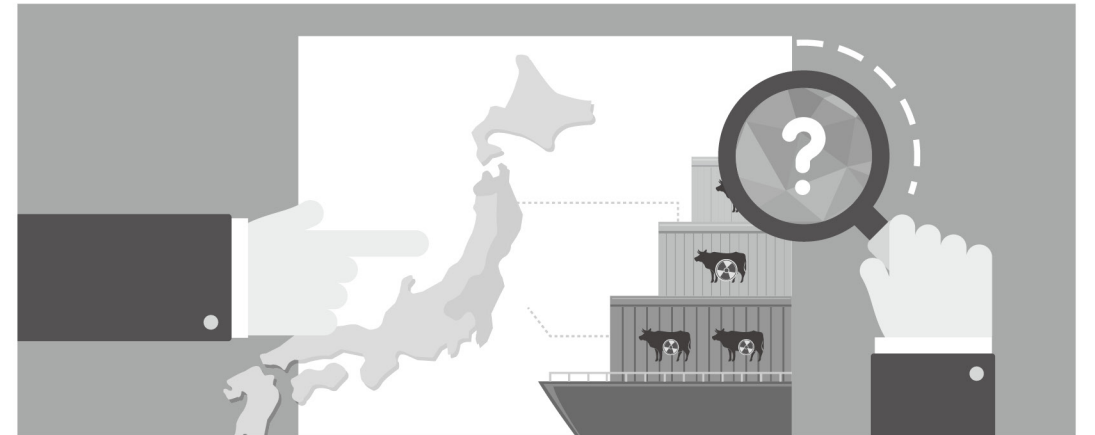
- 기준치 초과 농식품은 총 4,509건으로 검사 건수 대비 3.3% 수준
  - 농축수산물은 검사건수 13만 370건 중 기준치 초과는 3,166건(2.4%)
  - 기준치 초과 비율은 수산물 17.2%, 농산물 2.2%, 축산물 1.2% 순
  - 축산물 기준치 초과 1,098건 중 쇠고기가 1,083건(98.6%)
  - 일본 비육우 및 와규의 방사성 물질 오염은 주로 방사성물질에 노출된 벚짚 및 오염된 토양에서 채취한 목초가 원인인 것으로 지목되었음

#### 쇠고기 방사성물질 오염 전국 확산 (오염 벚짚의 전국 유통)

- 초기 검출사례 요인은 농가가 자가 논에서 수확한 벚짚 중심이었으나, 이러한 사태가 전국적인 문제로 크게 바뀐 시점은 7월 18일로, 미야기현(宮城県) 조사료 유통업자가 오염 벚짚을 전국적으로 유통한 사실이 밝혀지면서임
  - [전국 확산 사태] 7월 18일, 니이가타현(新潟県) 나가오카시(長岡市) 관 내 육용우 농가 2호가 미야기현(宮城県)의 업자로부터 구입한 벚짚(최대 20,600Bq/kg의 세슘 검출)을 육용우에게 급여하고, 이중 한 농가에서 이미 24두의 육용우가 출하되어 유통된 사실이 밝혀짐
  - 이 미야기현(宮城県) 업자는 같은 벚짚을 전국으로 판매했기 때문에, 이 벚짚을 육용우에게 급여한 농가도 전국에 확산되어, 쇠고기 방사성물질 오염은 후쿠시마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퍼지게 됨
  - 이 업자로부터 벚짚을 구입한 농가는 니이가타현(新潟県), 야마가타현(山形県), 이바라기현(茨城県), 사이타마현(埼玉県), 이와테현(岩手県), 시즈오카현(静岡県), 아키타현(秋田県), 군마현(群馬県), 기후현(岐阜県) 등 11개현 134개 농가로 나타남
  - 이러한 농가에서 출하된 육용우는 모두 1,369두였으며, 이중에서 검사가 이루어진 것은 99두 중 19두가 잠정 규제치를 초과하였음
  - 검출건수 비율을 보면,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성물질 오염 소 200두 이상이 이미 소비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후쿠시마현 육용우농가 긴급조사 실시

- 2011년 7월 11일부터 7월 17일 간, 후쿠시마현(福島県) 내 피난지역 및 피난준비지역의 모든 육용우 사육농가 230호와 기타지역의 281호에 대해 긴급 조사
  - 현지 확인, 청취조사, 방사선량 측정 검사 등을 실시
- 또한, 원전사고 이후에 수확한 고농도 세슘에 오염된 벚짚이 현 경계를 넘어 유통됨으로써, 전국의 소 사육에 급여되었기 때문에
- 사고원전 인근지역인 동북, 관동지역에서 원전사고 후에 수확된 벚짚 등이 전국 축산농가에서 사료나 깔짚으로 사용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



#### 후쿠시마현 육용우 출하 제한 및 쇠고기 검사체제 강화

- 2011년 7월 19일, 원자력재해대책특별조치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예에 따라, 후쿠시마현(福島県)에서 사육되는 모든 소의 도축장 출하를 제한
  - 이후, 미야기(宮城), 이와테(岩手), 토치기(栃木) 3개현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취함
- 쇠고기에 대해서는 검사체제를 다음과 같이 강화함으로써, 식품위생법상 잠정 규제치를 초과하는 세슘을 포함하는 쇠고기가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
  - ① 계획적 피난구역, 긴급시 피난준비구역 및 지시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 두수 검사
  - ②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전 농가 (호당 1두 이상) 검사 실시

#### 출하 제한 해제와 소의 방사성 물질 오염 취약성

- 2011년 8월 들어, 추가적인 오염 쇠고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8월 중 모든 현의 출하제한이 해제되었음
- 한편, 돼지, 닭에 비해 쇠고기가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기 쉬운 것은, 방사성 물질 오염 위험이 높은 벚짚 급여 때문
  - 돼지, 닭은 소화기관 구조가 소와 다르기 때문에, 벚짚 및 목초는 소화할 수 없어, 사료로 곡물 및 그 부산물 등을 급여하고 벚짚은 급여하지 않음
  - 결과적으로, 돼지고기, 닭고기에 대한 검사에서는 방사성 오염사례가 거의 없었음

#### 방사성 물질 오염 쇠고기 유통 시장 충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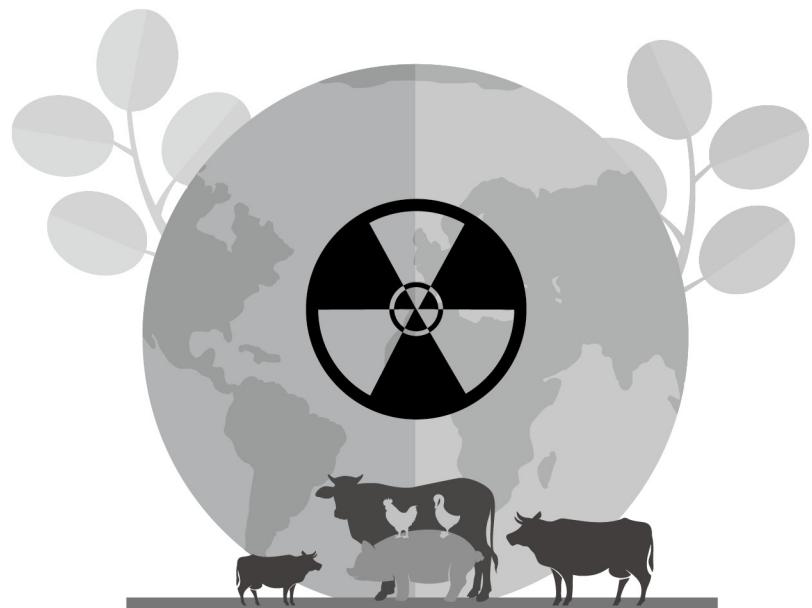
- 미야기현(宮城県) 업체가 취급한 세슘오염 벚짚이 전국에 판매되어, 그 벚짚을 섭취한 쇠고기가 전국에 판매된 사건은, 일본에서 식품유통의 복잡성을 대변하고 있음



- 아울러 기준치를 초과한 세슘 오염 쇠고기가 이미 소비되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공포감을 심어 주었음
  - 규제치를 초과한 세슘의 최대치는 7월 13일 요코하마(横浜)에서 발견된 4,350Bq/kg(현재 기준치 100Bq/kg의 약 44배)이었음
- 그결과 쇠고기 소비가 급락하였으며, 도축장 작업자 사이에서는 방사성오염 소를 취급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퍼지기도 함
- 방사성 물질은 일정량 이상이 인체에 들어오면, 암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반감기가 길어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침
  -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대표적인 방출 방사성 물질인, 세슘137의 경우, 반감기는 30년에 이름

## 원전사고 이후 후쿠시마현(福島県)의 농업 및 축산업 영향

- 후쿠시마현(福島県) 축산업은, 농업 주요 부문으로, 쌀농사 다음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
  - 재해발생 이전인 2010년도 축산업 생산액은, 농업 생산액 2,330억 엔의 23.2%(541억 엔)를 차지하였음
  - 2010년도 축산업 중 육용우 비중은 28.7%(155억 원)로 닭의 31.8% 다음으로 높음



- 재해발생 이후 축산업 생산액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특히 육용우 생산 감소세가 두드러짐
  - 재해발생 다음연도인 2012년도 축산업 생산액은 388억엔으로 2010년도의 71% 수준까지 떨어짐
  - 2012년도 육용우 생산액은 83억 엔으로 2010년도 생산액 155억 엔의 53% 수준까지 하락

## 원전사고 이후 후쿠시마산 쇠고기에 대한 시장 및 소비자 반응

- 원전 사고 직후 후쿠시마산 쇠고기 지육 도매가격은 크게 하락
  - 2011년 3월 이전, 동경 중앙시장에서 후쿠시마산 쇠고기 도매가격은 전국평균대비 조금 높은 수준이었으나, 원전사고 직후인 2011년 4월에는 전국평균 대비 89.8% 수준으로 하락
- 거래가 재개된 이후, 2011년 10월, 후쿠시마산 쇠고기 도매가격은 전국평균의 44.4% 수준까지 급락
  - 후쿠시마산 쇠고기의 방사성 물질 오염문제가 본격화된 8월에는, 출하제한으로, 동경 중앙시장 거래는 전무
- 다음해인 2012년에는 회복되었으나, 전년 동기 대비 7할 수준
  - 전국대비 후쿠시마산 가격 비 : (11.2.) 100.6% → (12.2.) 71.8%
- 2020년 후쿠시마산 쇠고기 가격은 전국 평균대비 약 85% 수준 유지
- 동경 중앙 도매시장의 소 지육 도매가격 추이 (단위 : 엔, %)

구분	2011년				2012년		
	2월	3월(원전사고)	4월	10월	1월	2월	3월
전국(A)	1,741	1,700	1,683	1,557	1,588	1,589	1,613
후쿠시마(B)	1,752	1,704	1,512	692	1,185	1,141	1,138
비율(B/A)	100.6	100.2	89.8	44.4	74.6	71.8	70.6

자료 : 일본농림수산성(동경 중앙도매시장 자료)

주 : 1) 전국 평균가격은 원전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현 및 인근 3개현(미야기현, 이와테현, 토치기현)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평균가격

2) 소 지육 도매가격은 화우거세우 지육가격을 평균한 값

## 방사성 오염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 우려는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 일본 소비자청이 2022년 3월 8일 발간한 「소문(방사성) 피해에 관한 소비자의 식 실태조사 보고서」주요 내용

### <주요 조사결과>

- ‘평소 식품 구입시, 그 식품이 어느 지역에서 생산되었는지를 신경쓰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일본방사능 와규 수입위험	
연재 ·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경 쓴다’61%, ‘신경 쓰지 않는다’ 35.7%, ‘잘 모르겠다’ 3.4%로 과반수이상 이 산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li> <li>• ‘식품 산지를 신경 쓰는 이유’에 대한 설문에서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답자 11.2%가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지 않는 식품을 사고 싶어서’라고 밝힘</li> </ul> </li> <li>• ‘방사성물질 오염 우려와 관련하여, 특히 산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식품은 무엇 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쇠고기라고 응답한 비율은 4.9%로, 채소(8.8%), 어패류(7.1%), 쌀(7.0%), 과 일(5.6%) 다음으로 높음</li> </ul> </li> </ul>	

### 원전사고 이후 해외 국가 등의 쇠고기 및 육류 수입 규제 동향

- 2011년 방사성 물질에 의한 농축수산물 오염사고 이후,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기금육)에 대해 대부분 국가에서 수입정지, 방사성물질 검사 증명 요구, 수입국 에서의 검사강화 등의 규제조치를 취함
  - 우리나라(한국)는 ‘방사성물질검사증명’을 요구
- 2022년 2월 현재, 수입정지를 유지하는 국가는 중국, 마카오 2개국이며, 우리나라 를 비롯한 러시아, 대만, 홍콩 4개국은 방사성물질 검사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음

일본 후쿠시마(福島)산 육류 수입규제 국가별 동향		
구 분	2011년 5월	2022년 2월
수입정지 국가	17개국 (중국, 대만 등)	2개국(중국, 마카오)
방사성물질검사증명	24개국(한국, EU 등)	4개국(러시아, 대만, 한국, 홍콩)
수입국 검사강화	11개국(미국, 인도 등)	-
수입국 통상검사	2개국 (호주, 기니아)	49개국 및 지역

자료 : 「원전사고에 따른 제외국·지역에 의한 수입규제의 철폐·완화 동향」(55개국·지역), 일본농림수산성. 2022년 2월

우리나라의 농축수산물별 일본 지역별 수입규제 현황(2022년 2월)				
구분	쌀	채소, 과일	우유, 유제품	수산물
수입정지	후쿠시마, 미야기			8개 현
수입정지, 검사증명		5개 현(후쿠시마)	2개 현	
방사성물질 검사증명	11개현	8개 현	11개 현	8개 현
산지증명	6개현 및 기타지역	6개현 및 기타지역	6개현 및 기타지역	8개 현 및 기타지역

한우마당  
2022.08 vol.189

## 후쿠시마 제1 원전 처리수의 해양방출의 논점과 주요국가 국민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 방사성 오염 냉각수 방출 승인 : 2022년 5월 18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처리수<sup>2)</sup>의 해양방출계획을 승인(일본 NHK방송 보도)
- 주요국 국민의 인식 : 일본 부흥청(復興庁)<sup>3)</sup>은 2022년 4월 26일, 처리수 인식에 대한 일본 및 해외 9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공표
  - 동경대학 및 후쿠시마대학 공동으로 2022년 3월 22일부터 7일간
  - 조사대상 국가는 일본을 비롯한 한국, 중국, 대만, 싱가포르, 러시아,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 10개국
  - 조사 대상자는 20세 이상 남녀 각각 150명씩, 300명이었으며, 10개 국가에서 모두 3,000명의 회신을 확보
- 조사결과 : 일본정부 방침대로 처리수가 해양방출 될 경우, 후쿠시마산 농축수 산물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응답자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후쿠시마(福島)산 농축수산물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응답비율 (%)

일본	한국	홍콩	싱가폴	미국	영국
14.7	76.0	41.7	28.0	38.3	33.7

자료 : 「福島民友新聞」(22년 4월 27일)

2) 처리수(処理水)란 트리튬(제거가 곤란한 방사성 물질) 이외의 방사성 물질이, 안전관련 규제 기준치를 확실히 충족할 수 있도록, 다핵종제거설비 등으로 정화처리한 물이라는 의미

3) 부흥청(www.reconstruction.go.jp)은 일본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재해 복구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정부 관청

### 일본정부의 후쿠시마산 농축산물 해외 수출 확대 노력

- 일본정부는 후쿠시마산 농축산물의 국내 판촉 캠페인 및 시식회는 물론 해외수 출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하고 있음
- 후쿠시마산 농축산물의 판촉 캠페인 : ‘후쿠시마를 먹자!’라는 소비촉진 캠페인 전개
  - 총리 중심의 국가 행사에, 후쿠시마산 식재료 활용한 식사 제공 및 시식회 개 최(특히 국제 정상회담시 활용, 언론 홍보)
  - 유명 연예인을 활용한 판촉 이벤트 행사 개최 지원
  -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이용한 도시락을 중앙부처 공무원이 구입하여 시식하 는 행사를 개최(2022년 3월 28일 ~ 30일, 21개 중앙부처 참여)
- 부흥(復興)올림픽 : 제32회 동경올림픽(2021년 7월 23일 ~ 8월 8일)을 ‘부흥 올림픽’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후쿠시마산 농축수산물을 선수촌에 적극 제공
  - ‘부흥올림픽’이란 올림픽 대회와 관련되는 다양한 기회에 활용되는 식재료 및 경기개최 등을 계기로 재해지역의 매력을 세계로 발신한다는 전략



- 이를 통해,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도, '후쿠시마산 농축산물을 사고 싶다', '후쿠시마에 가보고 싶다' 등 재해지역에 대한 관심과 연결고리를 강화해 간다는 것

## 일본 정부의 대한 국 쇠고기수출 의지와 수출 예상액 추산

- 후쿠시마산 농축수산물의 해외 수출 확대 노력 : 일본 국내에서 소비자의 불신으로 수요가 떨어진 후쿠시마산 농축수산물의 활로를 위해 해외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
  - 일본정부는 2030년까지 농축수산물 해외수출 5조엔 달성을 목표로, 품목별 생산자 단체를 지원하는 등, 수출확대정책을 추진 중
  - 특히 후쿠시마산 농축수산물의 해외수출 확대를 위해, 여당인 자유민주당과 정부가 일체가 되어,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자유민주당 농림수산업위원회는, 후쿠시마산 쌀, 와규, 과일 수출을 적극 뒷받침하고, 특히 해외의 수입규제가 덜한 화훼류 수출지원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
  - 자유민주당 사이트에는, 최근 대만의 수입규제조치 완화(2022년 2월 9일)를 정책성과로 대대적으로 홍보
- 일본정부의 후쿠시마산 중심 해외 식품 프로모션 이벤트 개최 사례
  - 2021년 9월 미국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철폐를 계기로, 2022년 2월부터 3월까지, 후쿠시마산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일본식품의 프로모션 이벤트를 뉴욕에서 개최(농림수산성 주관)

쇠고기 수출실적(정육기준)

연	수출량 (톤)	수출액 (억 엔),
2011	570 ( - )	35 ( - )
2012	863 (151.4)	51 (145.7)
2013	909 (105.3)	58 (113.7)
2014	1,251 (137.6)	82 (141.3)
2015	1,611 (128.8)	110 (134.1)
2016	1,909 (118.5)	136 (123.6)
2017	2,706 (141.7)	192 (141.2)
2018	3,560 (131.6)	247 (128.6)
2019	4,339 (121.9)	297 (120.2)
2020	4,845 (111.7)	289 ( 97.3)
2021	7,879 (162.6)	537 (185.8)

자료 : 일본농림수산물성, (무역통계 기준)

주 : ( ) 내는 전년대비 백분율(%)

- 특히, 후쿠시마산 쌀을 이용한 초밥 도시락 및 초밥 만들기 체험, 후쿠시마산 와규를 이용한 소고기 전골 등을 제공하는 시식회 개최
- 후쿠시마산 쌀과, 와규는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방사성 물질 오염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품목
- 일본정부는 농축산물 수출 확대를 국가차원의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 와규를 비롯한 쇠고기 수출확대에 주력하고 있음
- 2021년 수출실적은 7,879톤으로 2020년 4,845톤 대비 62.6%가 증가
  - 금액으로는 2021년 537억 엔으로 2020년 289억 엔 대비 85.8% 증가
  - 전체 수출액의 약 7할은 아시아 시장으로 수출되었는데, 특히 캄보디아, 홍콩, 대만 3개국이 전체의 약 5할을 차지

## 수출대상국 확대를 위한 검역협상 노력

- 2030년 수출목표 3,600억 엔 달성을 목표로, 수출 대상국 확대를 위해 검역 협상에 주력, 2025년 수출목표는 1,600억 엔
- 최근 동향으로, 2018년에는 호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2020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검역 협상을 완료
- 현재 수출가능 국가는 홍콩, 대만,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호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UAE), 러시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멕시코, 필리핀, 카타르, 바레인, 마카오, 미얀마 등 23개 지역 및 국가

## 우리나라(한국)에 대한 쇠고기 수출 노력과 수출 가능액 추정

- 한국과 중국은 수출 해금을 협상중인 국가로 분류되어 있음
  - 근거자료 : '수출확대를 위한 상대국·지역의 규제등에 대한 대응강화(공정표)'(19년 6월 4일)<관계부처 장관회의 배부자료, 농림수산물성, 후생노동성>
  - P.21 주요내용 : 한국과 소고기 수출해금 협의 노력 지속 전개
- 한국으로 일본 화우고기 등 수출 가능액은 41억엔(한화 45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음
  - 이를 물량으로 추산하면 약 602톤 수준



시사점

**포괄적·점진적 한태평양동반자 협정(CPTPP) 가입은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성격이 크며,  
협정가입 이후 일본 농축산물의 적극적인 수출 공세가 예상됨**

- 현재 CPTPP 참여회원국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부르나이, 베트남,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의 11개국
  - 호주 뉴질랜드 등 대부분의 회원국은 우리나라와 이미 양자간 자유무역체결
- CPTPP는 시장개방 수준이 높은 자유 무역협정으로, 일본은 일본농축산물 수출확대 기회로 적극 활용한다는 전략
  - 최근 CPTPP 가입을 신청한 대만이, 일본정부의 압력으로 후쿠시마산 농축산물 수입규제를 해제한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후쿠시마산 와규는 일본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는 수출전략 품목

**한편 2011년 3월 원전사고 이후,  
후쿠시마산 와규 및 육용우 방사능 오염사태는,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과 우려를 폭발적으로 증폭시킨  
일대사건이었으며, 오랜 세월이 흐른 현재도 소비자 우려는 지속**

- 특히 뱃질 및 조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전국적인 문제로 확산되었음
- 더욱이 최근 동경 제1원전 방사능 오염 냉각수를, 처리수라는 미명하에 해양 방출하려는 방침은, 지역 어민은 물론, 국내외 소비자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음

**반면에 일본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재해이전 상태로 돌리고자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부흥청'주도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과학적인 근거라는 미명으로 안전성 홍보, 일상회복 등을 강조
    -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반 소비자들의 불안감 인식은 여전한 것으로, 각종 설문조사에서 확인되고 있음
  - 아울러, 방사능 오염 검사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일상으로의 복귀를 도모하고 있음, 특히, 쇠고기  
에 대한 검사기준을 대폭 완화
    - 농식품 중의 방사성 물질에 관한 '검사계획, 출하제한 등의 품목·구역 설정·해제 방침'은 '원자력재해대책본부'에서 수립함
    - 2011년 8월 4일, 개별품목에 쇠고기, 쌀 취급을 추가
    - 2015년 3월 20일, 쇠고기 검사빈도에 대해, 농가별로 3개월에 1회 정도에서 12개월에 1회 정도로 할 수 있도록 완화
    - 2020년 3월 23일, 개별품목 조사품목인 쇠고기의 검사기준 완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에 대해서는, 검사를 면제
- ※ 해제조건 : 원칙으로 1 시·군·읍·당, 3개소 이상, 최근 1개월 이내의 검사결과가 모두 기준치 이하일 경우

**CPTPP 가입은, 일본산 농축산물, 특히 방사능 오염 지역인 후쿠시마산 와규가  
수입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 일본은 한국과 소고기 수출해금 협의노력을 지속중이며, 한국으로 일본 화우고기 수출 가능액은 최소 41억 엔(한화 450억 원)으로 추산





## 미국 1/4분기 쇠고기 수출, 과거 최고 기록


-  2022년도 1/4분기 미국 쇠고기 수출, 한국 및 중국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늘면서 호조세를 기록
- 미국 농무부 경제조사국(USDA/ERS)에 따르면 2022년 3월 쇠고기 수출량은 13만 7,772톤(전년 동월 대비 1.2% 증가)으로 지난달에 이어 전년 동월을 웃돌았음
- 이에 따라 2022년 1분기 수출량은 38만 3,649톤(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으로 나타남

[수출 선별 미국산 쇠고기 수출량 추이] (단위 : 톤)

구 분	2021년 3월	2022년 3월			2022년 (1~3월)	
			전년 동월비 (증감률)	점유율		전년 동기비 (증감률)
한국	30,193	33,208	10.0%	24.1%	94,738	8.2%
일본	34,345	30,943	▲9.9%	22.5%	84,368	▲7.4%
중국	19,562	24,502	25.3%	17.8%	65,969	61.8%
캐나다	9,654	11,080	14.8%	8.0%	29,606	▲0.4%
멕시코	13,013	10,254	▲21.2%	7.4%	29,869	▲24.3%
대만	6,920	8,660	25.1%	6.3%	25,760	45.5%
기타	22,420	19,125	▲14.7%	13.9%	53,339	▲2.8%
합계	136,109	137,772	1.2%	100.0%	383,649	6.2%

자료 : USDA "Livestock and Meat International Trade Data,"  
주 : 자육중량 기준


-  미국육류수출협회(USMEF)는 1/4분기 수출선 1위를 차지한 한국 수출량 증가를, 한국 내 소매수요 증가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음
- 또 중국에 대한 수출량도 61.8% 증가로 큰 폭으로 증가해, 일본 멕시코에 대한 감소세를 상쇄하는 형태가 됨
- 대 중국 수출에 대해, 미국육류수출협회(USMEF)는, 3월말부터 상하이에서 이루어진 코로나 락다운(lockdown ; 전면봉쇄) 영향으로, 4월 이후의 수출 실적에 부정적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음
- 한편 미 농무부(USDA)는 대만과 중남미 및 중동지역 등 비교적 수출규모가 작은 시장의 경제 및 관광업 회복이 수출량 증가를 뒷받침하고 있어, 주요 수출국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수출처에서의 미국산 쇠고기 수요 증가가 호조를 보이는 수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  2022년 5월 1일 시점의 피드롯(feedlot) 사육 마리 수는 1,196만 7,000마리(전년 동월 비 2.1% 증가)로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
- 미 농무부(USDA) 전국농업통계국(NASS)에 따르면 2022년 4월 피드롯 반입 마리 수는 180만 9,000마리(전년 동월 대비 0.9% 감소), 출하 마리 수는 189만 3,000마리(전년 동월 대비 2.2% 감소)로 모두 감소
- USDA/NASS에 의하면, 2022년 4월의 소 도축두수는 275만 8,500마리( 동 1.3%감소)가 되었음
- 이는 가뭄 때문에, 육용 번식우 도축두수는 계속 많지만 전체의 80%미만을 차지하는 피드롯 출하두수의 감소가 요인으로서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 하지만 높은 수준의 피드롯 사육두수와 2, 3월 도축두수가 증가함에 따라 USDA는 2022년 쇠고기 생산량 전망을 상향 조정함
- 다만 2023년에는 소 공급이 줄어든 것으로 전망되면서, 쇠고기 생산량도 2022년보다는 줄어든 것으로 예측
-  육용 번식우 도축의 증가로 기말 재고량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22년 4월의 쇠고기의 기말 재고량은 24만 2,500톤(전년 동월비 17.3%증가)으로 대폭 증가함
- 예년에는 봄에 쇠고기 재고는 감소하지만 올해는 그 경향을 볼 수 없음, 현지 보도에 따르면 뼈 없는 쇠고기 재고량이 많고, 그 중 절반 이상은 육용우 번식 경영이 많은 미국 남부 서쪽 지역
- 이들 지역의 가뭄으로 14월 육용 번식우 도축두수가 늘어난 것이 재고 증가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또 태평양 쪽 지역에서 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시아 수출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자료 : 일본 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2022년 7월호)



## 미국 텍사스 주, 가뭄으로 소 사육두수 축소 전망

-  미국 농무부(USDA)에 따르면, 미국 남서부의 가뭄이 심화되고 있어, 캘리포니아 주와 애리조나 주 등 서부 텍사스 주와 아칸소 주 등 남부 목초지의 상태가 매우 나쁘다는 평가
- 특히 텍사스 주에서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으며 미국 농무부 국립농업통계청(USDA/NASS)에 따르면 7월 10일 현재 이 주 목초지의 83%가 매우 나쁨 또는 나쁨 상태인 것으로 평가됨
- 또한, 미국 가뭄 모니터에 따르면 7월 12일 현재 텍사스 주의 99.2% 지역서 비정상적인 건조 상태를 보이고 있음
- 그 중 93.8%가 중간 정도 이상의 가뭄, 21.3%의 지역이 가장 상태가 나쁜 것으로 알려진 비정상적인 가뭄을 겪고 있음

[텍사스 주 가뭄 현황과 과거와의 비교] (단위 : %)

시 점	건조 없음	D0 이상 건조	D1 중간 가뭄	D2 심한 가뭄	D3 매우 심각한 가뭄	D4 특이한 가뭄
22년 7월 12일(현재)	0.76	5.42	18.12	23.90	30.48	21.32
22년 7월 5일(1주전)	2.47	10.74	20.75	20.13	29.81	16.11
22년 6월 14일(1개월 전)	8.59	11.45	15.94	21.55	25.69	16.78
22년 4월 12일(3개월 전)	2.87	9.47	13.54	25.01	34.92	14.2
21년 7월 13일(1년 전)	91.38	3.28	4.17	1.16	0	0

자료 : US Drought Monitor  
주 : 가뭄 강도 및 영향은 6단계로 구분, ①None, ②D0(Abnormally Dry), ③D1(Moderate Drought), ④D2(Severe Drought), ⑤D3(Extreme Drought), ⑥D4(Exceptional Drought)





[간선도로에 늘어난 가축운반 차량]



[상황이 악화된 목초지]

④ 텍사스 A&M 대학은, 극심한 가뭄으로 2011년 가뭄 피해에 육박하는 76억 2천만 달러(축산업 피해 32억 3천만 달러) 상당의 피해를 추정

○ 텍사스 주 빅 벤드(Big Bend) 지방에서 화씨 100도(섭씨 37.8도) 이상의 기온이 78일간 지속되고 있음

○ 이밖에도, 라살 카운티 코톨라(La Salle Cotulla)에서 62일간, 웹 카운티 라레도(Laredo)에서 57일간, 톰 그린 카운티 샌 앤젤로(San Angelo)에서도 44일간 지속되었음

⑤ 극심한 가뭄으로 텍사스 주에서는 목초 공급 부족도 심각해지고 있어, 육용우 생산자는 비육 적령기 미달 송아지나 번식암소의 피드롯 반입을 서두르는 등, 육용우의 도태 및 조기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 텍사스 주 농업단체인 '텍사스·팜·뷰로(Texas Farm Bureau)'에 따르면, 텍사스 주 내 가축시장에는 평상시의 4배 이상의 소가 출하되고 있으며, 매주 수천 마리 단위로 육용우 판매가 이뤄지고 있음

○ 7월 11일에 텍사스 주 디케이터(Decatur) 가축시장의 경매에서는 3,181마리의 소가 판매되어(전

년 동월대비 88.7%증가), 가축시장 주변 간선도로에서는 소를 운반하는 트레일러가 수 킬로미터나 줄을 이었음

- 디케이터 가축시장에 따르면, 이 같은 판매 상황은 2011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함

- 디케이터 가축시장 거래두수(5~7월) : (21년) 3,910두 → (22년) 6,239두

⑥ 텍사스 주의 육류 생산자들에 따르면, 봄철 서리 피해에 더해 극심한 가뭄으로, 목초 공급은 매우 부족하고 가격도 급등하고 있어 소 사육두수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

○ 텍사스 주의 육용 번식 암소(경산우) 사육 마리수는 미국전체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음

○ 미국 최대의 비육우 공급 지역을 덮치는 가뭄이 육용우의 생산성 저하뿐만 아니라, 나아가 쇠고기 생산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⑦ '텍사스·팜·뷰로'도 이대로 가뭄이 계속되면, 소 사육두수 축소에 제동이 걸리기 어려워, 앞으로 수년간 육용우 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

자료 : 일본 농축산업진흥기구 (22.7.27.)

## 미국 농무부의 세계 옥수수 수급 예측 (22년 7월)

④ 미국 농무부 세계농업관측보드(USDA/WAOB) 및 미국 농무부 해외농업국(USDA/FAS)은 2022년 7월 12일, 2022/23년도 세계 옥수수 수급 예측치를 갱신

○ 이에 따르면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11억 8,590만 톤(전년도 대비 2.6% 감소)으로 전달보다 9만 톤 상향 조정됐지만, 사상 최고치였던 전년도를 약간 밑돌 것으로 전망됨

- 국가별로 보면 미국의 생산량이 재배면적 증가를 바탕으로 전월보다 114만 톤 상향 조정된 반면, 러시아의 재배면적 감소로 생산량이 하향 조정되면서, 미국 증가분이 흡수되는 형태를 보임

- 기타 주요국의 생산량은 모두 전월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됨

○ 수입량은 전 세계적으로 1억 7,708만 톤(약 1.2% 감소)으로 전달보다 40만 톤 상향 조정됐으나, 전년도보다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소비량은 전 세계적으로 11억 8,524만 톤(약 1.1% 감소)으로 전달보다 104만 톤 하향 조정돼, 전년도보다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국가별로 보면 유럽연합(EU)이 20만 톤, 러시아가 30만 톤 각각 하향 조정됐으며, 최대 소비국인 중국은 2억 9,500만 톤으로 전월과 같이 동결됨

○ 수출량은 전 세계적으로 1억 8,257만 톤(전년대비 8.4% 감소)으로 전달보다 10만 톤 낮아져, 전년도보다 상당한 감소가 예상됨

- 국가별로 보면 우크라이나가 전달과 마찬가지로 1,000만 톤 미만이 예상되는 가운데, 러시아가 50만 톤 하향 조정됨

- 한편 파라과이가 70만 톤 상향 조정되면서, 감소분이 흡수되는 형태가 됨

⑤ 기말 재고는 3억 1,294만 톤(약 0.2% 증가)으로 전달보다 249만 톤 상향 조정돼, 전년도보다

약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⑥ 2022/23년도 미국 옥수수 재고율 10%대 전망 : 미국 농무부 세계농업관측보드(USDA/WAOB)는 2022년 7월 12일, 2022/23년도(9월~익년 8월) 미국의 옥수수 수급 전망을 갱신

○ 생산량은 145억 500만 부셸(3억 6,844만 톤, 전년도 대비 4.0% 감소)로 전월보다 4,500만 부셸(114만 톤) 상향 조정됐으나, 전년도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전망

○ 소비량은 121억 7,000만 부셸(3억 913만 톤, 2.0% 감소)로 전월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돼, 전년도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수출량은 24억 부셸(6,096만 톤, 2.0% 감소)로 전월 예측치와 같은 수준으로, 전년도에 비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이 결과, 기말 재고는 21/22년도 국내 소비량 중 사료 등을 위한 하향 조정된 22/23년도 기수의 상향 조정에 따라 14억 7000만 부셸(3733만톤 동 2.6% 감소)로 전월보다 7000만 부셸(178만 톤) 상향 조정되었으나 전년도를 약간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⑦ 또 기말 재고율(총 소비량 대비 기말 재고량)은 10.1%(0.1%포인트 감소)로 10%대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생산자 평균 판매가격은 부셸당 6.65달러(8,690원, 1킬로그램당 342원: 1미화 = 1,306.8원으로 전월보다 하향 조정되었지만, 전년도보다 상당히 크게 상승

○ 12/13년도에 기록한 부셸당 6.89달러 아래의 최고치가 예측되고 있음

자료 : 일본 농축산업진흥기구 (22.7.22.)

세계 주요국의 옥수수 수급전망 (2022년 6월 10일, 미국농무부 공표) (단위 : 백만 톤)

국 명	2020/21 년도	2021/22년도 (추계치)	2022/23 년도		
			(6월 예측)	(7월 예측)	전년대비(증감률)
미국					
기수재고	48.76	31.36	37.71	38.35	22.3%
생산량	358.45	383.94	367.30	368.44	▲4.0%
수입량	0.62	0.64	0.64	0.64	0.0%
소비량	306.54	315.99	309.13	309.13	▲2.0%
수출량	69.92	62.23	60.96	60.96	▲2.0%
기말재고	31.36	37.71	35.55	37.33	▲2.7%
아르헨티나					
기수재고	3.62	1.18	1.49	1.49	26.3%
생산량	52.00	53.00	55.00	55.00	3.8%
수입량	0.01	0.01	0.01	0.01	0.0%
소비량	13.50	13.70	14.00	14.00	2.2%
수출량	40.94	39.00	41.00	41.00	5.1%
기말재고	1.18	1.49	1.49	1.49	0.0%
브라질					
기수재고	5.33	4.15	4.65	4.65	12.0%
생산량	87.00	116.00	126.00	126.00	8.6%
수입량	2.85	2.00	1.30	1.30	▲35.0%
소비량	70.00	73.00	77.00	77.00	5.5%
수출량	21.02	44.50	47.00	47.00	5.6%
기말재고	4.15	4.65	7.95	7.95	71.0%
우크라이나					
기수재고	1.48	0.83	6.77	6.77	8.2배
생산량	30.30	42.13	25.00	25.00	▲40.7%
수입량	0.02	0.02	0.00	0.00	-
소비량	7.10	13.20	10.70	10.70	▲18.9%
수출량	23.86	23.00	9.00	9.00	▲60.9%
기말재고	0.83	6.77	12.07	12.07	78.3%
중국					
기수재고	200.53	205.70	210.24	210.24	2.2%
생산량	260.67	272.55	271.00	271.00	▲0.6%
수입량	29.51	23.00	18.00	18.00	▲21.7
소비량	285.00	291.00	295.00	295.00	1.4%
수출량	0.00	0.02	0.02	0.02	0.0%
기말재고	205.70	210.24	204.22	204.22	▲2.9%
세계 계					
기수재고	307.47	293.25	310.92	312.28	6.5%
생산량	1,129.00	1,216.07	1,185.81	1,185.90	▲2.6%
수입량	185.34	179.45	176.68	177.08	▲1.2%
소비량	1,143.22	1,198.39	1,186.28	1,185.24	▲1.1%
수출량	182.87	196.73	182.67	182.57	▲8.4%
기말재고	293.25	310.92	310.45	312.94	▲0.2%

자료 : USDA/WAOB(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주 : 각국의 곡물연도는, 세계, 미국; 9월~익년 8월/ 중국, 우크라이나; 10월~익년 9월/ 아르헨티나, 브라질; 3월~익년 2월.

## 호주 쇠고기 수급동향, 대중국 수출 호조

- 호주 통계국(ABS)이 2022년 5월 공표한 통계에 따르면, 금년 1~3월기의 소 도축두수는 142만 마리(전년 동기 대비 4.2% 감소)로 다소 감소
- 쇠고기 생산량도 45만 2,700톤(전년 동기 대비 0.6% 감소)으로 약간 감소
  - 쇠고기 생산량 감소율이 도축두수보다 완만한 것은, 마리당 평균 지육중량이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
  - 호주축산공사(MLA)에 따르면, 소 값 상승을 배경으로 생산자가 증체를 꺾고 피드롯에서 출하되는 소의 비중이 증가한 것이 요인
- 호주피드롯협회(ALFA)에 따르면, 같은 기간 피드롯 사육두수는 126만9,927마리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피드롯 가동률도 85.5%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한편, 호주의 사육두수(牛群) 동향을 나타내는 지표인, 도축두수 전체에서 차지하는 암소의 비율 ‘FSR’을 보면, 2022년 3월은 42.1%로 전회 공표(21년 12월)의 44.7%에서 2.6%포인트 저하되었음
- MLA에 따르면 현재 우군 재구축은 계속되고 있지만 향후 라니냐 현상이 종식돼 가뭄 사이클로 접어들면 한꺼번에 도축이 진행돼, 쇠고기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음
- 육우 가격은 계속 고공 행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육우 생체거래가격의 지표가 되는 동부지구 약령우지표(EYCI) 가격은 1kg당 1,100호주 센트(9,883원: 1호주 달러=898.43원 전후로 추이하고 있어 2022년 5월 24일 시점에서, 동 1,115호주 센트(10,018원)로 계속 고가 안정의 시세가 이어지고 있음

수출 선별 쇠고기 수출량 추이 (단위 : 톤)

구 분	2021년 4월	2022년		2022년	
		4월	전년동월비(증감률)	(1~4월)	전년동월비(증감률)
일본	18,476	13,867	▲24.9%	60,396	▲12.5%
중국	10,820	11,730	8.4%	45,523	▲2.3%
한국	14,470	10,658	▲26.3%	43,697	▲13.8%
미국	11,989	9,929	▲17.2%	36,854	▲11.2%
동남아시아	8,569	6,917	▲19.3%	24,040	▲25.9%
중동	2,322	1,659	▲28.6%	6,096	▲40.6%
EU	761	688	▲9.6%	2,350	▲17.7%
기타	5,094	6,257	22.8%	19,972	5.1%
수출량 합계	72,502	61,705	▲14.9%	238,927	▲12.3%

자료 : DAWE  
주 : 1) 선적중량 기준  
2) 동남아시아는,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의 합계  
3) 중동은,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오만, 이집트, 팔레스타인, 아랍수장국 연방의 합계



## 대 중국 수출은 비교적 견조하게 추이

- 호주 농업·수·환경부(DAWE; Department of Agriculture, Water and the Environment)에 따르면 2022년 4월 쇠고기 수출량은 6만1,705톤(전년 동월 대비 14.9% 감소)으로 상당히 크게 감소
- 현지 보도에 따르면 4월은 호주의 명절이 많고 식육처리시설 가동 일수가 다른 달보다 적기 때문에 평년 생산량·수출량 모두 감소하는 달
- 한편, 2021년 호주·중국 간 무역 갈등 여파로 부진했던 대 중국 수출량은 1만 1,730톤(전년 동월 대비 8.4% 증가)으로 상당히 증가
  - 상하이 록다운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을 감안해도 비교적 견조하게 추이한 것으로 나타남

자료 : 일본 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2022년 7월호)

## 일본, 와규 和牛 육향의 화상 시각화 기술 성공

### 고기 맛과 육향 시각화 연구를 진행 중인, 일본 시즈오카(静岡) 현립대학이 와규(和牛)고기와 미국산 쇠고기 육향을 영상으로 만들어, 그 차이를 보여주는 데 성공

- 불확실하고 애매한 말이 아니라 냄새를 디지털 데이터를 통해 시각적·객관적으로 그 차이를 알 수 있게 됨
- 인간은 코에 있는 400가지 가까운 후각수용체에서 냄새 성분을 인식하고 그 응답 패턴으로 1조 가지 이상의 냄새를 식별할 수 있음
- 연구에서는 389가지 후각수용체 발현 세포를 배양해 냄새에 반응했을 때의 강도를 2차원 바코드와 같은 이미지로 나타내도록 했음

### 시각화된 '엔슈 유메사키규(遠州夢咲牛)의 육향 화상

- 와규 고기에는 수입육과는 다른 독특한 와규 향이라는 달콤한 냄새가 있는데, 시즈오카현의 브랜드 와규 고기 '엔슈 유메사키규(遠州夢咲牛)'와 미국산 쇠고기를 프라이팬에 구워 측정·화상화한 결과, 크게 서로 다른 패턴이 떠올랐음

- 연구를 진행시키는 시즈오카대학 식품화학 연구실의 이토·케이스케(伊藤圭祐) 준(准)교수는 “와규 고기는 일본 고유의 쇠고기로, 고기 향도 수입고기와 많이 다르다”고 주장

### 고기 향은 표현 방법이나 기록 방법도 확립되어 있지 않아, 때나 장소를 초월하여 전달할 수 없었음.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 애매한 향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거나 전달 및 저장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음

- 이 기술은, 주관적 세계에 객관적 지표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이 기술이 와규의 새로운 개량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쇠고기 등급제에도 새로운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주목됨

자료 : 일본 농업신문 (22.6.3.)

## 일본, 정보통신기술 ICT 로 와규 和牛 분만간격 단축

### 일본 농협 카고시마(鹿児島) 경제련은, 정보통신기술(ICT)을 보급, 번식 와규의 평균 분만간격을 매년 단축시키고 있음

- 2021년도 분만간격은 401일로, 2018년도보다 5일 단축되어, 생산성이 1.1% 향상됨
- 경제련 육용우과는 '약 1,300두의 송아지 증두효과가 있다'고 시산, 앞으로도 ICT기기의 도입을 계속 추진, 생산성 향상을 지원할 계획
  - 카고시마현(鹿児島県) 번식 농가호수는 21년 2월 현재, 6,560호로 10년 전과 비교하여 약 3,900호가 줄었음
- 전국와규등록협회 카고시마현지부의 조사에 의하면, 21년도 분만간격 401일은 일본 전국평균 407.3일과 비교하여 6일 이상 짧음

### 분만간격 단축을 위해, 경제련은 독자적인 조성사업으로 '스마트 축산생산성향상 촉진사업'을 추진 중

- 2020년도는 발정발견 장치 및 분만 감시시스템, 인공지능(AI)DP 의한 우군관리를 계 95기기, 2021년도는 계 50기기를 보급함
- 2022년도 이후에도, 매년 50기기의 도입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4년도 20두 이상 사육농가의 보급률 목표는, '발정발견' 10%, '분만감시' 65%, '우군관리' 15%로 하여, 분만간격은 398일을 지향

### 경제련은 2023년도에 ICT 센터(차세대형 번식농장) 설치를 계획중이며, 파이롯트 농장으로서 번식농가에 실증시험을 제시하고, ICT 기기 도입을 촉진

- 구체적으로는, ①분만간격 단축 및 사고두수 저감, ②노동 부담 경감과 비용 삭감, ③새로운 ICT기술의 검증 등 생산성 향상 및 생산원가 절감을 도모할 방침
- 카고시마현 경제련 육용우과는 'ICT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을 경감하고, 육용우 생산기반을 강화 한다'는 의지를 피력



[카고시마 경제련 번식센터]



[분만 감시시스템 장착한 번식암소]



[칼라를 장착한 번식우]



[우사천정 설치 분만감시 시스템 통신기]



# 한우마당

전국한우협회 회원 소식지 「한우마당」은 매달 발행되는 월간지입니다.  
 「한우마당」 대한민국 전체 한우 사육두수 약 70%에 달하는 협회 회원과  
 전후방업계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연간 15만부를 발행하고 있으며 양질의 정보는 물론, 축산관련 잡지 중  
 가장 많은 구독부수로 높은 전파력과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합니다.

## 광고문의

- 1) 광고 문의 및 접수: 025251053@daum.net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 「월간 한우마당」 매체 소개 및 광고신청 안내 참고)
- 2) 광고규격: 188mm×257mm / 내부여백 7~10mm 필요
- 3) 광고금액: 홍보팀 문의 (장기계약 우대)  
 \* 「한우마당」 광고업체는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홍보관 메뉴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 주요 배부처 및 일정

- 1) 협회 대의원 및 임원 등 지도자, 전국 지회·지부, 일반 회원농가
- 2) 농림축산식품부 및 전국 각 지자체 축산과
- 3) 전국 수의대학 및 동물생명, 축산학과, 특성화 대학 등
- 4) 전국 농축협 및 관련 유관기관, 한우협동조합, 전문지 언론사
- 5) 사료 기자재 등 한우마당 광고업체

매월 20일

원고 및 광고시안 마감



전국한우협회



2022. 08  
 vol. 189

## 구독안내

「한우마당」은 협회 회원이면  
 누구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전국한우협회 홍보팀으로  
 문의주십시오.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길 9,  
 제2축산회관 2층 전국한우협회

☎ 02-525-1053, 내선 202 또는 218

🌐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https://www.ihanwoo.org>

한우마당 뉴스 웹진

<http://www.ihanwoo.kr>

제 23권 제8호(통권 189호)

2022년 8월 15일 발행

<비매품>

발행인 김삼주

편집 김재광

광고 이기찬

제작 팜커뮤니케이션

발송 자산포스트

발행처 전국한우협회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6길 9 2층

전화 02.525.1053 / 02.597.2377

팩스 02.525.1054

이메일 025251053@daum.net

인터넷 한우마당 [www.ihanwoo.kr](http://www.ihanwoo.kr)

한우협회 누리집 [www.ihanwoo.org](http://www.ihanwoo.org)

등록번호 서초라 11499



전국한우협회